

西歸浦文化院 研究叢書 IV-⑥

# 濟州島資料集

石 宙 明 著



西歸浦文化院





## 발 간 사

5·16도로변 서귀포시 토평동 입구 소공원에 세워진 흉상은 누구의 것일까?

그 분은 바로 나비 박사로 유명한 석주명 선생이시다. 나비 연구를 위해 2년간 서귀포시 토평동에 머물렀다. 바로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지금의 제주대학 부속 아열대 연구소다.

평양에서 태어난 선생은 개성 송도중학교와 일본의 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모교인 송도중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12년간 나비에 관한 논문 79편을 발표하는 등,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가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36년 7,8월 곤충채집을 위해 제주도를 다녀가면서 부터다.

그로부터 7년 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 책임자로 부임한 2년 1개월 간의 그 짧은 기간에 제주도학에 바친 열정과 그가 이룩한 업적에 실로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는 곤충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 동식물, 인문, 민속, 향토사, 제주도 방언 연구 등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가셨다.

제주를 떠난 후 서울신문사 출판국에서 『제주도 방언집』을 처음으로 출간했고(1947), 이어 『제주도의 생명조사』와 『제주도 관계 문헌집』을 펴냈다(1949). 그리고 그의 유고집인 제주도 수필(1968), 제주도 곤충상(1970), 제주도자료집(1971) 등 모두 6권이다.

그러나 유고집을 제외한 3권은 당시의 인쇄술이나 종이 재질(깁지)이 이제는 펴볼 수 없을 만큼 낡은 상태였다. 이에 우리 문화원은 2008년도 연구총서 발간사업으로 이를 복원하여 선생의 빛나는 업적을 후학들에게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유고집을 포함한 6권을 묶어 문화연구총서로 발간하게 되었다.

올해가 그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고인의 뜻을 기리고, 그의 제주 사랑과 업적을 세상에 펴내어 선양하는 일과, 고인이 제주에 베푼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기도 매우 의의있고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제주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 확신한다.

문화총서 발간을 쾌히 허락해 주신 재미 석윤희님(석주명 선생의 따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문화원 정수현 부원장님, 출판을 위해 힘써주신 도서출판 제주문화 홍성호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일

원장 김 병 수

## Greeting Address

My father's professional contributions and achievements are public knowledge in Korean society; therefore, I will focus on my memories of my father during the early years of my life.

My father was an extremely driven man who was obsessed with his work, and felt that he could not afford to waste a single minute of his life. He was determined to leave important contributions to Korean society whenever there were opportunities given to him as a Korean scholar under the Japanese rule. He was a patriot in his own way. He refused to adopt Japanese surname. We stayed with our own Korean last name, "Seok, or Suk" which was pronounced Seki in Japanese.

My father used to leave home to go to collect butterflies early spring every year, and live in the mountains throughout the entire spring and summer. The only time he would come back home was when he needed to treat the bottom of his feet. His feet would be covered with layers of blisters. He would pierce through each blister with a needle and thread, cut both ends of the thread, so that each blister would drain, and dry out. This process of the management of his feet would take a few days. After a few days of rest and recuperation, he would start all

over again. At the end of summer, he looked like a black (African) person. His nickname was Indian Crow.

He had the very same life style in Jeju Island dialect, and census figures. He would comb through all the surrounding villages, and towns.

He used to despise those who invite sleep at night. He used to say "If you cannot fall asleep within 5 minutes, why do you want to stay in bed?" "You are only wasting your time." As I remember, he used to sleep about five to six hours attitude toward his time management could have created some social conflicts. For instance, he would speak at a wedding, and then attend the reception for only five minutes.

I attended six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since my father was assigned to so many different job locations. I was around seven or eight years old when my father was assigned to go to Jeju Island as the director of agricultural station at Seogwipo. The agricultural station was a few miles away from Seogwipo. We settled in the residence across the agricultural station building. In those days, there was no house or any buildings around the area. The surrounding area was vast wild land.

Just as any traditional Korean families, my father's work was the central focus of our family activities. My father would go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I attended a Japanese primary school in Seogwipo in a horse drawn carriage everyday. However, in the

afternoon, I had to walk back to home by myself. My mother did the usual housework at home. We had a little flower and vegetable garden my mother attended. Occasionally, my mother had to battle with so many different kinds of snakes.

If he was to carry out his research at home, he used to have an "office hour" on the door of his study room. I used to knock on his door at dinnertime. Once in a while, some students would come to see my father, only to find out that they came at a wrong time; therefore, my father was not available. My father used to take 5 minute break for every one hour of study. He used to do " Jump rope" or run around with our dog. It was very important to manage his health.

My father was an exciting and entertaining speaker. He was often humorous also. I still remember that he was invited to do a l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round 1946 or 1947. I heard from somebody that there were so many students that some students had to look into the lecture room through windows from outside. He also had many renowned friends from all different academic fields. Once in a while, my father hosted these friends at our house. They would stay overnight discussing all sorts of topics right after WW II (1946-1948). Some guests drank heavily, and left behind their coats or sox in our house when they left.

I also remember him participating a weekly(or bi-weekly) radio

talk show with several other well renowned friends. They covered all kinds of topics. The program was called;천문만답.

I will always cherish the memories of my father as an extraordinary scholar who did so much in his short life.

Thank not only Mr Byeongsu Kim Director of Seogwipo Culture Center also all the other concerened persons who helped to make this publication possible.

석 윤 희

Irvine California U.S.A

October 17, 2008



## 序

저자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만 2개년여 제주도에 살면서 수집한 제주도에 관한 자료는, 8·15해방 직후 총서로 하여 6권의 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웠었다. 서울신문사 출판국의 호의로 2개월에 1권씩 모두 1년 동안에 필(畢)하려 한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지연케 되었는데, 지연된 그만큼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할 기회를 갖게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제주도총서의 현재까지의 발간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1집 제주도방언집(濟州島方言集; 1947), 제2집 제주도(濟州島)의 생명조사서(生命調查書(濟州島人口論), 1949), 제3집 제주도문헌집(濟州島文獻集; 1949), 제4집 제주도수필(濟州島隨筆; 濟州島의 自然과 人文)(採字了- \* 1968년 寶晉齋 발간), 제5집 제주도곤충상(濟州島昆蟲相; 採字了- \* 1970년 寶晉齋 발간), 제6집에는 제1~5집에 들지않는 여러 자료를 모은 것이다. 이 자료란 것이 필자가 주로 잡지에 기고한 기간(既刊)·미간(未刊)의 출판(拙篇)들로서 그 중에는 기고했던 것을 다시 찾아온 것도 약간 있다.

이 제6집이 제주도총서의 종권(終卷)이므로 친지의 권고도 있고, 또 연구하는 분의 편의를 고려하여 권말에 출저목록(拙著目錄)을 부록으로 넣기로 하였다.

— 1950년 6월 서울에서 —



## 目 次

발간사 .....	3
인사의 말씀 .....	5
韓國의 姿態 .....	13
제주도와 울릉도 .....	15
濟州島地名을 包含한 動植物名(增補版) .....	17
제주도의 나비 .....	31
濟州島方言隨筆補遺 .....	36
濟州島의 植物名 .....	40
濟州島의 動物名 .....	72
農業關係의 濟州語 .....	93
林業關係의 濟州語 .....	123
牧畜關係의 濟州語 .....	128
海産關係의 濟州語 .....	145
漢字의 濟州名 .....	151
濟州島의 洞里名 .....	161
濟州島方言中の 朝鮮古語 .....	170
外國語에서 由來한 濟州島方言 .....	185

濟州島方言과 馬來語 .....	204
濟州島方言과 比島語 .....	209
濟州島方言과 安南語 .....	214
濟州始祖 高·良·夫 三氏考 .....	217
續報 .....	220
耽羅古史 .....	222
總括 .....	227
兎山堂由來記 .....	228
馬羅島엘레지 .....	235
제주도전설 눈까진 장서방(눈먼장평) .....	238
제주도전설 독머르니 .....	241
濟州島의 回想 .....	243
主要作物播種量比較表 .....	248
木香의 栽培試驗 .....	248
蓖麻의 栽培試驗 .....	249
濟州島廳論 .....	252
大韓民國의 女多地域 .....	254
「男女數의 支配線」의 位置 .....	271
島民의 食料品調査 .....	276
濟州島의 象皮病 .....	277
附錄：著者の 業績目錄 及 解説 .....	279

## 韓國의 姿態

— 濟州에서 —

『소크라테스』의 자기자신을 알라는 말은 옛부터 유명하다. 자기가 자신을 모르고는 자처(自處)하기에 곤란한 때문이다.

이 말은 다만 개인에게 한할 것이 아니고, 단체에도 민족에도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런고로 한국사람은 한국의 자태(姿態)를 잘 알아야만 할 것이다. 한국 사람이 한국의 자태를 잘 압으로써, 한국의 문화재를 세계문화 건설에 제공하여, 우리 한국도 열국(列國)에 끼어서 발언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세계문화 건설에 있어서 아무 이바지 하는바가 없는 국가나 민족은, 국제간 혹은 민족간의 회합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는 법이다.

우리는 어느덧 기(期)치 않았던 국제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반성하여도 한국고유의 요소가 도무지 몇 %가 않됨을 알 때 우리는 놀라게 된다. 안경을 보라, 시계를 보라, 만년필을 보라, 우리가 먹고 입는 음식물과 의복의 원료까지도 외국으로 부터의 것이 얼마를 차지하였는가를 생각하라. 그러니 우리도 국제생활에 있어서 제공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쇠퇴하는 양잠(養蠶)을 우리가 진흥시켜 생사(生絲)를 외국에 제공하여 외화를 획득하자는 일이나, 지하자원을 어떻게 한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 전문가들이 역시 생각할 일이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눈 앞의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제주도에는 언어·풍속·습관·기타에 있어서 옛부터 육지와는 상이

하다고 하여 왔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옛날 모습 내지 진정한 모습을 말해주는 자료가 많다. 진정한 한국의 자태를 찾으려면 제주도에서 그 자료를 많이 구할 수가 있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는 고도(孤島)이므로 육지서와 같이 외래문화에 침윤(侵潤)받을 기회가 적었고, 그리 작지 않은 면적과 인구는 고유문화를 보존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공기와 물을 귀하게 생각 못하는 것처럼,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의 특이성 내지 한국의 고유문화성을 귀한 줄을 모른다. 육지인의 한 사람으로 내가 제주도에 2개년이나 생활한 경험으로는, 제주도에 한국의 자태를 밝혀 줄 금조각같은 자료가 지극히 많이 산재함을 알 수가 있다.

이도후(離島後) 4년만에 다시 와보니 해방과 38선 관계로 육지인들의 입도와 소위 육지문화의 침윤(侵潤)으로 제주도의 특이성(特異性)이 없어져감을 느낀다. 그것도 필연적 현상이기는 하나, 하루 바삐 한국의 식자(識字)들은 금조각같은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계통을 세울려고 노력해야겠고, 제주도민 일반도 많이 성원(聲援)해 주셔야겠다.

(제주신보(濟州新報), 1948년 2월 6일 제1면)

## 제주도와 울릉도

우리나라는 큰 반도로 되고 많은 섬들이 붙어 있는데, 그 많은 섬들 중에 대표될만한 섬이 둘이 있습니다. 즉 제주도와 울릉도가 그것인데, 제주도는 남쪽바다, 울릉도는 동쪽바다에 뚝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뚜렷한 섬이 우리 반도에서 뚝떨어져 있다는 것이 벌써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이 두 섬이 바다멀리 뚝떨어져 있는 화산도란 점으로 한국의 대표가 될 것이며, 둘째로는, 제주도는 한국서 제일 크다는 점으로 대표가 됩니다.

울릉도는 크기가 제주도의 1/25이 못되지만, 제주도 보다도 17배나 더 바다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온 것이니, 바다밑에서부터 생각한다면 제주도나 울릉도가 그 크기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 섬의 크기로도 제주도와 울릉도는 한국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대표가 되는 두 섬은 다른 섬이나 다른 나라의 섬에서 볼 수가 없는 특별한 점을 갖고 있어서, 학술상으로 다른 나라에 자랑 할만한 섬들입니다. 이제 그 점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큰 화산이 한라산으로 되었으니, 제주도가 즉 한라산이요 한라산이 즉 제주도입니다. 이 큰 화산인 한라산에는 혹 같이 붙은 새끼화산이 300개 이상이나 있어서, 이 점으로는 두말할 것 없이 세계 제일이요, 이 섬에 있는 현무암으로 된 김녕리의 사굴이란 굴은, 그 길이로 세계 제일이요 식물의 종류가 많기로도 세계적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제주도는 세계 제일되는 것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그외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것을 적

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한라산을 그 밑인 바닷가에서부터 산꼭대기 1,950m까지 오르면서 그곳의 식물을 본다면, 불과 하루에 오르는 곳인데도 아열대에서 한 대에 여행하는 것과 같아서, 말하자면 중국 남경에서부터 북으로 가서, 북경을 지나 홍안령을 또 지나 시베리아에 까지 여행하는 것과도 같아서, 이 한 섬에서 그 풍경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울릉도에는 짐승이 종류가 거의 없고, 뱀이나 개구리의 종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세계적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뱀이나 개구리가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섬이 아닙니까?

그와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말하자면 울릉도에만 있는 식물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너도밤나무’란 식물은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는 다 전멸하고 지금은 화석으로만 남는 식물인데, 이 울릉도에는 살아있는 ‘너도밤나무’가 아직 있는 것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와같이 울릉도는 그곳의 동식물의 형편이 다른 곳과 달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였는데, 개구리만은 10년전에 그곳 학생이 ‘참개구리’라는 보통 개구리 20마리를 우리 본토에서 한 마리에 1전씩 주고 사다가 그곳에 놓아 준 것이 새끼를 치고 차차 퍼져서, 지금은 온 섬에 다 분포되었습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단지 한 종류의 개구리만이 널리 살고있지만, 장래에는 다른 종류의 개구리도 들어갈 염려가 있고, 또 개구리를 먹고 사는 뱀의 종류도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학술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두 섬이 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두 섬을 잘 분석해서 연구하면 큰 진리를 알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학생, 10월치, 51호, 18~9쪽, 우리장량란, 1947)



## 제주도지명을 포함한 동식물명

(증보판)

D.M.Seok : A List of Animals and Plants, the Names of which are containing the localities of the Is. Quelpart. (Revised edition)

제주도에 관한 문헌을 조사중 발기(拔記)한 것인데, 먼저 식물편과 동물편으로 나누고, 각종을 학명의 알파벳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학명 다음엔 국명, 일명(日名), 한자명, 분포지 등의 순으로 기록하였는데, 학명이든 동양제국명(東洋諸國名)이든 제주도 혹은 제주도내의 지명을 포함한 명칭이라면 수록기로 하고, 기타명은 표하여 구별해 놓았다.

수록한 제(諸)명칭 중에는 벌써 학문적으로는 무의미하게 된 것이 많지만 그대로 열거하였으니, 차편(此篇)은 학문적 가치는 별로 없는 것으로 되었다. 다만 제주도 지명이 얼마나 등장되었는가를 알릴 수가 있을 뿐이다. 더욱이 식물명에는 박만규(朴萬奎)씨편 '우리나라 식물명감(植物名鑑)'(1646)에서 인용한 것이 많다.

### 植 物 篇

*Abies koreana* Wilson

구상나무, 사이슈시라베(사이슈우모미, 테우센시라베), 濟州白檜, 濟州島, 無等山, 全北德裕山, 智異山, 加智山.

*Acanthopanax koreanum* Nakai

섬오갈피나무, 탄나우코기, 耽羅五加皮木, 濟州島, 日本.

*Aconitun napiforme* Lèvellè et Vaniot

한라바꽃, 탄나토리카부트. 濟州島.

*A. quelpaertense* Nakai

한라투구꽃, 탄나레이진사우. 濟州島.

*Allium Taquetii* Lèvellè et Vaniot

한라부추, 사이슈야마라ッキョウ, 濟州島, 智異山.

*Aneilema Taquetii* Lèvellè

사마귀풀, 사이슈이bok사. 漢拏山.

*Angelica fallax* De Boissieu

제주사약채, 사이슈오니우드. 濟州島.

*Arabis serrata* Franchet et Savatier var. *hallaisanensis* Ohwi

한라산장대, 사이슈이와하타자호(사이슈하타자호). 濟州島.

*A. s.* var. *japonica* Ohwi

제주장대, 이와하타자호. 濟州島.

*Artemisia hallaisanensis* Nakai

한라산쑥, 탄나요네요모기, 濟州島.

*Aruncus aethusifolius* Nakai

한라개승마, 탄나쇼우마. 濟州島.

*Asilbe chinensis* Maximowicz Var. *Taquetii*(Lèvellè) Hara.

Syn. *A. Thunbergii* Miq. var. *Taquetii* Lè.

*A. Taquetii* M. L.

*A. Taquetii* Koidzumi

한라노루오줌, 탄나토리안. 濟州島.

*Astragalus membranaceus* Fisch. var. *alpinus* Nakai

제주황기, 사이슈우우기. 濟州島.

*Athyrium demissum* H. Christ

제주새말고사리. 濟州島

*Berberis quepaertensis* Nakai

섬매자나무, 사이시우메기, 濟州少藁. 漢拏山.

*Bidens tripartita* Linné var. *hebecarpa* Nakai

제주가막사리, 사이시우토우코기. 濟州島.

*Bistorta suffulata* Creene

제주범꼬리, 클린유키노푸데. 濟州島.

*Boehmeria Nakaiana* Satake

제주신진, 사이시우나가바야브마ヲ. 濟州島.

*B. quepaertensis* Satake

섬신진, 탄나야브마ヲ. 濟州島.

*B. Taquetii* Nakai

섬거북꼬리, 사이시우아카소. 濟州島.

*Bupleurum Lèvèillè* De Boissieu

제주시호, 사이시우사이코. 濟州島.

*Calamagrostis arundinacra* Roth var. *inaequata* Hackel

제주메뚜기피, 사이시우노가리야스. 濟州島

*Calanthe coreana* Nakai

섬새우난초, 사이시우에비네. 濟州島.

*Cardamine glechomaefolia* Lèvèillè

황새냉이, 사이시우타네쯔케바나. 濟州島.

*Carex erythrobasis* Lèvèillè et Vaniot

한라산초(제주사초), 탄나칸스게. 北, 中, 南部濟州島.

*C. macrandrolepis* Lèvèillè

한라사초, 카타스게. 濟州島.

*Carpinus Fauriei* Nakai

섬개서 나무, 사이슈이ヌシデ, 濟州狗西木. 漢拏山.

*Cerastium vulgatum* Linnè var. *hallaisanensis* Nakai

섬좁나도나물, 탄나미니나그사. 漢拏山.

*Chionographis japonica* Maximowicz var. *koreana* Okuyama

살마리꽃. 사이슈시라이트사우. 濟州島.

*Chrysosplenim halaisanense* Kakai

한라괭이눈, 사이슈네코노메사우. 漢拏山.

*Clinopodium multicaule* O. Kuntze var. *Taquetii*(Lèvèillè et Vanitot) Hara

제주탑풀, 사이슈타프바나. 濟州島.

*Corylus hallaisanensis* Nakai

병개암나무, ツボハシバミ. 漢拏山.

*Diplozium Kodamai* Nakai

제주고사리. 濟州島.

*D. virescens* Kunze

제주새고사리, 콧마우잭. 濟州島.

*Dryopteris cystolepidota* Christensen var. *ambigens* Ito

제주홍지네고사리, 탄나베니시다. 濟州島.

*D. tenuissima* Togawa

제주주걱고사리, 아와시브시다. 濟州島.

*D. uniformis* Makino form *typica* H. Itō

곰비늘고사리, 탄나베니시다(라크마와라비). 南部韓國.

*Eriocaulon strum* Nakai var. *platypetalum* Satake

제주곡정초, 탄나크로이ヌノヒゲ. 濟州島.

*E. decemflorum* Max. *coreanum* Nakai

좀개수염, タンナイヌノヒゲ. 濟州島.

*Euonymus quelpaertensis* Nakai

등근잎참빛살나무, タンナマユミ(マルバマユミ). 濟州島.

*Euphorbia Nakaii* Hurusawa

한 대극, サイシウハギクサウ. 濟州島.

*E. pekinensis* Ruprecht var. *Fauriei* Fauriei Hurusawa

제주대극, ミヤマダイゲキ 濟州島.

*Gardneria insularis* Nakai

영주치자, エイシウカヅラ. 濟州島.

*Geranium Robertianum* Linné

제주이질풀, ヒメコウロ. 濟州島.

*G. shikokianum* Matsu. var. *quelpaertense* Nakai

섬쥐손이, タンナフウロ. 漢拏山.

*Heteropappus Chejuensis* Kitamura

제주국화, カゼキリノギク. 濟州島.

*Hydrangea serrata* Seringe var. *acuminata* (S. & Z.) Nakai f. *bertilis* Nakai

탐라산수국, タンナヤマアヂサイ, 耽羅山水菊, 全北智異山, 慶南加智山, 慶北奉化.

*Hymenophyllum humilis* Copeland

제주수염이끼, ヒメホラゴケ. 濟州島.

*Impatiens aphnantha* Hook

제주물봉선, タンナツリフネサウ. 濟州島.

*Krascheninikovia coreana* Nakai

개별꽃, タンナワチガヒサウ. 濟州島.

*Libonotis coreana* Kitagawa

제주방풍, タンナボウフウ. 濟州島.

*Liqustrum ibota* Siebold f. *glabrum* Nakai

청취똥나무, タンナイボ타, 耽羅木. 全南北, 慶南北, 忠南北, 京畿, 黃海道.

*Lonicera Vadalii* Franchet et Savatier

제주괴불나무, 오키헤우탄bok, 濟州島.

*Luzula macrocarpa* Buchenau var. *laxa* Nakai

제주평의밥, 사이시우ヌカボシサウ(카ウ라이ヌカボ시사우, 오희크로보시사우). 濟州島, 韓國, 滿洲, 아므르, 웃수리, 오호츠크地方, 樺太.

*Lycopodium cryptomerianum* Maximowicz

탐라석송, 스키란. 濟州島.

*Maackia Fauriei* Nakai

솔비나무, 사이시우엔지우, 濟州榲槐. 濟州島.

*Palura coreana* Nakai

섬노린재나무, タンナ사ワフ타기, 耽羅檀. 濟州島, 日本.

*Pellionia scabra* Benth

제주물풍덩이, 키미쯔. 中, 南部濟州島.

*Pilea Taquetii* Nakai

타퀘물풍덩이, タンナ미쯔. 濟州島.

*Plantago alata* Nakai

섬질경이, タンナオホ바코. 濟州島.

*Potamogeton Franchetii* Bennett et Baagae

가래, タンナhilum시ロ. 濟州島.

*Potentilla stolonifera* Lehmann var. *quelpaertensis* Nakai

제주소시랑개미(제주양지꽃), タンナ키짐시. 濟州島.

*Primura hallaisanensis* Nakai

한라깨풀, タンナサクラサウ. 濟州島.

*P. japonica* A. Gray

제주깨풀, クリンサウ. 濟州島.

*Prunus Maximowiczii* Ruprecht var. *aperta* Komarov

제주벗나무, エイシウザクラ. 北部.

*P. quelpaertensis* Nakai Syn. *P. serrulata* var. *quelpaertensis* Nakai

사옥, タンナヤマザクラ耽羅山櫻. 濟州島.

*P. serrulata* Lindley var. *quelpaertensis* Uyeki

제주산벗나무, タンナザクラ. 濟州島.

*Quercus crispula* Bl. var. *undatifolia* Nakai

소리나무, サイシウミヅナ. 濟州水楡, 濟州島, 日本.

*Ranunculus Vernyi* Franchet et Savatier var. *quelpaertensis* Nakai

제주젓가락나무, ヤマキツネノボタン. 濟州島.

*Rhamnus Taquetii* Léveillé

좁갈매나무, サイシウクロツバラ, 濟州鼠李. 濟州島.

*Rhododendron saisiuense* Nakai

한라산참꽃나무, カンラツツジ, 漢拏躑躅, 濟州島.

*Rh. Weyrichii* Maximowicz var. *psilostylum* Nakai

제주참꽃나무, タンナアカツツジ. 耽羅赤躑躅. 濟州島.

*Rosa acicularis* Lindley var. *Taquetii* Nakai

제주가시나무, サイシウバラ 濟州薔薇. 濟州島.

*R. nipponensis* Crepin var. *Taquetii*(Léveillé) Murai Syn. *R. Taquetii* Léveillé

사이시우바라. 濟州島, 日本本州, 九州.

*R. polyantha* Sieb. et Zucc. var. *quelpaertensis* Nakai

좁가시나무, コバノイバラ. 濟州島.

*R. suavis* Willdenow var. *Taquetii* Uyeki

제주철레나무, 사이슈바라 濟州島.

*Rubus croceacantha* Léveillé

섬딸기, 사이슈야마이초고, 濟州山苺, 濟州島.

*R. hongnoensis* Nakai

가시딸기, 사이슈바라이초고, 濟州薔薇苺. 濟州島.

*R. parvifolius* Linné var. *Taquetii* Nakai Syn. *R. Taquetii* Nakai

제주명석딸기, 댄나나와시로이초고, 耽羅薔苺, 濟州島. 北海道利尻島.

*R. schizostyris* Léveillé

가시복분자딸기, 탄나톡크리이초고, 토겟스루이초고, 耽羅德利苺. 濟州島.

*Salix Blinii* Léveillé

제주산버들(한라산버들), 탄나미네야나기, 耽羅峯柳, 濟州島, 慶南北, 忠南, 江原, 京畿, 黃海, 咸南北.

*S. hallaisanensis* Léveillé

떡버들, 탄나야나기, 耽羅柳, 濟州島. 智異山. 金剛山, 胞胎山.

*Sambucus Sieboldiana* Blume var. *glabrescens* Nakai

덧나무, 탄나니하토코, 耽羅接骨木. 濟州島, 日本.

*Sarcochilus japonicus* Miquei

제주난초, 카야란. 南部濟州島.

*Sasa quelpaertensis* Nakai

제주조릿대(탐나산죽), 탄나자사, 耽羅笹. 濟州島.

*Sedum oryzifolium* Makino

제주기린초, 타이토고메. 南部濟州島, 鬱陵島.

*S. verticillatum* Linné



제주꿩비름, ミツバベンケイサウ. 北, 中, 南部濟州島.

*Semiaquilegia Leveilleanum* Nakai

섬개구리망, タンナサバノオ. 濟州島.

*Setaria chondrachne* Honda

제주개피, イヌアワ. 南部濟州島.

*Sileene fasciculata* Nakai

한라장구채, タンナシラタマサウ. 濟州島.

*Taraxacum hallaisanensis* Nakai

한라산민들레, イワタンポポ. 漢拏山.

*T. Taqueti* H. Koidzumi

사이시ウトウタン포포, 濟州島.

*Thalictrum Taquetii* Léveillé

한라꿩의다리, イワカラマツ. 濟州島.

*Th. tuberiferum* Maxim. var. *quelpaertense* Nakai

산꿩의다리, ミヤマカラマツ. 濟州島.

*Tofieldia Fauriei* Léveillé et Vaniot

한라산꽃장포, タンナイワゼキセウ. 濟州島.

*Trichomanes quelpaertensis* Nakai

괴불이끼. 호라고케. 濟州島.

*T. stenosphon* H. Christ

괴불이끼, タンナ호라고케. 濟州島.

*Trifolium Lupinaster* Linné var. *alpinum* Nakai

제주달구지풀, タンナシャジクサウ. 濟州島.

*Trisetum Taquetii* Hackel

제주잡자리피, 사이시우카니트리. 濟州島.

*Valeriana Fauriei* Briquet form. *coreana* Hara  
취오즙풀(줄땡가리), サイシウカノコサウ. 濟州島.

*Veratrum Maximowiczii* Baker var. *coreanum* Nakai  
한라여로, タンナアヲヤギサウ. 濟州島.

*Veronica ovata* var. *dentata* Nakai  
제주꼬리풀, タンナヤマトラノヲ. 濟州島.

*Viola ovato-oblonga* Makino  
제주오랑캐 나가바타치쯔波士미레. 南部濟州島.

## 動物篇

*Aegista chejuensis* Pilsbry et Hirase  
제주배꼽명주달팽이, サイシウオホベソマイマイ. 濟州島.

*Aegithalos caudata tarihoae* Momiyama  
제주오목눈이, サイシウエナガ(エオガ). 濟州島, 日本.

*Alauda arvensis queipartae* Momiyama  
증종다리, チウヒバリ. 韓國.

*Alycaeus(Orthalycaeus) kurodai* Pilsbry et Hirase  
제주튀밥고등, サイシウムシオヒ, 濟州虫負. 濟州島.

*Anechure queiparta* Okamoto  
제주집개벌레, テウセンコブハサミムシ. 濟州島.

*Anomala(Diplomala) queiparta* Okamoto 제주풍뎅이, サイシウコガネ.  
濟州島.

*Calappa terrae-reginae* Ward

제주면두개, シリタシトラマンジュウ. 濟州島.

*Carabus jankowskii quelpartianus* Breuning

제주딱정벌레. 韓國.

*C. tyrannus* Laporge

사이슈카브리모ドキ. 濟州島.

*Chloris sinica affinis* Momiyama

제주방울새, 사이슈카하라히ハ(코카하라히ハ). 濟州島, 對馬, 日本, 臺灣(?).

*Corvus coronoides quelpertis* Momiyama

큰부리까마귀, 사이슈하싯트카라스. 濟州島.

*Crocidura dsinezumi quelpartis* Kuroda

제주뒤쥐, 사이슈치네즈미. 濟州島.

*Daimio sinica* Felder var. *saishiuana* Okamoto

제주도왕자팔랑나비, 테우센다이메우세세리, 사이슈다이메우세세리. 濟州島.

Danaidae

제주왕나비科, 斑蝶科. 濟州島, 全世界熱帶及亞熱帶地方.

*Danaus*

제주왕나비屬, 斑蝶屬. 濟州島, 全世界熱帶及亞熱帶地方.

*D. tytia* Gray

제주왕나비, 영주왕(瀛州王), 아사기마달라. 濟州島. 南中, 韓國, 日本, 中國.

*Dryobates leucotos quelpartensis* Kuroda et Mori

제주오색딱다구리, 사이슈오호아케라. 濟州島.

*Emberiza cioides ijimae* Stejneger

제주멧새, 이히지마호호지로. 濟州島.

*Horeites (Homochlamys) cantans takahashii*(momiyama)

제주회과람새, 사이슈우구히스. 濟州島.

*Hynobius leechii* Boulenger *quelpaertensis* Mori

도룡뇽, 사이슈우산세우우라. 漢拏山.

*Lycaena argus zezuensis* Seok

부전나비, 사이슈우시지미테프. 濟州島.

*Marumba saishiuana* Okamoto

제주박각시, 테우센크치바스즈메. 濟州島.

*Microcelis amaurotis kanrasani* Momiyama

제주직박구리, 사이슈우히요. 濟州島.

*Miltochrista pulchra quelparta* Okamoto

제주도점박이붉은꼬마불나방, 사이슈우고마다라베니코케가. 濟州島.

*Monticola solitarius latouchei* Kuroda

제주바다직박구리, ツシワイソヒヨ(イソヒヨドリ). 濟州島, 鬱陵島, 韓國, 對馬, 琉球, 日本, 千島.

*Mustela(Lutreola) sibirica quelpartis*(Thomas)

제주족제비, 사이슈우이타치. 濟州島.

*Okeanos quelpartensis* Distant

앞노란노린재, 마헤지로카멤시. 濟州島, 韓國, 中國.

*Palarus saishiuensis* Okamoto

제주은등이벌, 테우센깅크치바치. 濟州島.

*Parnara mathias* Fabricius

제주도꼬마팔랑나비, 차야바네세세리. 濟州島, 日本, 中國, 南洋, 中央亞細亞, 阿弗利加.

*Parus major quelpartensis* Kuroda

제주박새, 시마시지우가라(시지우가라). 濟州島, 對馬, 日本, 千島.

*Passer montanus saturatus* Stejneger

제주참새, スズメ. 韓國.

*Petalochlamys queipartensis* Pilbry et Hirase

제주자라고등, サイシウベッコウ. 濟州島.

*Plectotropsis queipartensis* Pilsbry et Hirase

제주털명주달팽이, サイシウケマイマイ. 濟州島.

*Procyclus minutus queipartensis*(Pilsbry et Hirase)

제주꼬마산우렁이, サイシウアツブタガヒ. 濟州島.

*Rhinolophus queipartis* Mori

제주관박쥐, サイシウキクガシラカウモリ. 濟州島.

*Satyrus alcyone zezutonis* Seok

산굴뚝나비, タカネツヤノメ. 濟州島.

*Sittiparus varius saisuensis* Kuroda et Mori

제주곤줄박이, サイシウヤマガラ. 濟州島.

*Spilosmylus saishiuiensis* Okamoto

테우센히로바카게로프. 濟州島.

*Spirostoma japonicum chejuensis*(Pilsbry et Hirase)

제주팔랑개비, サイシウヤマグルマ. 濟州島.

*Troglodytes troglodytes queipartis* Kuroda et Mori

굴뚝새(제주쥐새), サイシウミソサザイ. 濟州島.

*T. t. utanoi* Kuroda

제주굴뚝새, ツシマミソサザイ. 濟州島.

*Turritella saishuensis* Yokoyama

제주어리송갯고등, ヒメキリガヒダマシ. 濟州島.

*Xylicopa flavifrons* Matsumura

제주어리호박벌, マヘキクチバチ. 濟州島.

*Xylotrechus atrotatus subscalaris* Pic

제주호랑하늘소. 濟州島.

*Yungipicus kizuki saisiuensis* Momiyama

제주쇠딱구리, 사이시우코게라. 濟州島.

*Zizera maha* Koll. *saishutonis* Matsumure

남방부전나비, 야マト시지미, 사이시ウトニス形. 濟州島.

## 總 括

1. 여기 나오는 지명은 濟州, 濟州島, 耽羅, 瀛洲, 漢拏山, 烘爐(西歸面) 등인데 此等諸地名이 韓國語音, 日本語音 혹은 歐洲語音으로 쓰여져 있다.
2. 命名者와 시대에 따라 동일 지명이라도 綴字에 相異가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3. 여기에는 벌써 학술상으로는 효력이 없어진 이름이라도 수록하였다.
4. 동물명에 비하여 식물명이 단연 많은 것은 동물분류학과 식물분류학의 현상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初版 : 國立科學博物館動物學部研究報告, 第1卷, 第1號, 1-4頁, 1946).

## 제주도의 나비

내가 잡은 제주도의 나비는 7과 65종이요, 문헌에는 있고 아직 못 잡은 종류는 4과 8종으로 합치면 제주도산접류(濟州島産蝶類)는 7과 73종이나 된다. 그러나 문헌에 있다는 8종에는 의심나는 종류들도 있어서, 제주도산은 대략 70종이라면 무난하겠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비교적 풍산(豊産)되는 것은 56종인데, 이제 이 56종의 나비가 1,950m의 한라산이 있는 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적어보겠다. 표고는 m으로 표하겠는데 이 고거(高距)는 한라산 남북에 의해서 대단한 차이가 있으니, 여기 말하는 m은 산남북의 중간 혹은 산동서의 표고를 의미한다고 하여도 좋겠다.

### I. 全島에 産하는 種類(15種)

제주왕나비, 흰뱀눈나비, 은줄표범나비, 긴은점표범나비, 들신선나비, 작은멋장이, 큰멋장이, 줄흰나비, 제비나비, 산제비나비, 산호랑나비, 긴꼬리제비나비, 호랑나비, 유리창떠들석팔랑, 제주도꼬마팔랑나비.

### II. 山地性의 種類(12種)

A. 정상에서도 잡을 수 있는 종류

1. 1,800m 이상 ..... 산굴뚝나비, 산부전나비, 꽃팔랑나비.
2. 1,500m 이상 ..... 가락지장사.

3. 1,400m 이상 …… 조선산뱀눈나비, 눈많은 그늘나비.
4. 1,000m 이상 …… 큰녹색부전.
5. 500m 이상 …… 먹그늘나비, 은점표범나비, 검은떠들썩팔랑.

B. 정상에서는 잡을 수 없는 종류

1. 1,400~1,000m …… 도시처녀
2. 1,000~200m …… 제일줄나비.

### Ⅲ. 海岸性的의 種類(29種)

1. 1,400m 이하 …… 굴뚝나비, 부처사촌, 물결나비, 암끝검은표범나비, 흰 줄표범나비, 암검은표범나비, 애기세줄나비, 청띠신선나비, 담흑부전나비, 호랑나비, 푸른큰수리팔랑나비.
2. 1,000m 이하 …… 왕은점표범나비, 푸른부전나비, 남방부전나비, 극남부전나비, 남방노랑나비, 남방제비나비, 제주도왕자팔랑나비, 줄점팔랑나비, 흰점팔랑나비.
3. 700m 이하 …… 홍점알락나비, 극남노랑나비.
4. 500m 이하 …… 물결부전나비, 암먹부전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 청띠제비나비.
5. 200m 이하 …… 남방씨-알뿔, 먹부전나비, 배추흰나비.

### Ⅳ. 考 察

1. 전도에 산(産)하는 15종은 모두 0~1,950m의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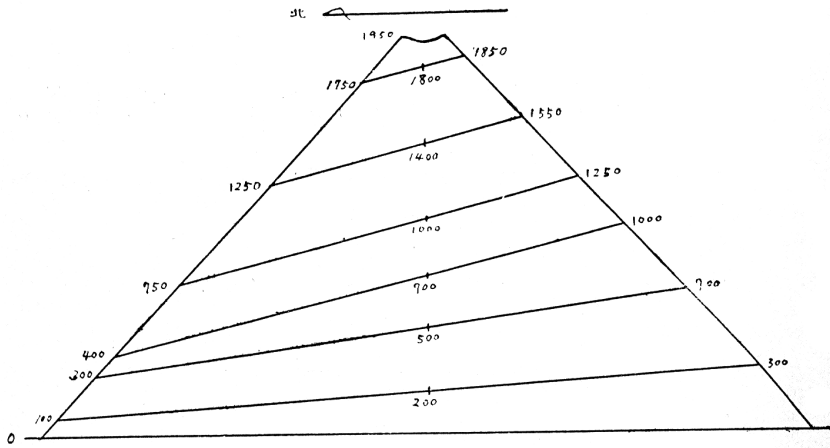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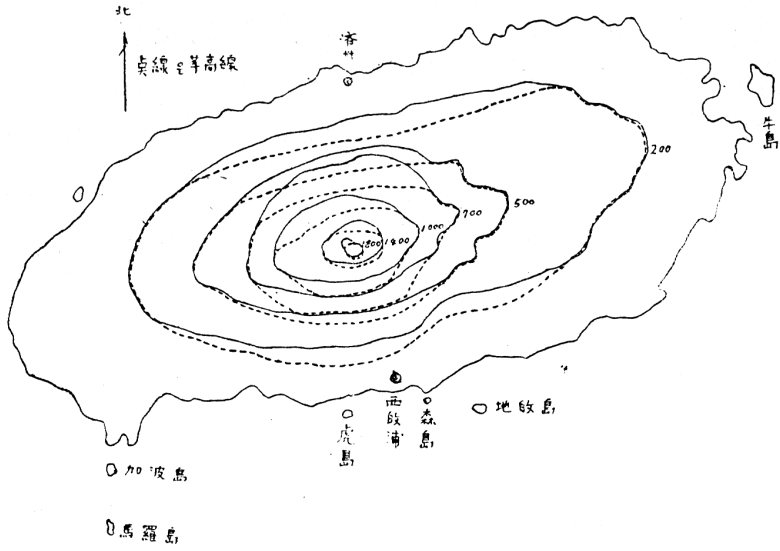


는 것으로 생존력이 강대(強大)함을 알 수가 있겠다.

2. 산지성(山地性)의 종류는 다시 7로, 해안성(海岸性)의 종류는 다시 5로 각각 세분되는데, 그것들을 총괄하면 1,800m 1,400m 700m 200m의 6선(線)에 의의(意義)가 있는 것으로 고찰된다.
3. 이 6선은 각각 산남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마는 편의상 1,800m선 1,400m선 1,000선 700m선 500m선 200m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 1,800m선은 정상부를 의미하는 것인데 정상부에는 「산굴뚝나비」, 「산부전나비」, 「꽃팔랑나비」, 「가락지장사」 등이 산하고 「가락지장사」는 북측에서는 식초(食草)의 관계로인지 1,200m 부근까지 내려가 있어서 재미가 있다.
5. 1,400m선은 상방(上方)으로 부터의 「조선산뱀눈나비」나 「눈많은그늘나비」 등을, 하방(下方)으로 부터의 「도시처녀」, 「굴뚝나비」, 「부처사촌」, 「물결나비」, 「남끝검은표범나비」, 「흰줄표범나비」, 「암검은표범나비」, 「애기세줄나비」, 「청띠신선나비」, 「담흑부전나비」, 「노랑나비」, 「푸른큰수리팔랑나비」 등을 막는 한계선이다.
6. 1,000m선은 상방으로부터의 「큰녹색부전」과 「도시처녀」를, 하방으로부터의 「제일줄나비」, 「왕은검은표범나비」, 「푸른부전나비」, 「남방부전나비」, 「극남부전나비」, 「노랑나비」, 「남방제비나비」, 「제주도왕자팔랑나비」, 「줄점팔랑나비」, 「흰점팔랑나비」 등을 막는 한계선이다. 또 이 선은 「흰줄나비」의 극히 풍산하는 선도 된다.
7. 700m선은 하방으로부터의 「홍점알락나비」나 「극남노랑나비」를 막는 한계선이다. 또 이 선으로부터 상방에는 「줄흰나비」가 풍산한다.
8. 500m선은 상방으로부터의 「먹그늘나비」, 「은점표범나비」, 「검은테며들석팔랑」 등을, 하방으로 부터의 「물결부전나비」, 「암먹부전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 『청띠제비나비』 등을 막는 한계선이다.

9. 200m선은 해안지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상방으로 부터의 『제일줄나비』를 하방으로부터의 『남방씨알뿔』, 『떡부전나비』, 『배추흰나비』 등을 막는 한계선이다.
10. 이들의 6선은 따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도 있다.
  - 1,800m선 …… 정상선.
  - 1,400m선 …… 암끝검은표범나비 한계선.
  - 1,000m선 …… 남방노랑나비 한계선(또 남방부전나비, 남방제비나비, 제주도왕자팔랑나비, 줄점팔랑나비 등의 한계선이라고도 할수 있음)
  - 700m선 …… 극남노랑나비 한계선
  - 500m선 …… 암떡부전나비 한계선
  - 200m선 …… 해안지대선.
11. 이상의 6선은 산남북에 따라 적지않게 차이가 있는데, 나의 나비의 자료와 식물 기타의 자료로 미루어서 나는 별도(別圖)와 같은 분포도를 그려보았다.
12. 제주도의 제속도(諸屬島)에는 『남방부전나비』와 『노랑나비』의 2종은 산하니 이 종은 가장 생존력이 강한 종류임을 알겠다.
13. 제주도에서도 더욱 바람이 강한 남쪽 섬들이 마라도(馬羅島), 가파도(加波島), 지귀도(地歸島) 등에 주도(主島)에는 극희(極稀)한 『떡부전나비』가 풍부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더욱이 이 종류는 일본 큐슈(九州) 등지에도 없고 『암떡부전나비』처럼 보편성이 있는 종류도 아닌데야 기이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拙著：濟州島の蝶類；國立科學博物館動物學部研究報告，第2卷，第2號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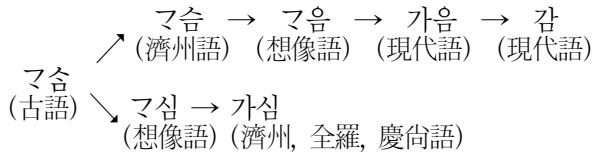
## 濟州島方言隨筆補遺

### 가시

장인(丈人), 장모(丈母)를 제주어로 가시아방, 가시어멍이라 하고, 장조(丈祖), 장조모(丈祖母)를 가시할방, 가시할망이라고 하니 육지의 가시할아버지, 가시할머니와도 같다. 뿐만아니라 부부(夫婦)를 제주어로는 「두가시」라고 하니 대관절 이 「가시」란 말이 무엇일까.

「가시」가 우리말의 고어로 처란 뜻임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가시」가 마래어(馬來語)로 Kasih 즉 사랑(愛)이란 뜻임은 누구에게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제주어 내지 한국어의 「가시」나 마래어의 「가시」가 동원어(同源語)임을 짐작하겠다.

### 감(材料)의 변천



### 같다(現代語)와 곱으다(濟州道)와 그 고어

이때까지 모은 고어는 8개가 있는데 발음상으로는 2계통이오 그것들을 순기(順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ㄱ다-ㄱ·ㄸ다-ㄱ다-같다.
- ② ㅁㅌ다-곶ㅌ다-곶ㅎ다-곶ㅌ다-곶ㅎ다-곶으다.

### 「깡」과 「비바리」

제주어로 뼈(骨)을 「깡」, 처녀를 「비바리」라고 하는데 나는 연내(年來)로 두 말의 어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지금 겨우 억지로라도 그

와 비슷한 말을 구하였기에 기록해 두겠다.

광-꿏(광둥어(廣東語)).

비바리-비발(妣髮) ; 범부레(벤골주(州)의 인도어(印度語)).

### 기와(瓦)의 변천

디새 → 지새 → 지애 → 기애 ← 기아 → 기와  
 고    고전제    제    ?    현    현  
 어    어라주    주            대    대  
           어어    어            어    어

### 나락(벼)의 변천

노룩 → 나룩 → 나락(벼)  
 (제주어) (제주어) (현대표준어)

### 마을(村)의 변천

ㅁ술 → ㅁ을 → ㅁ을 → 마을  
 (고어) (중고어) (제주어) (현대표준어)  
 | \  
 ㅁ실    ㅁ술  
 (제주어) (제주어)

### 말라리아 병명(病名)

이 병은 학질(瘧疾)이란 통칭이 있지만 제주도에 9개의 별칭이 있다. 즉 피병, 날걸리, 말거미, 물먹는병, 사늑병, 터는병, 꾀터는병, 터러기, 초약 등등.

### 매미

제주어는 실로 많은데 자리, 재, 재리, 재알, 재열, 쨌 등 6개어이다. 이 말의 어원은 중국어(中國語)의 「젠」일 것인데 ㄴ이 ㄹ로 변한데 재미가 있다.

### 미나리(芹)의 제주어

4종이 있는데 표준어까지 합쳐서 그 5개의 관계를 표시해 보겠다.

맷내기 → 민네기 → 미네기 → 미나기 → 미나리  
 (제주남부) (제주어) (제주북부) (제주어) (표준어)

**「벼루」의 어원(語源)**

이때까지 알려진 것을 도해하니 제주어가 원형으로 생각된다.

베리 - 베루 - 벼루  
 (제주어) (청주, 평양) (표준어)  
 \  
 베릿돌  
 (주을(朱乙))

**「벼룩」의 어원**

이때까지 알려진 것을 도해하니 제주어가 최고어(最古語)인양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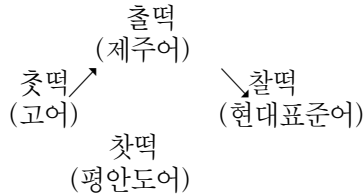
벼룩  
 / (고어) \  
 벼룩 - 벼룩 - 벼룩  
 (제주도) (청주) (표준어)  
 \  
 비럭  
 (대구)

**변소(便所)의 명칭**

제주도의 변소는 돈사(豚舍)를 겸하여 인분은 돼지의 주요 사료이다.  
 그래서 변소의 명칭은 다음의 5종이 생겼다.

- ① 통쉬-본래부터 보통 명칭이었을 것.
- ② 통시-「통쉬」가 변한 것.
- ③ 돈통-본래는 돈사를 의미하였을 것. 돼지의 먹이통→돈도고리
- ④ 도통시-「돈통」과 「통시」가 숨해서 된 것.
- ⑤ 칩간-축간(厠間)의 뜻.

「찰떡」의 제방언(諸方言)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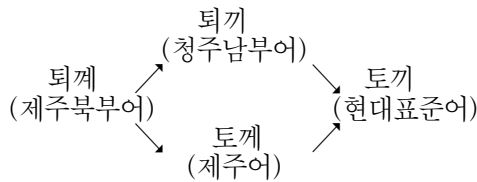
「체」와 「계」

제주어로 「체」라면 「깍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나록체(버깍질), 보리체(보리깍질), 조체(조깍질), 모멸체(모멸나깨)들이 그것이다. 이 예들로 미루어 보면 「깍질」을 「계」로 대응하고, 「계」가 「계」로 「계」가 다시 「체」로 변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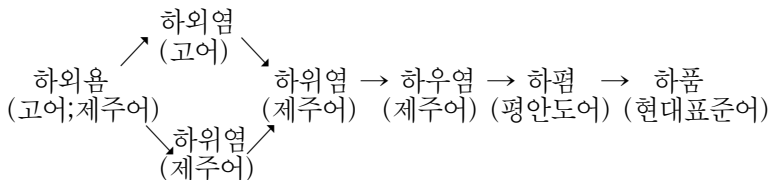
태국어(泰國語)

제주어와 태국어를 비교해보고 싶으나 태국어를 가르켜 줄 사람이 없어서 손대지 못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제주어와 공통되는 태국어 1개를 얻었기에 여기 기록한다. 제주어의 「매미」란 말은 「마감」이란 뜻인데 태국어로는 「없다」의 뜻이라니 서로 통하는데가 있어서 재미가 있다.

토끼(兔)의 변천



「하품」의 변천



## 제주도의 식물명

제주도민은 이 섬에 많은 식물을 풍부히 이용한다. 더욱이 인축(人畜)의 약용으로 하는 것이 많아서 그들의 경험을 종합정리하면 분명히 의의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의미에서 나는 식물의 제주명을 모아 보았다. 또 표준명과 같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들은 생략하였다.

전문가아닌 나의 졸편(拙篇)이 후일 어디 이용된다면 행(幸)일까 하며, 동시에 어서 속히 전문가 손에 의하여 농민들의 경험이 종합정리될 것을 나는 바란다. 벌써 나카이 다케노싱(中井猛之進) 박사의 업적(濟州島植物報告書, 다이쇼(大正) 3년)에도 많은 식물의 제주명 내지 한국명이 부기(附記)되어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제주명과 한국본토명이 혼동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반감된다. 내가 제주도의 식물명을 조사할 때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듣고 수집하였는데, 그 중에는 동일명이 수종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반대로 1종의 식물이 수개명을 갖고 있는 때도 있어서, 혼란된 점도 없지는 않다. 또 약간의 철자가 다른 경우는 일정한 표준에 의하여 정리하였으니(졸저 濟州島方言 1947, 참조) 전체로 보아 통일되지 못한 것이 약간 있음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이제 제주명·표준명·일본명의 순으로 기록하겠는데, 아직 우리말은 표준명이라고 하더라도 보편화하지 않았고 참고문헌 관계도 있어서 일명까지를 부(附)하였다.

또 내가 수집한 식물명 중에서도 아직 미정리의 것이 있으나 할애하는 수밖에 없었고, 전기(前記) 나카이(中井) 박사 업적 중에 나오는 제주명 내지 한국명 중에서도 아직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11과 11종이 있어 여기 부기하여 두고 싶다.



- 화본과(禾本科) 케치데미자사(모어우에)
- 호초과(胡椒科) 푸투우카쯔라(오펜파므라움)
- 육마과(蓼麻科) 노마요(푸크툼)
- 십자화과(十字花科) 이누다라시(한치에)
- 위모과(衛矛科) 테우센마유미(케소치야이)
- 의답과(蟻塔科) 아리노투(멀츬)
- 앵초과(櫻草科) 노치트라노야(모코지요)
- 진형과(唇形科) 유키미사우(힌센유)
- 인동과(忍冬科) 네이로브시담마(케르브남)
- 길경과(桔梗科) 히나기케프(페ッフ세, 소이요사스시)
- 국과(菊科) 혼바야브레가사(사그왓테, 사그왓쿨)

그리고 나카이(中井) 박사의 보고에는 142과로 되어 있지만 140과의 오산(誤算)인양 하다.

후출(後出)의 목록을 보면 알일지마는 제주도의 식물명은 『ㄱ』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ㅅ』행이 많다. 그리고 식물명에는 가마귀(鳥), 개(犬), 고양이(猫), 말(馬), 산(山), 참(眞), 황(黃)들이 붙은 것이 특히 많다.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가개비참외	개구리참외	成歡眞瓜
가마귀똥	섬엄나무	トベラ
가마귀마게	가마귀베개	ネコノチチ
가마귀바농(北部語) = 개바농(南部語)	도개비바늘	センダングサ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가마귀수까락 =살마=산마=반화	반하(끼무룻)	カラスビシャク(半夏)
가마귀연줄 =생이연줄(南部語)	팽이밥	カタバミサウ
가마귀외 =고냉이풀(北部語)	팽이밥	カタバミサウ
가마귀지장 =소새꿀=소새쿨=왕소새	솔새	メガルカヤ(カルカヤ)
가세축 =흑축	생강나무 (개똥백나무, 아구사리)	ダンカウバイ
가스래기낭=가스르기낭 =가시룽낭=가스룽낭	사스레피나무, 섬쥐똥나무	ヒサカキ, ハマヒサカキ
가스새=가시새	파리풀	ハヘドクサウ
가승마	삼지구엽초(음양각)	イカリサウ
가시룽낭=가스룽낭 =가스래기낭=가스르기낭	사스레피나무, 섬쥐똥나무	ヒサカキ, ハマヒサカキ
가시리	우뭇가사리	テングサ
가시새=가스새	파리풀	ハヘドクサウ
가시엄낭	엄나무	ハリギリ
가시틀	산딸나무의 1變種	ヤマボウシノ1變種
가지깁이교장 =축교화=접치꽃	축규화	タチアヲヒ
간남	광나무	タマツバキ(ネズミモチ)
간죽대=고대	오죽	クロチク(烏竹, 紫竹)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갈남	떡갈나무	カシハ
갈대	조릿대의 1種	スズタケ
감기판=당귀=남밭초	가막사리	タウコギ
감저=감제	고구마	サツマイモ(甘藷)
감태(甘苔)		カヂメ
갓	골마지	カビ(黴)
갓다리꽃=박다리꽃	합다리나무	アワブキ
갓데제환지	대새풀	テウセンガリヤス (バレンガヤ)
강굴남	굴나무종류	柑橘類
강낭피	해바라기	ヒマワリ
강낭대죽	옥수수	タウモロコシ
강쿨	노루귀	スハマサウ(ミスミサウ)
개꽃남	갯메꽃	ハマヒルガホ
개난독남	왕초피나무(왕산초나무)	オホザンセウ
개낭	누리장나무(개똥나무)	クサギ
개바농(南部語) =가마귀바농(北部語)	도깨비바늘	センダングサ
개반초 =인초반=예반초=만년초	문주난	ハマオモト
개베롱개 =베롱개=개삼동	까마중이(강태, 감뚜라지)	イタホホヅキ
개비눔	비름	イヌビユ
개삼동	까망중이(강태, 감뚜라지)	イヌホホヅキ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개베룽개=베룽개		
개생게(北部語)	소루쟁이 (南部語-물생게, 술)	ギシギシ
개술=생게	수영(승아, 시금초)	スイバ(スカンポ)
개엿뀌	여뀌	ミシタデ
개웃낭	거망웃나무	ハゼノキ
개유	들깨풀	イヌカウジュ
개자리(쿨)	벌노랑이	ミヤコグサ
개죄피=개죄피(낭)	분디나무	イヌザンセウ
개죄피(낭)	분디나무	イヌザンセウ
개탕쉬낭(北部語)	탱자나무 (南部語-탱우지)	カラタチ
갯늬물	겨자(芥子)	カラシナ
검복낭=검복낭	풍개나무	エゾエノキ
개에기	줄	マコモ
개염지탈=베염탈	뱀딸기	ヘビイチゴ
고개초	애기똥풀	クサノワウ
고냉이멀리	까마귀머루	エビヅル
고냉이정당=고냉이정동 =정당=정동=춤정동	땡땡이덩굴	アラツツラフヂ
고냉이쿨	할미꽃	オキナグサ
=광난이쿨=하리비고장		
고냉이풀	팽이밥	カタバミサウ
=가마귀외(北部語)	(南部語-까마귀 연줄, 생이연줄)	

제주어	표준어	일어
고냉이풀 =떡정당=떡정동	계요동, 여청	ヘクソカツラ (ヤイトバナ)
고네할미(北部語)	닭의장풀	ツユクサ
그능풀=고로쿨(南部語)	닭의장풀	ツユクサ
고롬쿨	젓풀	タンポポ其他乳汁ノ 出ル草
고롬쿨=젓쿨	땅빈대	ニシキサウ
고베기	고비	ゼンマイ
고사쿨	벼룩아재비	アイナヘ
고삼=너삼	도둑놈의지팽이, 고삼	クララ
고요화=소스랑쿨 =쇠스랑쿨=물팡쿨 =노리자리=향유초	향유(香薷)	ナギナタカウジュ
고장근	호장(虎杖)	イタドリ
고치	고추	トウガラシ
곡지탈	가시딸기	バライチゴ (サイシウバライチゴ)
곤저리쿨	싸리	ハギ
곰생이(北部語)	곰팡(南部語-곰생이)	カビ
꼼치(먹는꼼치)	머위	フキ
꼼치(안먹는꼼치) =공초=박쿨	곰취	オタカラコウ
곱다산이=곱대산이 =곶대산이=곶대산이=대산이	마늘	ニンニク

제주어	표준어	일어
곶사비낭	새비나무	ヤブムラサキ
곰생의(南部語)	곰팡이(北部語-곰생이)	カビ
곰초 =뽕치(안먹는뽕치)=박쿨	곰취	オタカラコウ
광난이쿨 =고냉이쿨=하리비고장	할미꽃	オキナグサ
팡낭=피팡낭	팡팡나무	イヌツゲ
팡베낭=들베낭=산베낭	콩베나무	ヤマナシ
피	참깨	ゴマ
피팡낭	쥐똥나무	イボタノキ
피팡낭=팡낭	팡팡나무	イヌツゲ
구렁대=수리대	구리때	コエツニウ, ヨロヒクサ
구름비낭	까마귀쪽나무	ハマビハ
구름폐기=부름폐기	상산(常山)	コクサギ
구룽피	감탕나무	モチノキ
구실=수승	을무	ハトムギ
구엽초	좀쟁의다리	アキカラマツ
국활=굴계남=굴괴낭	굴거리나무	ユヅリハ
굴계남=굴괴낭=국활	굴거리나무	ユヅリハ
굴낭	굴피나무(굴태나무)	ノグルミ
굴목낭=굴목이=굴목낭 =굴목이=넛기낭=니끼낭	느티나무	ケヤキ
꿀=쫄=줄=너출=넛출	덩굴	蔓

제주어	표준어	일어
굵각초=굵랑초	마타리	オミナヘシ
굵랑초	여뀌바늘	テフジタデ (タゴバウ)
굵낭	꾸지나무	カヂノキ
긋가시낭=꺠가시낭=꺠낭	꾸지뽕나무	ハリグワ
궁꺠이	궁꺠이(천궁)	センキュウ(川芎)
평마농	산달래	ノビル
평밭	파드득나무	ミツバ(セリ)
평조	평의밥	スズメノヤリ (スズメノヒエ)
귀마	국화마	キクバドコロ
귀밀	귀일	エゾムキ
꼭=척	츄	クズ
글히역	수크령	チカラシバ
ㄹ대	갈대	ヨシ(アシ)
ㄹ대=간죽대	오죽	クロチク(烏竹, 紫竹)
ㄹ대=실때	조릿대	ササ(笹)
ㄹ라지	강아지풀	エノコログサ
ㄹ래수기=쿠상낭	전나무	モミ
ㄹ래감낭	월애감(光州方言)	柿ノ變種
ㄹ스락쿨	원추리	クワンザウ
ㄹ스락쿨=멕문동	닭의비짜루	キジカクシ
근조리낭	싸리나무	ナツハギ(ヤマハギ)
실때=ㄹ대	조릿대	ササ(笹)

제주어	표준어	일어
꺾멀리=산멀리=중당멀리	머루	ヤマブドウ
나록=노록	벼(나락)	イネ
나츠미깡	하귤	夏橘
난독낭	좀머귀나무	コカラスザンセウ
난생이=난시(南部語)	냉이	ナヅナ
난쟁이(北部語)	냉이	ナヅナ
남=낭	나무	木
남밭초=당귀=감기판	가막사리	タウコギ
남소왕이	호랑가시나무 (묘아자가시나무)	ヒヒラギモドキ
남초	담배	タバコ
남=남, 낭	나무	木
너삼=고삼	도둑놈의지팽이	クララ
너출=넛출=꿀=줄=쥘	덩굴	蔓
넉페(北部語)	-(南部語-패)	インゲ(磯毛)
넛출=너출=꿀=쥘	덩굴	蔓
노가리(낭)	주목(朱木)	イチキ(アララギ)
노록=나록	벼(나락)	イネ
노리꿀=노리쿨	죽대	ミヤマナルコユリ (ヒメナルコユリ)
노리자리=소스랑쿨 =쇠스랑쿨=물팡쿨 =고요화=향유초	향유(香薷)	ナギナタカウジュ



제주어	표준어	일어
노리쿨=노리꿀	죽대	シヤマナルコユリ (ヒメナルコユリ)
녹디	녹두	ヤヘナリ(綠豆)
녹춘남	쪽동백	ハクウンボク
농낭=롱낭=우박	녹나무	クスノキ
누렁대죽=살래대죽	비수수의 1種	ホウキモロコシ
누룩낭	후박나무(厚朴)	タブノキ(イヌグス)
눈비애기쿨=암눈비애기쿨	익모초(益母草)	メバシキ(ヤクモサウ)
늦=돌옷	이끼	蘇苔
늦기낭=니끼남=굴목이 =굴목낭=굴목이=굴목낭	느티나무	ケヤキ
늑물=배치=당배치	배추	ハクサイ(白菜)
늑독낭=아귀남	개산초	フユザンセウ
늑뼈	무우	ダイコン(大根)
다간죽낭=복닥낭=복달낭	예덕나무(비당나무)	アカメガシハ
담쟁이	담쟁이덩굴	ツタ(ナツツタ)
당귀=감기판=남밭초	가막사리	タウコギ
당배치=비채=늑물	배추	ハクサイ(白菜)
땅꽃	채송화	マツバボタン
땅콩	낙화생, 호콩	ナンキンマメ
대산이=곶대산이 =곶대사니=곶대산이=곶다산이	마늘	ニンニク
대오리=대우리	귀리	カラスムギ
대정제완지	새포아풀	スズメノカタビラ

제주어	표준어	일어
대죽	수수類	キビ類, 總稱
대초	대추	ナツメ
때역=테역=퇴역=잔뒤역 잔디		シバ
댕우지낭=유지낭=댕유지 유자나무		クネンボ
떡정당=떡정동=고냉이풀 계요동		ヘクソカヅラ (ヤイトバナ)
던덕=득밭	솜양지꽃	ツチグリ
덧낭	덧나무	ニハトコ (タンナニハトコ)
도난나룩	돌벼	野生稻
도데쿨	등대풀	トウダイグサ
도육남	느릅나무	アキニレ
독고리낭=똥고리낭 =주레비낭=새비낭	짚레나무	ノイバラ
돌웃=늣	이끼	蘇苔
돔감낭	돌감나무	柿ノ野生種
돔박낭	동백나무	ツバキ
돔비	광저기	ハタササゲ
돛수에=창쿨	방가지똥	ノゲシ(ケシアザミ)
돛수에=돛치기쿨	매듭풀	ヤハズサウ
돛채비고장	산수국	サハアヂサイ
돛치기쿨=돛수에	매듭풀	ヤハズサウ
동부즈	애기원추리	キスゲ(ユフスゲ)
동지=쟁이	호박	カボチャ

제주어	표준어	일어
동지대죽=동기대죽	수수	モロコシ
똥꼬리낭=독고리낭 =새비낭=주래비낭	찔레나무	ノイバラ
두루에기	노랑하늘타리	キカラスウリ
뒤=새	띠(뿔기)	チガヤ(ツバナ)
드룻국화	쑥부장이, 산국(山菊) 기타	ヨメナ, アブラギク기타
드룻마농	산달래	ノビル
들굽낭	두릅나무	タラノキ
들베낭=산베낭=괭베낭	콩배나무	ヤマナシ
들뽕낭	산뽕나무	ノグワ(野桑)
등너출	등덩굴	藤蔓
드래낭	다래나수	サルナシ
독밭=던덕	칠양지꽃	ツチグリ
독쿨	여우구슬	コミカンサウ
동기대죽=동지대륙	수수	モロコシ
롱낭=농낭=우박	녹나무	クスノキ
마농=마늘	파류의총칭	葱類ノ總稱
만년초=예반초 =개반초=인반초	문주난	ハマオモト
만도라기=만도레기 =독고달	맨드라미	ケイトウ
머쿠실낭=먹쿠실 =물구실낭	멀구슬나무	センダン

제주어	표준어	일어
떡사오기	벗나무	ヤマザクラ
떡쿠실=머쿠실낭 =물구실낭	털구슬나무	センダン
떨리(南部語)	머루	ヤマブドウ類
떨위(北部語)	머루	ヤマブドウ類
멋낭	끈끈이나무	トリモチノキ
명꿀	털꿀	ムベ
메마	메꽃	ヒルガホ
메설낭	매화나무	ウメ
메역새	새초미역	小サイ(ワカメ)1種
맥문동=마스락쿨	닭의비짜루	キジカクシ
멘네=멘혜	목화(면화)	ワタ
멜쑤(南部語)	청가시나무(北部語-실순)	ヤマカシユウ
멧내기(南部語)	미나리(北部語-미네기)	セリ
멧순	밀나물	シホデ
멧계낭=벨내기	청미래덩굴	サルトリイバラ
모꽃	꿀풀	ウツボグサ
모밀	모밀	ソバ
모시쿨	모시풀, 저마	マラ(カラムシ), チョマ
모에제완지	민바랭이	アキメヒジハ
모인조=모힌조	조	アハ(稗粟)
목탄초	목단풀	ルリクサボタン
무란괘기낭	대팻집나무	アヲハダ
물룻	물룻	ツルボ

제주어	표준어	일어
물막작쿨	물봉선	ツリフネサウ
물쌔=물채=창폴	창포	ショウブ
물웃	①개구리밥(부평초)	ウキクサ
	②롬개구리밥	アヲウキクサ
물웨=웨	오이	キウリ
물채=물쌔=창폴	창포	ショウブ
물토란	가는잎버풀	ホソバオモダカ
물파란낭=물하랍낭	중대가리나무	シマタニワタリ
물폐채기	물질경이	ミヅオホバコ
물하랍낭=물파란낭	중대가리나무	シマタニワタリ
미깡낭	굴나무	ミカン
미나기=민내기	미나리	セリ
미네기(北部語)	미나리	セリ
(南部語-멧내기)		
민내기	미나리	セリ
밀순(北部語)	청가시나무	ヤマカシユウ
(南部語-멜쑤)		
밀꼭게=풀꼭게	덩굴땅파리	ツルセンナリ
덜고장=물코장	얇은뱅이꽃,	スマレ
=물싸움고장	오랑캐꽃, 제비꽃	
=물싸움고장=습쿨		
=아즌배기꽃=아진배기꽃		
덜구실낭=머쿠실	덜구슬나무	センダン
=머쿠실낭		

제주어	표준어	일어
말똥버섯	말똥버섯	馬糞蕈
말마늘	까마귀마늘	ショウキラン
말망	모자반	ホンダワラ
말마작쿨	쇠무릅(우슬)	キノコヅチ
말몽이	모자반	ホンダワラ
말싸움고장=물고장 =물코장=아진배기꽃 =아즌배기꽃	얹은방이꽃, 오랑캐꽃, 제비꽃	スマレ
말생게=술(南部語) (北部語-개생게)	소루쟁이	ギシギシ
말오름낭	말오줌때	ゴンズイ
말지장	개속새	オガルカヤ (スズメカルカヤ)
말추리쿨	마편초(馬鞭草)	クマツヅラ
말코장=물고장 =말싸움고장 =말싸움고장=숨쿨 =아진배기꽃=아즌배기꽃	얹은방이꽃, 오랑캐꽃, 제비꽃	スマレ
말광쿨=소스랑쿨 =쇠스랑쿨=고요화 =노리자리=향유초	향유(香薷)	ナガナタカウジュ
말폭계	애기땅파리	ヒメセンナリ
말푼채	범부채	ヒアフギ
뭍	모자반	ホンタワラ(小型食用)

제주어	표준어	일어
박다리꽃=갓다리꽃	합다리나무	ヤマビハ
박달낭	참꽃나무	ホンツツジ
박쿨=공초 =뽕치(안먹는뽕치)	곰취	オタカラコウ
반두어리=후박	후박나무	ホホノキ
반초(北部語)	파초	バヤウ
반치(南部語)	파초	バヤウ
반화=산마=살마 =가마=귀순가락	반하(끼무룻)	カラスビシャク(半夏)
방풍	갯기름나무	ボタンハウフウ
배치=당배치=느물	배추	ハクサイ(白菜)
백하비고장	나리꽃	ユリ
버두낭	버들나무	ヤナギ
버레낭	물참나무	ミズナラ
버섬=버습=버숫	버섯	キノコ(蕈)
벌레낭=볼레낭	보리수나무, 볼레나무	ナハシログミ
베경속(낭)	양버들, 포플라	ポプラ
베롱개=개베롱개=개삼동	까마종이(강태, 감뚜라지)	イヌホホヅキ
베염고사리=허궁고사리 =허금고사리=허웅고사리	밭풀고사리	コシダ
베염고장=소입	봉선화	ホウセンクワ
베염유리(쿨)	자주괴불주머니	ムラサキサケマン
베염탈=계염지탈	뱀딸기	ヘビイチゴ
베염폐기=베염푸기	비목나무	カナクギノギ

제주어	표준어	일어
배채기	별꽃	ハコベ
배채기=페채기	질경이 (길장구, 빼주장, 배합조개)	オホバコ
백문동	호라지쫄, 천문동	クサスギカヅラ
백일홍=저금타는낭	배롱나무	サルスベリ
백토란	백도라지	キケフノ白花種
벨내기=멩게낭	청미래덩굴	サルトリイバラ
보리콩	완두	エンドウ
보달낭=복달낭=다간죽낭	예덕나무(비당나무)	アカメガシハ
복송개낭	복사나무	桃木
복직개늬물	말나리	カサユリ
복쿨	깨풀	エノキグサ (アミガササウ)
본숙	풀솨나무	チチコグサ
본지낭=뽀지낭	노박덩굴(놉방구덩굴)	ツルウメモドキ
볼레낭=벌레낭	보리수나무, 볼레나무	グミ
보루	생치	チシャ
부름페기=구름페기	상산(常山)	コクサギ
복무화	무궁화	ムクゲ
복칠낭	붉나무(오배자)	ヌルデ(フシノキ)
빨리어신새삼	새삼	ネナシカヅラ
비낭대죽(南部語)	비수수	ホウキモロコシ
(北部語-뵈대죽)		
비늬	비름	ヒユ



제주어	표준어	일어
비초=사록쿨 =쉽싸리(南部語) =휩싸리(北部語)	땀싸리, 비싸리, 공쟁이	ハハキギ, ハウキグサ
빈네(쿨)(南部語) (北部語-쓰비네)	피막이풀	チドメグサ
빈데쿨	아욱메풀	アフヒゴケ
빋대죽(北部語) (南部語-비낭대죽)	비수수	ハウキモロコシ
뽕이마농=괘마농 복개기(北部語) 큰복개기=자두경	괘, 마늘=쪽괘 자드웁겐	ネギ ギードキッケン, カラスノエンドウ
조근복개기	해아리벻지	ヘアリベッチ
봇개기(南部語)	해아리벻지	ヘアリベッチ
사당낭=새당낭	생달나무	ヤブニクケイ
사당대죽	사탕수수	サタウキビ
사록쿨=쉽싸리 =비초(南部語) =휩싸리(北部語)	땀싸리, 비싸리, 공쟁이	ハハキギ, ハウキグサ
사오기=사옥낭	벗나무	サクラ
산뒤(山稻)	밭벼	陸稻
산마=살마=가뭇귀수까락 반하(끼무릇) =반화		カラスビシャク(半夏)
산멀리=중당멀리=갯멀리 머루		ヤマブダウ

제주어	표준어	일어
산물	광굴나무	ダイダイ
산베낭=들베낭=괭베낭	뜰배나무	山梨
산송=황송=황솔	소나무, 솔	赤松
산승	더덕	ツルニンジン
산유지남	조록나무	イスノキ
살귀	살구	アンズ
살래대죽=누렁대죽	비수수의 1種	ホウキモロコシ
살마=산마=반화 =가마귀수까락	반하(까무룻)	カラスビシャク(半夏)
삼수세기	한삼덕굴	カナムグラ
상(낭)	향나무	ジャクシン、イブキ
상거십	겨우사리	ヤドリギ
상고지	팽이사초	ミコシガヤ
상고지(北部語) =올리(南部語)	향부자	ハマスゲ
새=뒤	띠(뿔기)	チガヤ(ツバナ)
새당낭=사당낭	생달나무	ヤブニクケイ
새비낭=주레비낭 =독고리낭=똥고리낭	짚레나무	ノイバラ
새삼	마	ヤマノイモ
셋꿀	「출」중의 「새」와 「제한지」	秣中カヤトメヒシバ
생유	산들개	ヤマジソ

제주어	표준어	일어
생이연줄 =가마귀연줄(南部語) =고냉이풀, 까마귀외(北部語)	괭이밥	カタバミサウ
생이줄(南部語) =줄고사리(北部語)	실고사리	カニクサ(ツルシノブ)
생이콩	새콩	ヤブマメ
생이풀	—	ノササゲ
서리낭=서이낭=서으리 서승(南部語)	서-나무 민족도리풀(세신)	シデ ウスバサイシン (サイシン)
서신(北部語)	민족도리풀(세신)	ウスバサイシン (サイシン)
서으리=서리낭=서이낭	서-나무	シデ
세귀낭	소귀나무(속나무)	ヤマモモ
세우리(南部語) =쇠우리(北部語)	부추, 정구리	ニラ
쌌외기=쌌기	쌌기풀	イラクサ
생계	네가래	デンジサウ
생계=개솔	수영(승아, 시금초)	スイバ(スカンボ)
생지속	떡쭈	ハウコグサ(ハハコグサ)
소나쿨	배풍등(排風藤)	ヒヨドリジョウゴ
소낭=솔낭	해송(海松), 곰솔	黒松
소낭초기	송이	松茸

제주어	표준어	일어
소새꿀=소새쿨=왕소새 =가마귀지장	솔새	メガルカヤ(カルカヤ)
소스랑쿨=쇠스랑쿨 =뭇팡쿨=고요화 =노리자리=향유초	향유(香薷)	ナギナタカウジュ
소왓=송왓(南部語)	송악(北部語)-송낙	キヅタ
소왕이-쇠왕이	항가새, 엉경귀	アザミ
소유지	유자나무	ユズ(柚)
소입-베염고장	봉선화	ホウセンクワ
속	쭉, 풀솜나물	ヨモギ、チチコグサ
솔낭=소낭	해송(海松), 곰솔	黒松
솔피낭	솔비나무	サイシウイヌエンジュ
송낙(北部語)	송악	キヅタ
송왓=소왓(南部語)	송악	キヅタ
썰기=썰외기	썰기풀	イラクサ
쇠(北部語) =쿤지쿨(南部語)	사위질빵	ポタンヅル
쇠스랑쿨=소스랑쿨 =뭇팔쿨=고요화 =노리자리=향유초	향유(香薷)	ナギナタカウジュ
쇠왕이=소왕이	항가새, 엉경귀	アザミ
쇠우리(北部語) =세우리(南部語)	부추, 정구지	ニラ
썰뎀박낭	사람주나무	シラキ

제주어	표준어	일어
쇠비네(北部語) =빈네쿨(南部語)	피막이풀	チドメグサ
쇠비름	쇠비름	スベリビユ、スベリヒユ
쇠사오기	벗나무의 1種	櫻ノ1種(材心赤)
쉽싸리=사록쿨 =비초(南部語) =휩싸리(北部語)	땃싸리, 비싸리, 공쟁이	ハハキギ、ハウキグサ
쉽싸리풀	비수리	メドハギ
수리대-구렁대	구릿대	コエゾニウ, ヨロヒグサ
수리대-죽대	해장죽(海藏竹)	メダケ類
수승=구실	울무(薏苡)	ハトムギ
수왓낭=수왓낭	산유자나무	クストイゲ
숙대남	으루나무	杉
순풀=진풀	뽕리뱅이	オニタビラコ
술=물생계(南部語) =개생계(北部語)	참소리쟁이	ギシギシ
술조기남	나도밤나무	アハブキ
습쿨=물고장=물코장 =물싸움고장=물싸움고장 =아즌배기꽃=아진배기꽃	얇은방이꽃, 오랑캐꽃	スマレ
송년감=성년감	똥딴지	ククイモ
시금초	시금치	ホウレサウ
시러미	시로미	ガンコウラン

제주어	표준어	일어
시호	오이풀(수박풀)	ワレモカウ
식남=신남	식나무	シロダモ
신숙	쭉	ヨモギ
실마삭쿨	호자덩굴	ツルアリドウシ
썰거리낭(南部語)	아카시아	ニセアカシア
=아까시낭(北部語)		
싱녕감=순년감	뚱딴지	キクイモ
스가의외	수세미외	ヘチマ
솔노리=솔누리(南部語)	쌀보리	ハタカムギ
솔우리(北部語)	쫄보리	ハタカムギ
쫄대죽	쫄수수	麥ノ1種
슴	삼	人蔘
아까시낭(北部語)	아카시아	ニセアカシア
=썰거리낭(南部語)		
아즌배기꽃=아진배기꽃	얇은방이꽃, 오랑캐꽃	スマレ
=물고장=물코장=습쿨		
=물싸움고장=물쓰움고장		
아퀴남=눈독낭	개산초	フェザンセウ
안자리쿨	갯취	ハマタバコ
암눈비아기쿨	암눈비아,	メハジキ(ヤクモサウ)
=눈비아기쿨	익모초(益母草)	
양예	양하(囊荷)	メウガ
애편고장(北部語)	양귀비(楊貴妃)	ケシ
애편고장(南部語)	양귀비(楊貴妃)	ケシ

제주어	표준어	일어
어욱(北部語)	억새	ススキ
어위기=어웁(南部語)	억새	ススキ
얼루래비(낭)	덜꿩나무	コバノガマヅミ
엄낭	황칠나무	テウセンカクレミノ
에영지낭	앵도	ユスラウメ
=에영즈낭(南部語)		
=외영뒤낭(北部語)		
연박폭초	솜방망이	サハオグルマ (オカオグルマ)
엿귀	여뀌	タデ
에반초=개반초=인반초	문주화	ハマオモト
=만년초		
오창영	귀박쥐나물	ミミカウモリ (カハモリサウ)
옴밤제완지=옴밤제환지	조개풀	コブナグサ
옷칠낭=칠낭	옷나무	ウルシ
왕소새=소새쿨=소새꿀	솔새	メガルカヤ
=가마귀지장		(カルカヤ)
외영뒤낭(北部語)	앵도	ユスラウメ
=에영지낭, 에영즈낭(南部語)		
우박=룽낭=농낭	녹나무	クスノキ
우방(지)	우왕	ゴバウ
운동고장=운동	인동뎡굴(금은화)	スヰカツラ
웨=물웨	오이	キウリ

제주어	표준어	일어
유	들깨	エゴマ
유동목(油桐木)	유동	アブラギリ
유름쫄=유어를쫄 =줄갱이(쫄)=조령	으름덩굴	アケビ(木通)
유지낭=댕유지=댕우지낭	유자나무	クネンボ(橘)
윤노리=윤유리	민윤노리나무	ウシコロシ(カマツカ)
은동=은동고장	인동덩굴(금은화)	スギカツラ
인반초=예반초=개반초 =만년초	문주화	ハマオモト
일본반치(南部語) =파초(北部語)	칸나	ダンドク
울리(南部語) =상고지(北部語)	향부자	ハマスゲ
자구나무	자귀나무	ネムノキ
자굴	차풀	カハラケツメイ
잔뒤역=퇴역=테역=때역	잔디	芝
잠녀콩	작두콩	ナタマメ
쟁이=동지	호박	カボチャ
저금타는낭=백일홍	배롱나무	サルスベリ
저슬사리	참으아리(음등덩굴)	センニンサウ
진기꽃	진달래	ゲンカイツツジ
절마리쿨	개밀	カモジグサ
접시꽃=촉교화 =가지쟁이고장	촉규화	タチアヲヒ



제주어	표준어	일어
정갈리	정금나무(조가리나무)	ナツハゼ
정당=고냉이정당=춤동 =고냉이정동=정동	땡땡이덩굴	アヲツヅラフチ
젓쿨=고릅쿨	땅빈대	ニシキサウ
제낭	①노린재나무 ②자작나무	サハフタギ シラカンバ
제사오기	벗나무의 1種	櫻ノ1種(材心白)
제완지=제환지=제한지	바랭이類	メヒシバ類(メヒジハ)
제쿨	명아주(능쟁이)	アカザ
제한지=제환지=제완지	바랭이類	メヒシバ類(メヒジハ)
조령=줄갱이(쭈)	으름덩굴	アケビ(木通)
=유어름쭈=유름쭈		
조폴레(北部語)	보리수나무	アキグミ
=폴블레(南部語)		
족끼남	화살나무 (훗입나무, 참빗나무)	ニシキギ
족대=수리대	해장죽(海藏竹)	メダケ
줄갱이(쭈)=조령	으름덩굴	アケビ(木通)
=우어름쭈=유름쭈		
중낭	매죽나무	エゴノキ
죄피낭=춤제피	초피나무(산초나무)	サンセウ
주레쭈	매밭툭꽃	オホヤマオダマキ (テウセンヤマオダマキ)

제주어	표준어	일어
주례비낭=독고리낭 =똥꼬리낭=새비낭	찜레나무	ノイバラ
주리쿨	방울새풀	ヒメコバンサウ
주리풀	개속단(송장풀)	キセワタ
줄=꼴=꿀=너출=너출	덩굴	蔓
줄고사리(北部語) =생이줄(南部語)	실고사리	カニクサ(ツルシノブ)
줄돔비=춤비	동부(광정이)	ササゲ
줄상낭	섬향나무	ハヒビャクシン(ソナレ)
줄창화	죽도화(황매화)	ヤマブキ
꿀=줄=꿀=너출=너출	덩굴	蔓
중당멀리=산멀리 =갯멀리	머루	ヤマブドウ
지슬(南部語)	감자	馬鈴薯
지실(北部語)	감자	馬鈴薯
지장	기장	キビ
진	왜모시풀	ヤブマヲ
진쿨	별꽃類	ハコベ類
진풀=순풀	뽕리뱅이	オニタヒラコ
즈밤낭	모밀잣밤나무	シヒ(椎)
창꿀	삼주(창출, 백출)	ヲケヲ
창쿨=돛수에	방강지똥	ノゲシ(ケシアザミ)
창풀=물쌔=채물	장포	シヨウブ
천적	물마늘굴	ミヅヒキヂ

제주어	표준어	일어
청조쿨	김의털아재비	トボシガラ
청쿨	개망초	ヒメジョオン
쳐남상	천남성	テンナンセウ
천상쿨	망초	ヒメムカシヨモギ
초기	버섯	キノコ、シヒタケ
초때역	Sporobolus indicus	ネヅミノヲ類
축교화=가지깡이고장 =집시꽃	축규화	タチアヲヒ
출	꿀	秣
취쿨	갯길경이	ハマサヂ
치비쑥	제비쑥	ヲトコヨモギ
치지낭	치자	クチナシ
칙=꼭	츄	クズ
칠낭=옷칠낭	옷나무類	ウルシ類
칠비	부들	コガマ
츠낭	상수리나무 (참나무, 도토리나무)	クヌギ
춘나록	찰벼	糯稻
춤비=줄돔비	동부(광정이)	ササゲ
춤왕이	엉경귀	カラノアザミ
춤외	참외	マクワウリ
춤정동=정동=고냉이정동 =고냉이정당=정당	땡땡이덩굴	アヲツヅラフヂ
춤제완지	바랭이	メヒシバ(メヒジハ)

제주어	표준어	일어
츨제피=죄피낭	초피나무(산초나무)	サンセウ
츨틀	산딸나무의 1變種	ヤマボウシノ1變種
츨풀=풀	팥	小豆
코콧	조롱박	ヘウタン
콧대산이=콧대사니 =콧대산이=대산이	마늘	ニンニク
콩생에쿨=풀공생에쿨	애기향유	ホソバナギナタカウジュ
콩탈	검은딸기	クロイチゴ
콧항	귀오쭈풀(길초)	カノコサウ (ハルヲミナヘシ)
쿠상낭=ㄴ래수기	진나무	モミ
쿤지쿨(南部語) =쇠(北部語)	사위질빵	ボタンヅル
쿨(接尾語)	풀	草
콧가시낭=콧낭=꺠가시낭 꾸지뽕나무		ハリグワ
콧(쭈)=쿨락(쭈)	박	ユウガホ
탈	딸기	イチゴ
탕우지(南部語) =개탕쉬낭(北部語)	탕자나무	カラタチ
테역=퇴역=잔뒤역=때역	잔디	芝
토란	도라지	キケフ
퇴역=테역=잔뒤역=때역	잔디	芝
틀낭	산딸나무	ヤマボウシ
파초(北部語)	칸나	ダンドク

제주어	표준어	일어
=일본반치(南部語)		
팔각(낭)	붓순	シキミ
패(南部語)	—	磯毛(海藻)
=넘패(北部語)		
패마농=뽕이마농	과	ネギ
패채기=베채기	질경이 (길장구, 빼부장, 배합조개)	オホバコ
포두	포도	ブドウ(葡萄)
풍낭	팽나무(달주나무)	エノキ
푸숨줄	남오미자	サネカツラ (ビナンカツラ)
폭계(南部語)	땅파리 =푼철귀(北部語)	センナリホホヅキ
푼채순(이)	부처손	イハヒバ
푼철귀(北部語)	땅파리 =폭계(南部語)	センナリホホヅキ
풀공생에쿨=콩생에쿨	에기향유	ホソバナギナタカウジェ
피만지	피마자, 아주까리	ヒマシ、タウゴマ
피파낭	비파나무	ビワ(枇杷)
피풍낭	사철나무	マサキ
프래	파래	アヲサ
풀=츄풀	팥	小豆
풀감상	고염나무	マメガキ

제주어	표준어	일어
폴블레(南部語)	보리수나무 =조폼레(北部語)	アキグミ
폴꼭게=밀꼭게	Physalis repens	ホホヅキノ1種
하늘에기	하늘타리	カラスウリ
하늘꼭게(南部語)	파리	ホホヅキ
하늘푼철귀(北部語)	파리	ホホヅキ
하리비고장=광난이쿨 =고냉이쿨	할미꽃	オキナグサ
한탈낭	산딸기나무	クマイチゴ
한광기	함바기	ハスノハカヅラ
함박쿨	병풀	ツボクサ
함박꼭게	땅파리의 1種	ヒメセンナリ?
함순	개웃나무	ヤマウルシ
함정	땃잎등굴레	ナルコユリ
해래비꽃	딱지꽃	カハラサイコ
향유초=소스랑쿨 =쇠스랑쿨=물팡쿨 =고요화=노리자리	향유(香薷)	ナギナタカウジュ
허궁고사리=허금고사리 =허웅고사리=베염고사리	밭각고사리	コシダ
행계(荊芥)	정가	アリタサウ
화양목	회양목	テウセンヒメツゲ (黃楊木)

제주어	표준어	일어
황백비(南部語)	황경피나무	アムールキハダ
황백피(北部語)	황경피나무	アムールキハダ
황솔=황송=산송	소나무, 솔	赤松
황칠낭	산검양옻나무	ヤマハゼ
회양	회향(茴香)	ウヰキヤウ
휩싸리(北部語)	땀싸리,	ハハキギ,
=휩싸리, 사록쿨	비싸리, 공쟁이	ハウキグサ
=미초(南部語)		
후박=반두어리	후박나무	ホホノキ
흐린조=히린조	차조	糯粟
	(조는 「모인조」, 「모힌조」)	
흑축=가세축	생강나무,	ダンカウバイ
	개동백나무, 아구사리	
히린조=흐린조	차조	糯粟
	(조는 「모인조」, 「모힌조」)	

## 濟州島의 動物名

전편 식물에 준해서 본 동물편을 편하였는데 이 동물편은 식물편에 비해서 손색이 있다.

편중 > 및 < 표는 강(強), 대(大)를 의미한다.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가개비(南部語) = 굴개비(北部語)	청개구리	カエル
가라말	검은말	黒馬
가마귀	까마귀	烏
가문돔=거문돔=흑돔	검은도미	黒鯛
가문유마	흑갈색마	黒褐色馬
가우리=개우리	지렁이	ミミズ
간비역=강벼리=강베룩 =고노리(南部語)	올챙이 =멘주기, 멘주애기(北部語)	オタマジャクシ
간전이>썰간전이	이마에 흰줄이	額カラ鼻マテ
	코까지 있는 말	條ノアル馬
간치	까치	カササギ
갈뛰다리	뒷다리가 빼어진	後脚脱臼セ
	病身소 흑은 病身말	ル片端ノ牛馬
깃둑	검은도미와 근사(近似)한 도미	黒鯛近似種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강배룩=강벼리=간비역	올챙이 =고노리(南部語)	オタマジヤクシ
=멘주기, 멘주애기(北部語)		
강생이	개새끼, 강아지	小犬
개오리=홍에	가오리, 홍어(魷魚)	エイ
갯득	갯닭	優良種ノ鶏
거드레기(北部語)	건달게	ヤドカリ
=게드레기(南部語)		
거말(北部語)	거머리	ヒル
거멸(南部語)	거머리	ヒル
거문돔=가문돔=흑돔	검은도미	黒鯛
검문쇠	새까만소	眞黒色牛
거문신쇠	등에 누런털이	黒牛テ脊部 = 黄色ガアル牛
	있는 검은소	黄色 若干 牛
검문어럭쇠	흑백얼룩소	黒白斑牛
거문월라	흑백반마	黒白斑馬
거수애=게우리	거위	鴈蟲
거을몰	발목이흰말 (濟州島最劣等馬)	各足上部ガ白色ノ馬
검노린쇠	검은 빛 도는 황소	帶黒黃牛
검노린어럭쇠	帶黑黃과 白의 斑牛	帶黒黃ト白トノ斑牛
거드레기(南部語)	건달게	ヤドカリ

제주어	표준어	일어
=거드레기(北部語)		
개염지	개미	アリ
게우(南部語)	거위	ガテウ
	=게위(北部語)	
게우리=가우리	지렁이	ミミズ
게우리=거수에	거위	カイチュウ
게위(北部語)	거위	鶩鳥
=게우(南部語)		
갱이(南部語)	게	蟹
=강이(北部語)		
고냉이	고양이	猫
고냥독생이=고망독새	굴뚝새	ミンサザイ
고노리(南部語)	곤두벌레	ボウフラ
=장쿨내미(北部語)		
고노리=강베룩=강베리	올챙이	オタマジヤクシ
=간이역(南部語)		
=멘주기, 멘주애기(北部語)		
고라물	회색말	灰色馬
고망독새=고냥독생이	굴뚝새	ミンサザイ
고부랭이	곰배말	脊ノ凸出セル片端馬
고생이(北部語)	실용치	イトバラ
=골생이, 골맹이(南部語)		
고삭짚=고시약재	애매미	ツクツクボウシ

제주어	표준어	일어
=고삿젤=극삭재열		
=고치젤=풀재열		
고치밥주리	붉은잠자리	アカトンボ
고치적다	빨간말	眞赤色馬
고치젤=고삭젤	애미미	ツクツクボウシ
=고시약재=그삿젤		
=극삭재열=풀재열		
골멩이=골생이(南部語)	실용치	イトバラ
=고생이(北部語)		
곰밥주리=밥주리	잠자리	トンボ
=밤버리=뿔자리=물새		
공쟁이=공중이	귀뚜라미, 민충이	コホロギ, キリギリス
구렁적다	붉은말 (고치적다와 초적다의 中間)	赤色馬
구문쟁이<다곰바리	다곰바리	アラ<ホンアラ
구실득	구슬닭	斑鶏
구채기=구쟁기	소라	サザエ
꿩비애기	꺼병이, 주리끼	鳩ノ子
귀막쉬	병추	鳴ケヌ蟬
귀옥쟁이	귀느래	垂耳馬
그레기(南部語)	기러기	ガン
=지레기(北部語)		
그삿젤=극삭재열	애매미	ツクツクボウン

제주어	표준어	일어
=고삭젤=고시약재		
=고치젤=풀재열		
금승마	한살먹은 망아지	一歲馬
금승송애기	한살먹은 송아지	一歲牛
깁이(北部語)	개	カニ
=깁이(南部語)		
ㄹ랑짱이	새양귀, 생쥐	ハツカネズミ
ㄹ매기=보말	「춤ㄹ매기」와 「수두리」	螺ノ類
꺅다귀	각다귀	蚊ノ一種
주주애기=주주와기	사마귀(범아자비)	カマキリ
=소곰바치		
꺅개비(北部語)	청개구리	カエル
=가개비(南部語)		
꺅매=꺅매기	갈매기	カモメ
나릅부렁이	네살먹은 수소	四歲ノ牡牛
나릅쇠	네살먹은 소	四歲牛
나부복쟁이	斑蝶鰻	河豚ノ一種
남도래기	딱따구리	キツツキ
남쇠(南部語)	바구미	コクゾウ
=똥보리(北部語)		
노리	노루	ノロシカ(獐)
노린개	누렁개	黃犬

제주어	표준어	일어
노린쇠	머리와 꼬리에 검은털 있는 황소	頭尾部ニ黒毛くノ ガ若干アル黄牛
노린어럭쇠	황백어럭소	黃白斑牛
노린월라	황백반마	黃白斑馬
뇌린쇠=황쇠	황우	黄牛
누네누니누니누니	하루살이	カゲロフ
눈굴이몰	눈이 백태깁 말	白ソコイノ馬
늑=니	이	シラミ
다간송애기	두살먹은 송아지	二歳牛
다금바리>구무쟁이	다금바리	ホンアラ>アラ
다습부렁이	다섯살먹은 수소	五歳ノ牝牛
다습쇠	다섯살먹은 소	五歳牛
땅강생이	밭밭이	チン(狎)
대엽(조갱이)	대합(大蛤)	ハマグリ
떠렁쇠	장수풍뎅이	カブトムシ
덧매	큰매	オホタカ
도랭이	상어의 一種	鮫類ノ1種(小型)
도랭이=도롱이	굼병이	ジムシ(地虫)
도새기=돋	돼지	ブタ
돋거미	호랑거미	コガネグモ
돋=동치	도미	タイ
돋박생이=소낭생이	동박새	メジロ
돛보리(北部語)	바구미	コクゾウ

제주어	표준어	일어
=남쇠(南部語)		
돛줄래	울목이	ヤマカガシ
동치=돔	도미	タイ
똥벼랭이	똥구더기	糞ノ蛆
똥소래기=소래기(北部語)	솔개	トビ
똥소로기=소로기(南部語)	솔개	トビ
똥소로기=똥수래기	솔개	トビ
=수래기		
두림=뚜림	두루미	ツル
두메기=두미애기	풍덩이	コカネムシ
=붕덩이=뚝미애기(北部語)		
두테비	두꺼비	ガマ
드근돔	『황돔』에 近似한 도미	眞鯛近似種
득다구리=독다귀	도마뱀	トカゲ
드라미=드람지	박쥐	コウモリ
득	닭	ニハトリ
득다귀(北部語), 독다귀	도마뱀	トカゲ
=장쿨내비(南部語)		
든물복쟁이	淡水鰻의 1種	河豚ノ1種
돌뱅이, 돌팽이	달팽이	カタツムリ
락태	약대	ラクダ
만축=말축	메뚜기	バッタ
맨홍이	고둥	ホラガヒ

제주어	표준어	일어
먹가라	새까만말	眞黑色馬
먹보말=춤보말=춤ㄴ매기	바다우렁이	ニシ(螺)
멘백이=태상백이	별박이, 적로마(駒廬馬)	額ニ白斑アル牛馬
멘주기=메주애기(北部語) =강베룩, 강벼리(南部語) =간비역, 고노리(南部語)	올챙이	オタマジャクシ
멘태, 멩태	명태, 북어	明太魚
멜	멸치	イワシ(鯖魚)
멜위=진쉬(北部語) =멸늪, 준시(南部語)	멸구	ウンカ、フジンシ
멩가구리, 멩마구리 =멩꽂이	멩꽂이	メンコガエル
멸늪=준시(南部語) =멜위, 진쉬(北部語)	멸구	ウンカ、フジンシ
두태비, 말축굴개비	두꺼비	ヒキガエル
모살조개	조개	シジミ
모스고기약생이 =모시고기약생이	피꼬리	ウグヒス
무낭=무이낭	흑산호	クロサンゴ
문개(北部語), 무꾸럭, =물꾸럭(南部語), 매킨	낙지, 문어	タコ
문다돌이	우렁이의 1種	螺ノ1種
물꾸럭(南部語)	문어	タコ

제주어	표준어	일어
=문개(北部語)		
물새=밥주리=곰밥주리	잠자리	トンボ
=밤버리=꽃자리		
물쇠	물소	水牛
물이실	해파리	クラゲ
물떼기	살모사, 복사(蝮蛇), 毒蛇	マムシ
물하라방=물해래비	게아재비(물범아자비)	ミズカマキリ
미=해슴	해삼(海參)	ナマコ(海鼠)
미꼬라지	미꾸라지	ドゼウ
밀복쟁이	복어의 1種	河豚ノ1種
말	말	馬
말개염지(北部語)	말개미	大蟻
말생이=몽생이=물생이	망아지	駒
말개염지(南部語)	말개미	大蟻
몽생이=몽아지=물생이	망아지	駒
바당생이	바다새	海鳥
밤버리=밥주리	잠자리	トンボ
=곰밥주리=꽃자리		
=물새=초록=왕눈		
밤주리생이=밥주리(생이)	참새	スズメ
=줍생이=줍새=생이		
밥게	갯강구	フナムシ



제주어	표준어	일어
밭개(南部語) =소곰바치(北部語)	노래기	ヤステ
밥주리=곰밥주리 =밤버리=꽃자리=물새	잠자리	トンボ
밥주리(생이)=밤주리생이 =줍생이=줍새=생이	참새	スズメ
백돈	흰돼지	白豚
버렁이=베렁이	벌레	虫
베기=베이기	나분지	ヒラス(ヒラマサ)
베렁이=취베렁이=티	가시, 구더기	ウジ(蛆)
베룩	벼룩	ノミ
베염	뱀	ヘビ
베이기=베기	나분지	ヒラス(ヒラマサ)
백개	센개	白犬
백돌=백마	백마, 센말	白馬
벨근쟁이=빨긴쟁이	붉은도미의 새끼	赤鯛ノ子
병신돌	병신말	片端馬
병신쇠	병신소	片端牛
벽마=백돌	백마, 센말	白馬
보진치	조기	グチ(石首魚)
보말=ㄹ매기	「참가매기」와 「수두리」	螺ノ類
복시다리	허리 부러진 소 혹은 말	腰椎ガ傷ン牛馬
복쟁이	복	フグ(河豚)

제주어	표준어	일어
뽕남이즈(南部語)	뽕자지	桑ノ鐵砲虫
뽕낭갓(北部語)	뽕자지	桑ノ鐵砲虫
부구리	진드기 (丸型, 扁型은 「진독」)	ダニ
부랭이	수소	牡牛
부사리	불알까지않은 늙은 소	去勢セザル老牡牛
부인유마	황갈색마	黃褐色馬
북마리	—	アカウオ(赤魚)
불근개염지	불개미	赤蟻
분환디=불한지=불환디	만디	ホタル
붕댕이=두메기=두미애기	풍댕이	コガネムシ
붕에=장이	뱀장어, 장어(長魚)	ウナギ
비근다리=빅게(南部語) =픽게(南部語)	팽이상어	ネコサメ
비들귀	비들기	ハト
비아기=빙애기	병아리	ヒヨコ
빙애기=비아기	병아리	ヒヨコ
벼들락=벼들래기	괴도라치	ダイナンギンボ
벌락	뿔락어	メバル
사농개	사냥개	獵犬
사릅송애기	세살먹은 송아지	三歳牛
사상벌(南部語) =사장벌(北部語)	쌍살벌	アシナガバチ

제주어	표준어	일어
사수매	네살먹은 말	四歳馬
사위	새우	エビ
사장벌(北部語) =사상벌(南部語)	쌍사벌	アシナガバチ
산고냉이	산고양이	山猫
산돌	산돼지	キノシシ
산전발락(南部語) =심방말축(北部語)	방아깨비	シヨウリヨウバッタ
산툼	산돼지	キノシシ
산등이	곰배말	脊ノ凹凸セル片端馬
삼수매	세살먹은 말	三歳馬
상어	상어	サメ
새송애기	부록송아지	馴レヌ小牛
새위	새우	エビ
새위등	등이구부러진소	脊ガ蝦ノヤウ ニ曲ッタ牛
새잡이	새매	スズメダカ
생성	붉은도미	赤鯛
생이	새	鳥
생이=밥주리(생이) =밥주리생이=줍생이=춤새	참새	スズメ
서미역	진디 (진돗과 같고 小型이며 발이 약간 긴 것)	ダニノ1種

제주어	표준어	일어
생성(北部語) =오토미, 솔나리(南部語)	오도미	アマダヒ
소곰바치(北部語) =밥게(南部語)	노래기	ヤステ
소곰바치=주주와기 =주주애기	사마귀(범아자비)	カマキリ
소낭베렁이=솔충=솔충 =버렁이	송충(松蟲)	マツケムシ
소낭생이=돔박생이	동박새	メジロ
소래기=똥소래나(北部語)	솔개	トビ
소로기=똥소로기(南部語)	솔개	トビ
손치(北部語) =우력(南部語)	아구	アンコウ
솔나리=오토미(南部語) =생성(北部語)	오도미	アマダヒ
솔충(버렁이)=소낭베렁이	송충(松蟲)	マツケムシ
송백충	촌백충(寸白蟲)	ジョウチュウ
송애기=송아치=쇠아지 쇠	송아지 ①소, ②검은 풍덩이	小牛(犢) ウシ、クロコガネ
쇠아지=송아치=송애기	송아지	小牛(犢)
수두리	소라의 1種	螺ノ1種
수래기=똥수래기 =똥소리기	솔개	トビ

제주어	표준어	일어
수퓌=장뚝	수탉(암탉-암퓌)	雄鶏
순작=순장	메추라기	ウヅラ
순돔	숫돼지	雄豚
술레미	가자미	カレヒ、ヒラメ
셋베랭이=베랭이=티	가시, 구더기	ウジ(蛆)
숙돔=식돔	흑황혼색돼지	黒黄混色豚
숙쇠=식쇠	참소	黒黄混色牛
식	삷	オホヤマネコ
식돔=숙돔	흑황혼색돼지	黒黄混色豚
식쇠=숙쇠	참소	黒黄混色牛
썰간전이<간전이	이마에 가는 흰줄이	額ニアル白
	있는 말	條ノ細イ馬
심돔	흰도미	淡色ノ鯛
심방나비	호랑나비	アゲハテフ
심방말축(北部語) =산전발락(南部語)	방아깨비	ショウリョウバッタ
싯뚝	씨닭	種鶏
아홉쇠	아홉살먹은 소	九勢牛
암퓌	암탉(수탉-수퓌, 장뚝)	雌鶏
어럭개	얼룩개	斑犬
어럭돔	얼룩돼지	斑豚
어럭쇠=어랭이	얼룩소	斑牛
어랭이	용치	ペラ

제주어	표준어	일어
여닭쇠	여덟살먹은 소	八歳牛
여슴부랭이	여섯살먹은 수소	六歳牡牛
여슴쇠	여섯살먹은 소	六歳牛
여히	여우	キツネ
앵게	연계(連鷄)	若鷄
오로=지달이(地躡)	너구리, 오소리	アナグマ
오본자기	전복의 작은 종류	貝類ノ1種
오징에	오징어	イカ
올랭이=올리	오리	カモ
올밤=	올빼미, 부엉이	フクロウ、ミミヅク
웃버순들뱅이(南部語)	민달팽이	ナメクヂ
=집어신들뱅이(北部語)		
웃도미=술나리(南部語)	오도미	アマダヒ
=생성(南部語)		
왕재열=왕젤	큰매미	大蟬
외계=외계득	오계(烏鷄)	鷄ノ1品種
외부구리	황색부구리	ダニノ1種
우럭	우럭어	カサゴ
우럭(南部語)	아구	アンコウ
=손치(北部語)		
우매=웅매	숫말, 웅마	雄馬
(자마-즈매)		
원생이=젓내비	젓나비	サル

제주어	표준어	일어
월라몰=올아몰	위락말	斑馬
유마	갈색마	褐色馬
은에=인어	은어(銀魚)	アユ
응취=장꿩	숫꿩, 장끼	雄鳩
이수매	두살먹은 말	二歲馬
일곱부사리	일곱살먹은 불까지 않은 소	去勢セザル七歲牛
일곱쇠	일곱살먹은 소	七歲牛
올마몰=월마몰	위락말	斑馬
자리=재=젤=재리 =재엘=재열	매미	セミ
자취=자치=жат채	자벌레	シヤクトリムシ
젓=즈	자지(뽕자지에서 由來)	鐵砲虫
жат채=자취=자치	자벌레	シヤクトリムシ
장꿩=응취	숫꿩, 장끼	雄鳩
장득=수득	수탉(암탉-암득)	雄鳩
장이=붕에	뱅장어, 장어(長魚)	ウナギ
장쿨내비=장쿨내비 =장쿨애비(南部語) =득다귀(北部語)	도마뱀	トカゲ
재=젤=재리=자리 =재엘=재열	매미	セミ
자리	차리	カジキリ(スズメダヒ)

제주어	표준어	일어
저립	삼치	サハラ
적=적제비	두더지	モグラ
적다물	적다마(赤多馬), 걸다마	赤色馬
적제비=적	두더지	モグラ
접진거	앞다리 빼어진 病身牛	前脚脱臼セル
	혹은 病身馬	片端牛ノ馬
제노린쇠	담황우	淡黄色牛
제노린어럭쇠	淡黃과 白의 斑牛	淡黄ト白トノ斑牛
제마	준마	駿馬
제비생이=제비세	제비	ツバメ
젤=재=재리=자리	매미	モミ
=재알=재열		
조각이=조개	자개있는 동물,	貝類, 鮑, 貝殼
=조개기(南部語)	전복, 조가비	
조갱이(北部語)	자개있는 동물,	貝類, 鮑, 貝殼
	전복, 조가비	
조우럭(南部語)	황석반어(黃石班魚)	クヂメ
=졸락(北部語)		
족바리	蹠行의 病身牛馬	蹠行スル片端ノ牛馬
족제비	족저비	イタチ
줍생이=밥주리(생이)	참새	スズメ
=밥주리생리=줍새=생이		
주냉이=지냉이	지네	ムカデ



제주어	표준어	일어
주얼	등에	アブ
주주머리새=하늘생이	종달새	ヒバリ
준시=멸취(南部語) =진취, 멸위(北部語)	멸구	ウンカ、フジンシ
중성기	악대소	去勢牛
중승	짐승	獸
쨩이(南部語) =쨩이(北部語)	쥐	ネズミ
쥐메누리(南部語) =쨩이메누리(北部語)	쥐며누리	ワラジムシ
쨩이(北部語) =쨩이(南部語)	쥐	ネズミ
쨩이메누리(北部語) =쥐메누리(南部語)	쥐며누리	ワラジムシ
지냉이=주냉이	지네	ムカデ
지달(地獐)=오로	너구리	アナグマ
지네기(北部語) =그레기(南部語)	기르기	ガン
지시랭이(北部語)	둘암컷, 들치	子ノ産メヌ牡動物
지지랭이(南部語)	둘암컷, 들치	子ノ産メヌ牡動物
진독=진독	진드기 (扁型, 丸型은 「부구리」)	ダニ
진취=멸위(北部語)	멸구	ウンカ、フジンシ

제주어	표준어	일어
=멀뉜, 준시(南部語)		
집어신들뱅이(北部語)	미달팽이	ナメクヂ
=옷버승들뱅이(南部語)		
즈=갓	자지(뽕자지에서 由來) 鐵砲虫	
즈매	암말, 자마(웅마-웅매) 牡馬	
줍재기	집개벌레	ハサミムシ
줏내비=원생이	젓나비	サル
줏치	까투리	雌鳩
책감복쟁이	冊櫃모양의 복어	河豚ノ1種
청벌	꿀벌	ミツバチ
초적다	담적새말이고 「모시갈기」와 「모시총」이 生함, 공공말	淡赤色馬
총아락쇠	총알락소	尾白色牛
추가라	달갈색긴 검은말	茶褐色ヲ帶ビタ黑色馬
춤매기=춤보말 =먹보말	바다우렁이	ニシ(螺)
춤매	매	タカ
춤보말=먹보말 =춤매기	바다우렁이	ニシ(螺)
춤새=줍생이	참새	スズメ
=밥주리(생이)=밥주리생이 =생이		
코간전말	코줄이흰 말	鼻條ガ白イ馬

제주어	표준어	일어
쇠끼리(南部語)	코끼리	ゾウ(象)
쇠끼리(北部語)	코끼리	ゾウ(象)
탕상백이=별박이	별박이, 적로마(駒廬馬)	額ニ白斑ノアル牛馬
토끼=퇴끼(北部語)	토끼	ウサギ
퇴끼=(南部語)	토끼	ウサギ
티=베랭이=숫베랭이	가시, 구더기	ウジ(蛆)
툇잘래기	前髻없는 병신 소	前髻ガナカ片端牛
픽계(南部語)	팽이상어	ネコサメ
=빅계, 비근다리(北部語)		
파리	파리	ハエ(蠅)
팟자리=밥주리	잠자리	トンボ
=곰밥주리=밤버리=물새		
폴재열=고삭젤	애매미	シクシクボウシ
=고시약재=고셋젤		
=극삭재열=고치젤		
하기새(南部語)	학(北部語-할기새)	シル(鶴)
하늘강생이	땅강아지, 하늘밥도둑, 도루래	ケラ
하늘생이=주주머리새	종달새	ヒバリ
하동이	곰배말, 곰배소	脊ノ凹入セル 片端ノ牛馬
하막	하마(蝦蟆), 비단개구리	アカハラカエル

제주어	표준어	일어
할기새(北部語) =하기새(南部語)	학	ツル(鶴)
해슴=미	해삼(海蔘)	ナマコ(海鼠)
호달매(胡韃馬)	큰말(濟州馬에 對한 말)	改良馬
홍애=개오리	홍어(魷魚), 가오리	エヒ
황개	누렁개	黃犬
황돔	붉은도미	マダヒ(眞鯛)
황쇠=노린쇠	황우	黃牛
흑돔=검문돔=가문돔	검은도미	クロダヒ(黑鯛)
흰밥두리	흰잠자리	白蜻蛉(赤トンボニ對シテ)

이상을 보면 제주도에는 우마에 대한 명칭이 많고 섬이니 어류의 명칭이 많음을 알 수가 있겠다.

## 農業關係의 濟州語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가래비참외	개구리참외	成歡眞瓜
가달씩	자갈	馬啣
가름=믄을=믄술=믄실	마을	村落, 部落
가름팔	동리안의 밭	部落内ノ畑
가맹이	섬, 가마니	吠
가맹이터기	가마닛터기	破吠
가슬드린다	땅을놀린다	土地ヲ休マセル
가슬왓	김은그루 (흰그루-번흔밭)	昨秋休耕地
가시덤벌	가시덤불	茨ノ叢
가원	과원	果樹園
가쟁이	가지	枝
가지(接尾語)	대(約 다섯 대 以下) 에는 「쿨」을 씀)	本(草木ノ本數)
각단	새의 짧은 것	カヤ(萱)ノ短イモノ
각매기(조, 보리의)	고갱이, 빈이삭	果軸, 穗穀
각물=각재기=각지	꼬투리	莢
간비역=감비역	감보기	黑穗
간잘귀	개똥참외	路傍ニナツタ 食用ニナラヌ眞瓜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갈래죽	삽(插)	シヨベル
갈래줄	가래줄	シヨベルニ附イタ紐
갈벼름	서풍	西風
감(接尾語)	같이	耕スコト
감비역=간이역	깜보기	黑穗
잠제=감저	고구마	甘藷
감저논다	고구마 묘를 놓는다	甘藷ヲ植エル
강꿀낭	꿀나무종류	柑橘類
강낭대죽	옥수수	玉蜀黍
강답	천둥지기	天水畚
거린다	갈린다	分蘖スル, 分岐スル
거적터기	거적터기	古イ藁筵
거풀(南部語)	보늬, 普通보늬는	内果皮
=썩겍질(北部語)	「보미」	
격죽=겍죽	겍질	植物ノ皮
격죽=겍죽	콩깍지	莢果ノ殻
건감	건시	乾柿
건불리다	땀들이다	蔭デ休ム
걸루다	걸우다	肥ヤス
걸음=비료	거름, 비료	肥料
걸름맹탱이=걸름착	온구	肥料運搬袋
겍질=지심	기음, 김	雜草
겍질맨다	김맨다	除草スル

제주어	표준어	일어
겉보리쌀	거피한 보리쌀	精麥
겉죽=걱죽	겉질	植物ノ皮
겉ㅎ다(南部語) =겉ㅎ다(北部語)	잣타다, 타다	穀類ヲ割ル
겉죽=걱죽	콩깍지	莢果ノ殼
고고리	이삭	穗
고들개(낭)	경걸이	當棒 (鞍ヲ固定サス爲ノ棒)
고들개친	밀치, 살밀치, 후거리	鞍, 後紐
고량	고량	畦間
고삐다	피었다	蔬菜類ニ空氣が入ツタ
고장=꽃장	꽃	花
고주아리=ㄴ저리	번데기	蛹
고지=이렁=밭이렁 =밭파니	밭이랑, 이랑	畦
고치	고추	蕃椒
곡석	곡식	穀物
곡석방울	날알	穀粒
꼭감	꼭감	串柿
곤(接頭語)	이( " )	白米ヲ表ス
곤대구덕=ㄴ는대구덕	가는대바구니, 중다래끼	細竹籠
곤밥=곰밥	흰밥	白飯

제주어	표준어	일어
곤쌀=쌀	쌀	米
골	엿기름	麥芽
골ㄴ루	엿기름가루	麥芽粉
곰밥=곤밥	흰밥	白飯
곰배	흙방망이	土碎棒
곰생이(北部語)	곰팡	黴
=곰생이(南部語)		
곰다산이=곰대산이	마늘	ニンニク(蒜)
=콧대산이=콧대사니		
=대산이		
공생이(南部語)	곰팡	黴
=곰생이(北部語)		
공생이피다	곰팡이생기다	黴が生エル
꽃장=고장	꽃	花
꽃꼭지	꽃송이	花朶
꽃동지=꽃보오지	꽃봉오리	花ノ蕾
팡	응어리	果實ノ心部
피	참깨	胡麻
피떡=빻떡=지름주시	깻묵	胡麻油粕
=빻주생이=빻주시		
빻떡=피떡=지름주시	깻묵	胡麻油粕
=빻주생이=빻주시		
구덕	바구니	竹籠



제주어	표준어	일어
꿀=쫄=너출=너출=넛출	덩굴	蔓
긋(接尾語)	구덩이	植ノ物生シタ場所
긋올리다(北部語)	복돋다	土寄セスル
=수둑주다(南部語)		
귀되	뒷박	一升楯
귀말	모말	一斗楯
그르팔	가을한밭	刈株ノミノ畑
글갱이	글갱이, 갈퀴	態手
급ㅎ다(北部語)	잣타다, 타다	穀類ヲ割ル
=겁ㅎ다(南部語)		
ㄹ는대구덕=곤대구덕	가는대바구니, 종다래끼	細竹籠
ㄹ랑비	가랑비	微雨
ㄹ래	맷돌, 매패	碾臼
ㄹ루삭다	줄들다	發育不良ニナル
ㄹ물다	가물다	早續ク
ㄹ뭍탄다	가물탄다	作物ガ早テ弱ル
ㄹ스락=ㄹ시락, 까끄러기	가스랭이, 깔치	芒
ㄹ슬=추수	收穫	
ㄹ시락=ㄹ스락	가스랭이, 깔치	芒
ㄹ을	가을	秋, 收穫
ㄹ저리=고주아리	번데기	蛹
꺾개=꺾갱이	호미(變型)	除草鎌

제주어	표준어	일어
곶채	삼태기	箒
나룩=노룩	벼(나락)	稻
나룩고고리	벼이삭	稻穗
나룩ㄴ스락	벗가락	芻芒
나룩눌	낫가리, 벗가리	稻ノ露積
나룩피	벗보	稻苗
나룩졸레	벼반쪽정이	稻ノ半充穀
나룩짚=나룩짚=짚 =짚=짚	짚, 벗짚	藁
나룩채	벼겍질	芻穀
나룩클	벼훑이	稻扱
난전밭	동리에서 멀리 떨어진 밭	部落カラ遠ク 離レタ畑
남=낭	나무	木
남박(새기)	소쪽박	木製バカヂ
남테	조밭밟는나무통	栗播イテ壓ス道具
남게	죽정이, 쪽정이	空實穀
낫전밭	반날같이	半日耕ス面積
낭=남	나무	木
낭섭	나무잎	木葉
느람지, 노래기	나무잎	木葉
너출=넛출=꿀=줄=쥬	덩굴	蔓
노룩=나룩	벼(나락)	稻

제주어	표준어	일어
노을=놀	폭풍	暴風
녹디주름	숙주	綠豆萌
논감	논갈이	水田ノ耕耘
논골	논도랑	水田ニ接セル溝
논달름=설매질	겉기질	代播
논말지기=논파니	논마지기, 논배미	小サイ水田, 水田ノ一區劃
놀=노을	폭풍	暴風
놀치다	농작물 바람에 쓸어진다	作物ガ風デ 倒レル
놉	품	勞力
놉셋벼름=신셋벼름	동북풍	東北風
눈다=담다	쌓다	積ム
농구리다	사르다	箕デ振ル
느쟁이	모밀겨 (겉나깨-넋게미)	蕎麥屑(細粉)
니	뉘	米ニ混ツタ雜 穀及不精米
넋게미	겉나깨 (모밀겨-느쟁이)	蕎麥屑(殘部)
느라미=느람지=느레미	영, 이영	薦, 屋根フキノ藁簾
느룻느린다	산꼬대한다	山嵐ガ吹ク
느물=느물	채초, 나물	菜蔬

제주어	표준어	일어
늑물=배치=당배치	배추	白菜
늑물간다	채전붙인다	蔬菜ノ種子ヲ播ク
늑물동지	무종	大根類ノ花莖
늑물베설	배추고갱이	白菜ノ心
늑물유레기	나물너부러기	蔬菜ノ屑
늑물팔	채전(菜田)	蔬菜畑
늑물=늑물	채소, 나물	蔬菜
늑뻬	무우	大根
다돏테기	닷되들이(숫)	五升入リ
다리다	밟다	踏ミツケル
닭은쌀	송은쌀	上等ナ精白米
눈다	쌓다	積ム
담몽크려진다	담문어진다	石垣ガ破レル
당그네	고무래	サラヒ(竹杷)
당배치=배치=늑물	배추	白菜
대거름체	가는대체	細目ノ竹籬
대산이=곶대산이	마늘	蒜
=곶대사니=곶대산이		
=곶다산이		
대산이대	마늘종	蒜ノ花莖
대오리=대우리	귀리	燕麥
대죽	수수類	黍類ノ總稱
대죽(낭)	수수깡, 수숫대	黍莖

제주어	표준어	일어
댕우지=유지	유지(柚子)	クネンボ(橘)ノ果實
덕세기	명석	莖
덤	더버기	堆積
덤벌	덤불, 김이 盛한 것	藪, 雜草ノ 繁ツタモノ
덩더령(北部語) =덩드령(南部語)	짚두드리는대(臺)	藁叩臺
덩더령막계	짚두드리개	藁叩臺
덩드령(南部語) =덩더령(北部語)	짚두두리는대(臺)	藁叩臺
덩치	그루	切株
데작데작	다다귀다다귀, 다닥다닥	ドツサリ
뎡가리	줄거리	葉柄
도난나룩	돌벼	野生稻
도난다	절로난다	自生スル
도난모밀	절로난모밀	自生ノ藁麥
도령이=도롱이	굼병이	地虫
도지	산바람	山風
또-ㄱ=주어=쪼어 =쪼우	우여, 위여	鳥等ヲ逐フ聲
독갱이 =뚝깡이(주제)(北部語)	회오리바람	颶風

제주어	표준어	일어
=돌깡이주제(南部語)		
독개	도리깨	連枷
독개아들	도리깨아들	連枷ノ先竿
독개아시	도리깨동생	連枷ノ樞
독개어시=어시	도리깨대	連枷ノ竿
돈거름=돔비	돼지거름, 돈비	豚肥
돌깡이주제(南部語)	회오리바람	颶風
=독깡이, 돛꽁이(주제)(北部語)		
돔비=돌걸름	돼지거름, 돈비	豚肥
돛꽁이(주제)	회오리바람	颶風
=돌깡이주제(南部語)		
=독깡이(北部語)		
동마보름	동남풍	東南風
동술기	동줄기	荷鞍紐
동지	① 꽃맺이 ② 장다리	幼果, 菜類ノ花莖
동지=쟁이	호박	南瓜
동지대죽=등기대죽	수수	蜀黍
되산다	빗거스러미하다	雨後風ガ起ル
되악새기=되악새기	되(四습들이)	一升楨
=되악새기(南部語)		
되악(北部語)	되(四습들이)	一升楨
두둑	둑	堤防
두머기늬물	나쁜배추	粗末ナ白菜

제주어	표준어	일어
되=새	띠(빨기)	チガヤ
드르	들	野
등테	언치	鞍ノ下數(最下部)
들랭이	작은밭	小畑
들레잎	떡잎	子葉
등기대죽=동지대죽	수수	蜀黍
마	장마	梅雨
마농=마늘	파류의 총칭	葱類ノ總稱
마농대=마농때	종대	葱類ノ花軸
마농뎡가리	파밑둥	葱白
마늘=마농	파류의 총칭	葱類ノ總稱
마브름	남풍	南風
마울르다=마피다	장곰팡이가 생기다	梅雨期ノ黴が生ル
마음(南部語) =마함(北部語)	말고삐, 재갈	馬ノ手網
마음심는다	경마잡다	手網ヲ取ル
마차꾼	달구지꾼	馬車引キ
마차쟁이	「마차꾼」을 얹잡아 부르는 이름	馬車引キ
멸늪=준시(南部語) =멜위, 진쉬(北部語)	멸구	浮塵子
모밀	모밀	蕎麥
모밀니께미	모밀나깨	蕎麥粉屑

제주어	표준어	일어
모멸줄레	모밀반죽정어	蕎麥ノ半充穀
모멸체	모밀까지	蕎麥ノ殼
모멸괘	모밀밭	蕎麥畑
모멸밭흔다	모밀종자뿌린다	蕎麥ノ種子ヲ播ク
모인조=모힌조	조 (차로는 「흐린조」 혹은 「히린조」)	粟(粳粟)
모힌쌀	멥쌀	粳米
모힌조=모인조	조 (차로는 「흐린조」 혹은 「히린조」)	粟(粳粟)
못꿩이	곡꿩이	鶴嘴
무루레=무루왜	물레	紡車
물룻	무룻	ツルボ
물밭	논	水田
물여물	물알	乳穀
물웨=웨	오이	胡瓜
물코	물고	水田ノ灌水口
물코막다	보막이하다	水田ニ灌水ヲ止メル
물코트다	보내기하다	水田ニ灌水スル
미	갈대의 대	ススキノ莖
마깁고장	귤화(橘花)	蜜柑ノ花
미깁냥	귤나무	蜜柑



제주어	표준어	일어
미녕=미명	무명	綿布
미우쟁이	새품	ススキノ花
밀채=밀헙되=헙되	밀기울	小麥ノ皮
므들	바위	平地ニアル頭狀岩デ 丘マデニナラザル地面
마친다	장마진다	梅雨ニナル
마폐	마포, 베	麻布
마폐다=마올르다	장마곰팡이가 생기다	梅雨期ノ黴が生エル
마함(北部語) =마음(南部語)	말고삐, 재갈	馬ノ手綱
막	외양간	畜舎
말축	메뚜기의 總稱	バツタ類
말뚝	말뚝	牛馬ツナギ臺木
망울	굴레	牛馬ノ口綱
망탕이=멩탕이(南部語) =멕다리(北部語)	망태기	蕘(繩ノ編物)
머돌=머들=잣	돌담불, 돌무데기	石塚, 石疊
머들	돌담불, 돌무데기	石塚, 石疊
메	모	苗
메질다	대가길다 (反語-메줄르다)	丈ガ長イ(植物ノ)
메즈추흐다	농작물이 모두 짜름하다	作物ノ伸ガ惡イ

제주어	표준어	일어
메줄르다	①모이다 (反語-메질다)	丈が短イ(植物ノ)
	②메마르다	土地が瘠セテイル
메터	모판	苗床
멕	멕서리	蕘
멕다리(北部語) =망탱이, 멩탱이(南部語)	망태기	蕘
멘네=멘혜	목화(면화)	綿木, 綿
멘네드레	솜열매	綿
멘혜=멘네	목화(면화)	綿木, 綿
멜망탱이	작은망태기	小型蕘
멜위=진쉬(北部語) =멜뉘, 준시(南部語)	멀구	浮塵子
멧자리	못자리	苗床
멩탱이=망탱이(南部語) =멕다리(北部語)	망태기	蕘
므술=므실=므을=가름	마을	部落, 部落
므음석=몰므음	고삐	手綱
바우(南部語) =엉덕(北部語)	바위	岩
박새기=박쇠기	나무바가지	木製ノバカヂ
<두구리=도고리		
반작	반타작(半打作),	小作米(粉), 半作

제주어	표준어	일어
	수나이	
방애	매, 절구	臼
방울	알	粒
밭갈쇠	밭갈이소	耕牛
밭두인다	두번째갈이하다	第二回牛耕トル
밭번흔다	첫번째갈이하다	第一回牛耕トル
밭이렁=밭파니=이렁 =고지	밭이랑, 이랑	畦
배치=당배치=늑물	배추	白菜
버랭이=베랭이	벌레	虫
버섯	보습	鋤金
버섯=버습=버숫	버섯	椎茸
번더기	편더기	平原
번흔밭	흰그루 (검은그루-가슬왓)	昨秋耕作地
벌레기	풀그루더기	草ノ刈株
병덩이=병에	벗밥덩이	田畑ノ土塊
베랭이=버랭이	벌레	虫
베랭이=첫버랭이=티	가시, 구더기	蛆
베설	고갱이	植物ノ心
벧	벧	鋤ノ先端
벨	벌	陽
벽담	주담	雑石ヲ積ンダ垣

제주어	표준어	일어
보리간다	보리종자뿌린다	麥ノ種子ヲ播ク
보리낭=보리짚	밀짚	麥稈
보리졸레	보리반쪽정이	麥ノ半充殻
보리짚=보리낭	밀짚	麥稈
보리체	보리겍질	麥殻
보리클	벼훑이	稻扱
보미	보늬	糠
복닥=체	겍질	外皮
복승개=복승개=복승개	복숭아	桃
봄내낭	봄내	春中
봄늬물	얼갈이	春蔬菜
봉천수(奉天水)	천상수(天上水)	雨水
뽕남이즈(南部語) =뽕낭갓(北部語)	뽕자지	桑ノ鐵砲虫
뽕낭여름=뽕낭탈(南部語) =오동개비(北部語)	오디	桑ノ實
부근대	부검지	藁ノ袴
부르	상치	チシヤ
부수수ㅎ다	자름하다	(芋類等ガ)稍小サイ
불경=불청(南部語)	재(北部語-불치)	草木灰
불리=불이=뿌리=뿔이 =불휘	뿌리	根
불임질	불림질	風選穀

제주어	표준어	일어
불청=불경(南部語)	재	草木灰
불치(北部語)	재	草木灰
불취=빨리=불이=빨이 =불리	뿌리	根
빨리들다	밑들다	根ガ入ル
빨이=빨리=불이=불리 =불취	뿌리	根
붓출	들것대	擔架ノ棒
비루=걸름	비료, 거름	肥料
빼다	씨뿌리다	播ク
빌레=빨레	마윗그루, 반석	岩塊, 盤石
빌착	질퍽	ジクジク濕ッタ狀
빨레=빌레	마윗그루, 반석	岩塊, 盤石
밧살	밧방울	雨粒
뽕이마농=괘마농	파	葱
벼름	바람	風
복개기(北部語)	자-도워진, 헤아리벧지	ザードキッケン (カラスノエンドウ), ヘアリベッチ
복개기(南部語)	자-도워진, 헤아리벧지	ザードキッケン (カラスノエンドウ), ヘアリベッチ
산뒤(山稻)	밭벼	陸稻

제주어	표준어	일어
산좌전=좌전	사래	墓ノ附屬田畑
산테	들 것, 삼태기	擔架
살죠타	살깊다	表土ガ深イ
살찾보리	겉보리	皮麥
새=뒤	띠(빨기)	チガヤ
생수답	샘받이	泉水ヲ入レル水田
서리에갓다	상고대젓다	木ノ枝ニ霜柱ガ立ッタ
서마브름	서남풍	西南風
서속	잡곡	雜穀
서하니브름	서북풍	西北風
씩음들다	놀들다	稻ガ病氣ニヨリ 黃變スル
설메(南部語)	씨레	馬鍬
=섬피(北部語)		
설메질=논달름	겉기질	代搔
섬피(中部語)	씨레	馬鍬
=설메(南部語)		
썸=썸쌍귀=잎상귀	잎, 잎사귀	葉
성키=송키=푸성거리	푸성귀	蔬菜, 青物
소개	솜	綿
소들다	시들다	凋ル
속밭	쑥대밭	蓬畑
쑥겉질(北部語)	보늬, 普通보늬는	内果皮

제주어	표준어	일어
=거풀(南部語)	「보미」	
손뺍=솔뺍	나무바가지	木製バカヂ
쇠앗배(南部語)	복두	荷鞍紐
=쇠앗배(北部語)		
쇠역(接尾語)	같이( 〃 )	一日耕ス面積(單位)
쇠오랑	소배때끈	牛ノ腹締紐
쇠왓배(北部語)	복두()	荷鞍紐
=쇠왓배(南部語)		
쇠콧돌래=콧돌래	쇠코뚜레	牛ノ鼻輪
수농깁	품값음	勞力テ返スコト
수뚸주다(南部語)	복돋다	土寄セスル
=긧올리다(北部語)		
순눈깁문다	품값음하다	勞力ヲ返ス
순눔일=수누름	품앗이	仕事ヲ加勢シ テ助ケ合フコト
췌다리	단술	甘酒
췌베랭이=베랭이=티	가시, 구더기	蛆
시궁	거름터	厩肥場
시둑	두덩, 두둑	畔ヤ堤
씨긧	씨터	播種場
씨긧즈누릿다	밭길만촉였다	畑ノ表面ダケ ガ潤レタ
신셋벼름=눔새벼름	동북풍	東北風

제주어	표준어	일어
신속	쭉	ヨモギ
스래기	싸라기	屑米
속구우다	숙다	間引ク
속구운늬물	숙음	間引菜
솔노리=솔누리(南部語) =솔우리(北部語)	쌀보리	裸麥
쌀=곤쌀	쌀	米
쌀대죽	쌀수수	黍ノ一種
쌀대우지	갓얇은 유자	皮ノ薄イタチバ ナノ果實
쌀방울	쌀알	米粒
승키=성키=푸성거리	푸성귀	蔬菜, 青物
양식	양식	糧食
양에	양하(蘘荷)	メウガ
어려려려	와나	ハイ(馬ヘノ掛聲)
어시=독계어시	도리깨대	連枷ノ芋
어욱(北部語)	억새	ススキ
어위기=어웁(南部語)	억새	ススキ
언덕(北部語) =마우(南部語)	바위	岩
에영지=에영즈(南部語) =외영뒤(北部語)	앵도, 앵두	ユステウメ
여름	열매	果實



제주어	표준어	일어
열났다	논가운데 땅이 들어났다	水田中ニ土面が現レタ
열낭=열대	겨릅대, 삼때	麻ノ皮ヲ剥イタ莖
염나	염글다	實ル
예쟁이	①오쟁이 ②거적	小サイ藁袋, 藁製簾
오동개비(北部語) =뽕낭여름, 뽕낭탈(南部語)	오디	桑ノ實
오디	이삭의 곁가지	小穂
오량(南部語)	뱃대끈	牛馬ノ腹帶
오량(南部語)	뱃대끈	牛馬ノ腹帶
오좁	오좁	小便
왕(南部語) =화-아-○(南部語)	와	牛ヲ止メル聲
왓=팔(接尾語)	밭(ㄴ)	畑(ㄴ)
외곳	오이구덩이	胡瓜ノ生エ場
외논다	오이심근다	瓜ヲ植エル
외동지	오이꽃맺이	胡瓜ノ幼果
외막=윗막	원두막(園頭幕)	菜園ノ番小屋
우누졌다<좁눔졌다	보지락정도다	耕セル程度ニ 雨が降ッタ
우막다	웃순지르다	摘心スル
우영=위영=위연	터알	屋敷内ノ畑
우장>접새기	도롱이	蓑

제주어	표준어	일어
우친다	긱인다	雨天ガ續ク
울룬감(南部語) = 짐칫감(北部語)	침감	浸柿
움문다	움트다	芽ガ少シ出ル
웃날개다=웃날들르다	웃날들다, 날이개다	雨天ガアガル
웨=물웨	오이	南瓜
위면=위영=우영	터알	屋敷内ノ畑
유	들깨	荳
유우래기	곁대	靑物ノ脣
유지=덩우지	유자(柚子)	クネンボ(橘)ノ果實
으남	운무	雲霧
이끄구간다	이꼴다	牛馬等ヲ牽イテ行ク
이렁=밭이렁=밭과니 =고지	이랑, 밭이랑	畦
이르	이라	ハイハイ(馬ヘノ掛聲)
잇상귀=쩍=쩍쌍귀	잇, 잇사귀	葉
작멜왓=작지왓	돌작발	砂利畑
작멸=작지	돌자갈	砂利
작박	얇은나무박	浅イ木製バカヂ
작지=작별	돌자갈	砂利
작지왓=작메왓	돌작발	砂利畑
잔뒤역=퇴역=테역	잔뒤	芝
잠데	밭연장	鋤

제주어	표준어	일어
잡닐	잡일	雜役
장채	왕계, 곁계	粃殼
쟁기	장기	鋤
쟁이=동지	호박	南瓜
쟝=머들=머들	돌담불, 돌무데기	石塚, 石壘
저리	겨리	兩頭引キノ鋤(牛共)
저리매우다	겹매우다	雙頭組ム
저리받가리	겨리질	兩頭引キノ鋤デ 耕スコト
저리쇠	겨릿소	兩頭引キノ鋤ニ 使フ牛
저리잡데	겨리보습	兩頭引キノ鋤
전어(田魚)=콩쌈	콩잎	大豆葉
접새기>우장	도롱이	蓑
정때	뺑때, 말 때	蜀黍類ノ穗軸
제완지=제한지=제한지	바랭이類	メヒジハ類(メヒジハ)
조낭=조찍	조짚	粟藁, 粟稈
조낭흔거울	조한대	粟一本
조래기	종다래끼, 종댕이	小型竹籠
조블인다	조종자뿌린다	粟ノ種子ヲ播ク
조졸레	조반쪽정이	粟ノ半充穀
조지	보춤	束(數)
조찍=조낭	조짚	粟藁, 粟稈

제주어	표준어	일어
조코고리	조이삭	粟穗
조크르	조그루	粟ノ刈株
조팍	조밥	粟飯
조풍덩이	조쪽징이	粟ノ空穀
줄래	반쪽징이	半充穀
좁팍	「손팍」과 같은 것	木製バカヂ
좁쌀	좁쌀	精粟
중	말에찌르는 장때	畑ニ差ス竿
좌전=산좌전	사래	墓ノ附屬田畑
쵸우=쪄우=주어	우여, 위여	鳥等ヲ逐フ聲
=또-기		
주생이=주시=찌갱이	찌끼	搾糶, 殘滓
주제기	지적가비	木片
주쟁이	영뚜께, 주저리	束積ノ屋根ノ天
주지	덧개	露積被ヒ
준시=멸늬(南部語)	멸구	浮塵子
=진쉬, 멜위(北部語)		
줄=꼴=꼴=너출=넛출	덩굴	蔓
줄갈래	가래	紐附キ大スコップ
중난정	동리밖의밭	部落外ノ畑
쟁이(南部語)	쥐	鼠
쟁이(北部語)	쥐	鼠
지다(北部語)	거피하다	去皮スル

제주어	표준어	일어
=짓나(南部語)		
지달싼다	꼭두친다	牛馬ノ頭ヲ括ル
지름주시=씻주생이	깨묵	胡麻油粕
=씻주시=피떡=씻떡		
지메=지미	말라죽은병	粟ノ白髮病
지미지다	말라죽은병들렸다	立枯病ニナル
지슬	감자	馬鈴薯
지실논다	감자심근다	馬鈴薯ヲ植エル
지심=검질	기음	雜草
지장	기장	黍
찌갱이=주생이=주시	찌끼	窄粕, 殘滓
찍=짚=나록찍=나록짚	짚, 벼짚	藁
찍눌=짚눌	짚가리	藁積
찍단	짚토막	藁束
찍부근데	괴때기, 지푸러기	藁屑, 藁ノ袴
찍신=짚신=짚세기	짚신, 짚서기	草鞋
찍주쟁이	짚주저리	藁被
진쉬=멜위(北部語)	멸구	浮塵子
=멸뉘, 준시(南部語)		
질ㄴ	길가	路傍
질매	길마	荷鞍
질진밭	사래긴밭	畦ノ長イ畑
짐자기(大靜語)	되	1升楯

제주어	표준어	일어
		(4合入りノ木製バカチ)
짐작(旌義語)	되	1升栞
		(4合入りノ木製バカチ)
짐칫감(北部語) =울룬감(南部語)	침감	浸柿
짓나(南部語) =지다(北部語)	거피하다	去皮スル
짚=짖=나록짚=나록짖	짚, 벼짚	藁
짚눌=짖눌	짚가리	藁積
짚복닥=짚복테기	지푸러기, 부검지	高屑
짚세기=짚신=짖신	짚세기, 짚신	草鞋
즈눔	보지락	耕ス程度ニ降ッタ雨
즈눔져다>우누져다	보지락정도다	耕ス程度ニ雨ガ降タ
즈진득운다	닭져추다	夜明ケノ鶏ガ鳴ク
즌밭	삼태밭	蔬菜ノ細根
차임절미=흐린조떡 =히린조떡	조차떡	糯粟餅
착콩	짜개콩	割片ノ多イ豆
찰레=출레	찬, 반찬	副食物
청돌다	회공되다	瓜類ノ柵ガ落チタ
체=복닥	깍질	使ハレヌ穀, 外皮
챗둥지	첫꽃매지	最初ノ幼果
쳐지다	물크러지다	過熟シテ損フ

제주어	표준어	일어
츄마귀=츄늬물	열무, 무청	幼イ大根, 大根ノ葉
츄나록	찰벼	糯稻
츄물흐다=회수흐다	조수김이덥치다	潮氣ガカカル
츄떡	찰떡	糯米餅
츄래=찰래	찬, 반찬	副食物
츄늬물=츄마귀	열무, 무청	幼イ大根, 大根ノ葉
츄쌀=츄쌀	참쌀	糯米
츄외	참외	瓜
츄쌀=츄쌀	참쌀	糯米
코박새기	조롱박	ヘウタンノバカヂ
코꼭	조롱박	ヘウタン
콧바가지=콧작박	꼭배지, 당숙빻	小チヤイバカヂ
콧대산이=콧대사니 =콧대산이=콧다산이 =대산이	마늘	蒜
콧덜래=쇠콧덜래	쇠코뚜레	牛ノ鼻輪
콩각매기=콩꼭죽 =콩꼬질	콩각지	莢殼
콩각물(北部語)	콩꼬투리	莢果
콩각지(南部語)	콩꼬투리	莢果
콩꺼죽=콩꼬질=콩각매기	콩각지	莢殼
콩쌈=전어(田魚)	콩잎	大豆ノ葉
콩주름=콩지름	콩나물	大豆萌

제주어	표준어	일어
콩주생이=콩주시	콩깻묵	大豆ノ窄粕
콩지름=콩주름	콩나물	大豆萌
콩착	짜개	豆ノ割片
쿨(接尾語)	①풀 ②대	草, 本(數)
콤값음	품값음	仕事ノ交換
콧	박의열매	ユウガホノ果實
콧(쫄)=콧락(쫄)	박	葫蘆
콧메=콧락메	박의모종	ユウガホノ苗
콧박새기=콧락박새기	큰바가지	大バカヂ
콧작박=콧바가지	꼭배지, 당숙빻	小チヤイバカヂ
콧락(쫄)=콧(쫄)	박	ユウガホ
콧락메=콧메	박의모종	ユウガホノ苗
타보룩하다	다보룩하다	菜類等ガヲド ッサリ茂ッタ
탈	딸기	莓
태작	타작(打作)	小作ノ一種
테역=퇴역=잔뒤역	잔디	芝
테역단풍	금잔디	黄金色ニ乾イタ芝生
텃덩어리=텃병덩이	텃장	芝塊
토란	도라지	桔梗
토란대	곤대	里芋ノ葉柄
퇴역=테역=잔뒤역	잔디	芝
티=베랭이=췌베랭이	가시, 구더기	蛆



제주어	표준어	일어
티이렀다	가시생겼다	虫ガ湧イタ
툔	타줄	馬鍬ノ綱
파니	꽤기, 고랑	畦, 水田等ノ數
팔=왓(接尾語)	밭(〃)	畑
패마농=뺑이마농	파	葱
퍼레박	두레박, 용두레	水汲ミ容器
편쩍매라	깨끗하게깎매라	スッカリ除草セヨ
펼집푼논	깊드리	底ノ深イ水田
폐기	포귀	蔬菜ノ株
푸는체	키	箕
푸대	포대(布袋)	麻袋
푸린콩	청대콩	青大豆
푸성거리=성키=승키	푸성귀	蔬菜, 青物
푼다	까부르다	箕テ煽ル
푼체=풍체	차양(遮陽)	日除(風雨除ケニモナル)
풀치다	풀걷다	耕地ノ草拾ヒヲスル
풀질	까뭍질	箕テ煽メコト
풍덩이	쭈정어, 죽정어	空殻
풍챌작쉬	차양작대기	日除ケ支ヘ棒
풍체=푼체	차양(遮陽)	日除(風雨除ケニモナル)
푼리	파리	蠅
한습밭	한잠같이	一時間位耕ス面積
한이(벼름)	북풍	北風

제주어	표준어	일어
한지	한데	露天
허재비	허수아비	案山子
헝되=밀헝되=밀채	밀기울	小麥ノ皮
헛트라	뿌려라	散播ケ
호미=훤미	낫	鎌
호박굿	호박구덩이	南瓜ノ生エ場
홀트다	훔다	扱キ落ス
홀툼질	홀태질	穂落シ
화-아○(南部語)	와(北部語-왕)	牛ヲ止メル聲
황왕	와나	ハイ (牛ノ方向ヲ變へ時ノ掛聲)
회수훔다=춤훔다	조수김이덥치다	潮氣ガカカル
훤미=호미	낫	鎌
흐링답	골답, 수답	水ノ豊富ナ水田
흐린조=허린조	차조 (조는 「모인조」, 「모힌조」)	糯粟
홀튼다	무르눅다	果實ガ過熟スル
훔	흙	土
훈쇠역	하루같이	一日耕ス面積

## 林業關係의 濟州語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갈리=굴리=골리(接尾語)	알, 툄	堅果ノ數
고냉이똥=유름=유어름 =줄갱이	으름	木通ノ果實
고지간다=낭고지간다 =낭흐레간다	나무하러간다	薪採リニ行ク
골리=굴리=갈리(接尾語)	알, 툄	堅果ノ數
곳	깊은산	深山
괭이=괭이	못	板ニ現レル木ノ節
굽등이	밑둥, 밑줄기	植物ノ下部
귀자귀	선자귀	立用ノ削リ道具 (斧ノ一種)
국쇠=국쇠	우비칼	袴刃
굴리=골리=갈리(接尾語)	알, 툄	堅果ノ數
남=남	나무	木
남거릅	나무가지짜개미	枝ノ叉
남께기	나뭇지저귀	薪屑
낭고지간다=고지간다 =낭흐레간다	나무하러간다	薪採リニ行ク
낭꾼	나뭇꾼	樵夫
낭그르=낭덩치=낭덩체기	나뭇등걸, 나무그루	木ノ切株

제주어	표준어	일어
낭끈어라	나무를 베어라	木ヲ切レ
낭대기	나무때기	薪ニナル木ノ枝
낭덩채기=낭덩치=낭그르	나뭇등걸, 나무그루	木ノ切株
낭베설	나무속	木ノ心
낭섬비=섬비=섬부쟁이	둥나무, 단거리	新葉
낭썸	나무잎	木ノ葉
낭절	나무결	木理
낭주적(이)	나뭇조각	木ノ切端
낭지우다	나무넘어치다	木ヲ倒ス
낭투막	나무토막	端木
낭흐레간다=낭고지간다 =고지간다	나무하러간다	薪採リニ行ク
내깔리	강에 흘러내린 낙엽	川ニ流サレタ落葉類
냉말이=숯냉말이	숯등걸, 냉과리	木炭ノ燃差
덩치	그루	切株
도고리=도구리>박새기	나무바가지, 함지	木製ノ大キナ容器
돛박골(리)	동백씨	椿種
돛박낭	동백나무	椿
돛박복금	동백나무열매의 병신	椿果ノ片端
돛치=역기	도끼	斧
미호미	도끼같이쓰는칼	鉞, 山刀
뭇가리	줄가리	枯レタ小枝
방에선돌운다	불깃놉는다	防火線ヲ施ス

제주어	표준어	일어
복금	동백나무의 병신	椿ノ片端
사농	사냥	狩獵
사농바치=사농쟁이 =산쟁이	사냥꾼	狩人
사농개	사냥개	獵犬
삭다리	삭정어	枯枝
산송=황송=황솔	소나무, 솔	赤松
산쟁이=사농쟁이 =사농바치	사냥꾼	狩人
산적(山炙)	산짐승고기의적	野獸肉ノ串
산채잡다	사로잡다	生捕スル
생이통=통	보금자리	鳥ノ巢又ハ隠レ場
씩음들다	구새먹다	(老木)空洞ガ出來ル
섬부쟁이=섬비=낭섬비	단더리, 동나무	薪葉
썸복금	동백나무잎의 병신	椿葉ノ片端
소낭=솔낭	해송(海松), 곰솔	黒松
소낭고치	송충의고치	松毛虫ノ繭
=소낭베랭이고치		
소낭고치=솔충	송충(松蟲)	松毛虫
=솔충베랭이		
소낭베랭이고치	송충의고치	松毛虫ノ繭
=소낭고치		
소낭초기	송이	松茸

제주어	표준어	일어
솔낭=소낭	해송(海松), 곰솔	黒松
솔벵이	솔방울	毬果
솔충(버랭이)=소낭베랭이	송충(松蟲)	松毛虫
숙대남	삼목	杉
솔	숲	林
숨벌	멧갓	木ノ茂ツタ山
숯굴	숯도가니	木炭ノ竈
역기=돛치	도끼	斧
외골밤	외톨밤, 회오리밤	單粒栗
유름=유어름=줄갱이 =고냉이똥	으름	木通ノ果實
жат=즈	자지 (뽕자지-뽕낭жат, 뽕남이즈)	鐵砲虫
절	결	木理
줄갱이=유름=우러음 =고냉이똥	으름	木通ノ果實
좌전립	뫓갓	墓ノ附屬林
지들낭	썰, 땄나무, 장작	薪木
지들낭가지	장작개비	薪ノ一本一本
즈=жат	자지 (뽕자지-뽕낭жат, 뽕남이즈)	鐵砲虫
즈밤	모밀жат밤	椎ノ實
즈밤낭	모밀жат밤나무	椎

제주어	표준어	일어
치=퇴기	창애	罨
츠낭	참나무	櫟
츠낭열매=가시(낭여름)	도토리	團栗
퀸밤	알밤	落栗
테우=테위=테의	筏	
테윗낭	뗏목	筏材木
테의=테위=테우	떼	筏
퇴기=치	창애	罨
통=생이통	보금자리	鳥ノ巢又ハ隠レ場
툔	떨기	草木ノ繁茂セル所
황솔=황송=상송	소나무, 솔	赤松
황송	소나무, 솔	赤松

## 牧畜關係의 濟州語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가라말	검은말	黑色馬
가마귀머림	계사의 지붕그물	鷄舍庭ノ屋根
가문유마	흑갈색말	黑褐色馬
간전이»쌀간전이	이마에 흰줄이	顔カラ鼻マテ
	코까지 있는 말	白條ノアル馬
갈뛰다리	뒷다리빠여진	後脚脱臼セル
	病身牛馬	片端ノ牛馬
갈뛰지다	뒷다리가 빠어지다	後脚ガ脱臼スル
갯닭	갯닭	優良種ノ鷄
거문쇠	새까만소	眞黑色牛
거문신쇠	등에 누런털이	脊部ニ黄毛
	있는 검은 소	ガ若干アル黒牛
거문어럭쇠	흑백어럭소	黑白斑牛
거문월라	흑백반마	黑白斑馬
거을돌	발목이흰말	各足上部ガ白色ノ馬
	(濟州島最劣等馬)	
건지뿔	소의 후향장각	牛ノ後向長角
걸려간다	잡아간다	カケテ持去ル
	(犬等ヲ毘等ニ)	
검노린쇠	검은빛도는 황소	帶黑黃牛



제주어	표준어	일어
검노린어럭쇠	帶黑黃과 白色의 斑牛	帶黑黃ト白色 ノ斑牛것
먹이	餌(家畜ニ與ヘル食物)	
깨다	깨다	孵化スル
꼭계곡-	꼭교-	コケコツコウ
고고고……	구구구……	鶏ノ呼聲
고닥-고닥-	꼬꼬닥꼬꼬닥	コケッコケッ (産卵後ノ鶏鳴)
=죽고닥죽고닥		
고달=독도달	벚	鶏冠
고라말	회색말	灰色馬
고부랭이	곰배말	脊ノ凹出セル片端馬
고치적다	빨간말	眞赤色馬
꿀랑지=꿀랭이=꼬리	꼬리	尾
=충지		
풀리몽그래기	동경이	尻切動物
곰내	기름내	畜脂臭
굽=굽	쇠기름	牛脂
곳곳곳	오요요	ポチポチ(小犬ヲ呼ブ聲)
공초알(安徳, 翰林, 涯月三個面境界附近牧場)		
짱	뼈	骨
짱블른괴기	뼈뜯이	骨カヲ採ツタ層肉
괴기	고기	肉
괘-괘- =괘괘	꿀꿀	豚ノ聲

제주어	표준어	일어
구렁적다	붉은말 (고치적다와 초적다의 中間)	赤色馬
구실득	구수닭	斑點ノアル鷄
귀옥쟁이	귀느래	垂耳馬
귀귀=귀-귀-	꿀꿀	豚ノ聲
글투다	닭이산란의 자세를 취하다	鷄ガ産卵ノ 姿勢ヲトル
금승(今生)	소의 한 살	牛ノ一歲
금승마	한살먹은망아지	一歲馬
금승송애기	한살먹은송아지	一歲牛
궤고닥궤고닥 =고닥-고닥-	꼬꼬댁꼬꼬댁	コケツコケツ (産卵後ノ鷄鳴)
나롭	소의 네살	牛ノ四歲
나롭부랭이	네살 먹은 수소	四歲ノ牝牛
나롭쇠	쇠네살 먹은 소	四歲牛
낙인	낙인	烙印
낙인지른다	낙인찍는다	烙印ヲ打ツ
낙인질	단근질	烙印
노각뿔	소의은백색뿔	牛ノ銀白色角
노린신쇠	머리와 꼬리에 검은 털있는 황소	黄牛デ頭尾部 ニ黒毛ガ若干アル
노린알(北部語) =불근늘(南部語)	노른자	卵黃

제주어	표준어	일어
노린어럭쇠	황백어럭소	黃白斑牛
노린월라	황백반말	黃白斑馬
속대	간다개	顏紐
뇌린쇠=황쇠	황우	黃牛
누에씨	누에알	蠶種
눈굴이몰	눈에백태긴말	白ソコイノ馬
눈뚜께	눈꺼질	瞼
눈망울	눈동자	瞳
눈콍째기	눈곱자기	眼脂
눈통이	눈망울	眼球
니	이	齒
니염	잇몸	齒齦
니치름흘치다	침흘리다	唾ヲ垂ラス
날개	날개	翼
다가리=더가리	대가리	頭
다간	소의 두살	牛ノ二歲
다간송애기	두살 먹은 송아지	二歲牛
다습	소의 다섯살	牛ノ五歲
다습부랭이	다섯살 먹은 수소	五歲ノ牡牛
다습쇠	다섯살 먹은 소	五歲牛
담몽크려진다	담문어진다	石垣ガ破レル
대빨	牛的 上橫向長角	牛角ノ一型
대창	짐승의 똥집	獸ノ胃

제주어	표준어	일어
더가리=다가리	대가리	頭
도랭이병	비루	犬馬ノ皮膚病
도랭이올랐다	비루먹다	犬馬ガ皮膚病 ニカカツタ
도새기=돈	돼지	豚
또고망	똥구멍	肛門
독머리=동머리=동무릎 =무릎	무릎	膝
돈=도새기	돼지	豚
돈걸름=돈비	돼지거름, 돈비	豚肥
돈지름	비계	豚脂
돈추념	돼지추렴	豚肉分割
돈통	돼지우리	豚舎
돌채	실반대만드는데	生糸ヲ束ニスル具
돈비=돈걸름	돼지거름, 돈비	豚肥
동머리=독머리=동무릎 =무릎	무릎	膝
동무릎	무릎	膝
등지	방사오리	鐙
ㄷ글ㄷ글	강동강동	パカパカ(駒歩)
닭	닭	鶏
닭고달=고달	벧	鶏冠
닭살통(北部語)	닭의어리	防籠

제주어	표준어	일어
=독수랭이(南部語)		
독새기	닭의알	鶏卵
독수랭이(南部語)	닭의머리	防籠
=독살통(南部語)		
독집	닭의장	鶏舎
독깃	닭의깃	鶏羽
독통(南部語)	닭의보금자리	鶏ノ巢
독통에(北部語)	닭의보금자리	鶏ノ巢
막은창	맹장	盲腸
맹맹	매매	モ-(子牛 羊 啼 聲)
머리=바리	마리(말의수)	匹(馬ノ數)
먹가라	새까만말	眞黑色馬
멀터갱이(北部語)	똥집, 멀떠구니	鳥ノ砂囊
멀턱(南部語)	똥집, 멀떠구니	鳥ノ砂囊
멘백이=태상백이	별박이, 적로마(駒廬馬)	顔ニ白斑ノアル牛馬
모시갈기	누른(모시색)갈기	黃色鬣
모시총	누른(모시색)총	黃色尾
목산지대	흑토의 목장지대	黒土ノ牧場地帯
묘족뿔	소의짜른뿔	牛ノ短角
무레=본대기=데	떼, 무리	群
무제미	원앵기	クサリ(手綱ノ附屬品 ニシテ頤ノ下ニ下ル棒紐)

제주어	표준어	일어
무관보는사름=무관쟁이	고기장사	肉商人
무관칩	육고(肉庫)	肉店
므쉬	가축	家畜
물	말	馬
물광팡	열골, 열한뼈	軟骨
물막(사리)	말외양간	馬小屋
물출	말꼴	馬ノ秣
몽 생이=몽아지	망아지	駒
바리=머리	마리(말의수)	匹(馬ノ數)
반중(半種)	트기	雜種
발꺼림	발살	趾間
발콧	발톱, 굽	蹄
백돈	흰돼지	白豚(ヨークシャー)
베설=창지=창기	창자	腸
베아락쇠	배알락소	腹部白色ノ牛
베아래기	배어루러기	腹部ニ斑紋ノアル畜類
베야지=벧다지=벧빼기 =뉘뿌기	배통이, 배때기	腹
백몰=백마	백마, 설마	白馬
백쟁이=피쟁이(皮匠)	백장	屠殺人
뺨골	골수	骨髓
벧다지=벧빼기=베야지 =뉘뿌기	배통이, 배때기	腹

제주어	표준어	일어
벧도롱(南部語) = 벧동, 벧또꼬냥(北部語)	배꼽	臍
벧도롱줄(南部語) = 벧동쫘(北部語)	삼줄, 텃줄	臍帶
벧동쫘줄(北部語) = 벧도롱줄(南部語)	삼줄, 텃줄	臍帶
벧빼기=벧다지=베야지 = 뉘뿌기	배통이, 배때기	腹
벧코	쇠옹두리	牛ノ後肱
벧(南部語)	병(北部語-빙)	病
벧신말	병신말	片端馬
벧신쇠	병신소	片端牛
백마=백물	백마, 쉰말	白馬
보태	삼, 태, 태보	胎
복시다리	허리 부러진 소말	腰椎ガ傷ンダ牛馬
본대기=테=무레	떼, 무리	群
붓=새깃붓	자궁	子宮
부구리	진드기 (丸型, 扁型은 「진득」)	壁蟲
부렁이	수소	牡牛
부빔질	부비질	牛馬ガ石等ニ體 ヲ擦ルコト
부사리	불까지 않은 늙은 소	去勢セザル老牡牛

제주어	표준어	일어
부애=북베기=북부기	부아, 허파	肺臟
부인유마	황갈색말	黃褐色馬
북개	북술개	長毛犬
북베기=북부기=부애	부아, 허파	肺臟
불까분다	불깁다	去勢スル
불근놀(南部語)	노른자	卵黃
=노린알(北部語)		
불딱새기=봉알	불알	睪丸
불망탱이(南部語)	불알망태	陰囊
불차디(北部語)	불알망태	陰囊
봉알=불딱새기	불알	睪丸
비아기=빙애기	병아리	雛
빗지다	빗기다	梳ヲカケル
빙(北部語)	병	病
=병(南部語)		
빙애기=비아기	병아리	雛
뱃뿌리=베야지=벧다지	배통이, 배때기	腹
=벧빼기		
사릅	소의 세살	牛ノ三歲
사릅송애기	세살 먹은 송아지	三歲牛
사수매	네살 먹은 말	四歲馬
산태뿔	소의 前向長角	牛角ノ一型
살괴기	살코기	正肉



제주어	표준어	일어
살지다=솔치다	살찌다	肥 <sub>エ</sub> タ
살평했다	파리했다	瘡セタ
살푹살푹	꼬치꼬치	瘡セタ狀
삼등이	곰배말	脊凹凸セル片端馬
삼산이	방둥이	畜類ノ臀部
삼수매	세살먹은 말	三歲馬
새끼뿔=뿔	자궁	子宮
새송애기	부록송아지	馴 <sub>レ</sub> ヌ小牛
새위등	등이 구부러진 소	脊ガ蝦ノヤウニ 曲ツタ牛
샌맥	모이통	嚙囊
셋꿀	「출」中の「새」와 「제한지」	秣中「カヤ」ヤ 「メヒシバ」
서미역	진디(진독과 같고 小型이며 발이 若干긴 것)	壁蟲ノ一種
서미역본대기	진디물	小ダニノ群
성문이	정갱이	膝
세=세까닥=셋바닥	혀	舌
세경너분드르	광야	曠野
셋바닥=세까닥=세	혀	舌
솔디=알라구리	豚의 頭下半部	豚頭ノ下半部
송아지=송애기=쇠아지		犢=송아지
송애기새끼	송치	牛ノ胎兒

제주어	표준어	일어
쇠	소	牛
쇠니처럼	쇠침	牛ノ唾
쇠막(사리)=쇠왕	소외양간	牛舎
쇠불벤다=쇠불친다	소불간다	牛ヲ去勢スル
쇠아지=송애기=송아치	송아지	犢
쇠왕=쇠막(사리)	쇠외양간	牛舎
쇠태우리	목동(牧童)	牛舎
수령이	어리育雛用ノ伏籠	
수애=수외	순대(女子나 兒孩의 말이고 男子의 말은 「피창」)	腸詰
수톡=장독	수탉(암탉-암퇘)	雄鳩
순톨	수퇘	雄豚
숭	소혹은 돼지의 배때기	牛ノ腹部
숭(接頭語)	수(〃)	雄
숭컷	수컷	雄
숙독=식돈	흑황혼색돈(最劣等品)	黑黃混色豚
숙쇠=식쇠	침소(最劣等品)	黑黃混色牛
슬개=실개=썰ㄱ	슬개	膽囊
시- =호우- =후위-	쉬이, 휘이	ホ-(鷄等ヲ逐フ聲)
시-식식시-식식	두두	シ-シー-(豚ヲ逐フ聲)
씨깍	밀알	種卵
식돈=숙돈	흑황혼색돈	黑黃混色豚

제주어	표준어	일어
식쇠=숙쇠	쇠소	黑黃混色牛
실개=썰ㄴ=슬개	쓸개	膽囊
썰간전이<간전이	이마의 흰줄이	顔ニアル白條ノ細イ馬
	가는 말	
썰ㄴ=실개=슬개	쓸개	膽囊
심는다	붓잡는다	捕ヘル
썸(줄)	심, 힘줄	牛ノ腱
썸썸거리	홀떼기	腱ノ多肉
싯득	씨닭	種鶏
슬	살	肉
슬(接尾語)	살	歳
슬거죽	살가죽	皮膚
슬치다=살지다	살찌다	肥エタ
아홉	구릅(마소의 아홉 살)	牛ノ九勢
아홉쇠	아홉살먹은 소	九歳牛
안칩	내장	内臓
알라구리=솔티	豚頭的 下半部	豚頭ノ下半部
암툭	암탉	雌鳩
	(수툭-수툭, 장득)	
야가기=야게=야게기	목, 모가지	頸
양태	망건(網巾)	馬尾織ノ頭巾
어럭돋	얼럭돼지	斑色豚
어럭쇠=어랙이	얼럭소	斑牛

제주어	표준어	일어
어-리머	위리	犬肥 <sub>エ</sub> 夕呼語
어시=엄지	어미	親
어시골랏저	어미새끼가 같아졌다	親子 同 大
언된피	선지	血餅
엄	엄이	牙
엄지=어시	어미	親
엉둥폐기	엉덩관	臀部
여닭	소의여덟살	牛ノ八歲
여닭부사리	어덟살 먹은 불까지 않은 소	去勢 八勢牛
여닭쇠	여덟살먹은 소	八歲牛
여슴	소의여섯살	牛ノ六歲
여슴부랭이	여섯살먹은 수소	六歲ノ牡牛
여슴쇠	여섯살먹은 소	六勢牛
앵게	연계(軟鷄)	若鷄
오망오망	올망졸망	小動物ノ集 狀
외갈비=짜갈비	돼지의 胸椎를 包함치 않은 肋骨部	豚肉分割ノ際ノ一片
외계=외계독	오계(烏鷄)	鷄ノ一品種
외부구리	황색부구리	蝸ノ一種
우매=웅매	수말, 웅마 (자마-즈매)	雄馬
월라물=올마물	워랏말	斑馬

제주어	표준어	일어
유마	갈색말	褐色馬
이수매	두살먹은말	二歲馬
일곱	소의일곱살	牛ノ七歲
일곱부사리	일곱살 먹은 불까지 않은 소	去勢セザル七歲牛
일곱쇠	일곱살 먹은 소	七歲牛
일튼	돼지허리	豚ノ腰椎部
입바위	입술	唇
올아몰=올라몰	위랏말	斑馬
자리	배	孵化セル雛ノ一群
짜갈비=외갈비	돼지의 胸椎를 包습치 않은 肋骨部	豚肉分割ノ際ノ一片
장독=수독	수탉(암탉-암퇘)	雄鳩
차리다	굽씩다	獸ノ四脚ヲ括ル
저린내	전내	油氣ノ多イ肉ガ 長クナッタ臭
적다몰	적다마(赤多馬), 곁다마	赤色馬
전각(前脚)	짐승의 앞다리	畜類ノ前肢
접	주걱뼈	肩胛骨
접뺨뿔	牛의 橫向長角	牛角ノ一型
접짜뼈	牛, 豚의 頸部及肩胛部	牛豚肉分割ノ際ノ一片
접지다	앞다리가 뼈여지다	前脚ズ脱臼スル

제주어	표준어	일어
접진거	앞다리 빼어진 病身牛馬	前脚脱白セル片端牛馬
정(술랑)	목장문	牧場ノ門
제노린쇠	담황우	淡黄色牛
제노린어럭쇠	담황과 白의 斑牛	淡黄ト白トノ斑牛
제마	준마	駿馬
젯	젯	乳, 乳房
젯가르다	젯떼다	離乳スル
젯고고리	젯꼭지	乳頭
결갈비	결가리	浮肋骨
족바리	躑行의 病身牛馬	躑行ノ片端ノ牛馬
중성기	악대소	去勢牛
중승	짐승	獸
지시랭이(北部語)	둘암컷	子ノ産メヌ牝
지시랭이(南部語)	둘암컷	子ノ産メヌ牝
진독=진둑	진드기	蠅 (扁型, 丸型은 「부구리」)
질들다	길들다	馴レル
질루다=질으다	길르다, 기르다, 가꾸다	育テル
즈매	암말, 자마(웅마-웅매)	牝馬
줄유마	자류마(紫驪馬), 율다말	髦ガ黒イ赤馬
창기=창지=베설	창자	腸
챗끈	챗열	鞭紐

제주어	표준어	일어
체다	짜다	解剖スル
초적다	공골말	淡赤色馬
출	꼴	秣
출꾼=출놈	꼴꾼	秣刈リ(人)
출눌	꼴더미	秣積
출새김	새김질	反芻
총아락쇠	총아락소	尾白色ノ牛
추가라	다갈색긴 검은말	帶茶褐ノ黑色馬
축(담)	중부	石壁
충지=꼴리=꼴랑지 =꼴랭이	꼬리	尾
코간전몰	콧줄이 흰말	鼻條ガ白イ馬
굽=굽	쇠기름	牛脂
크커리먹었다	죄다먹었다 (畜類에 씌)	全部食ツタ(畜類言)
태상백이=멘백이	별박이, 적로와	顔ニ白斑ノアル牛馬
테=본대기=무레	떼, 무리	群
통쉬	변소겸한돼지우리	便所兼豚舎
튀가=튀ㅎ다	되다	屠殺後脫毛スル
턱잘래기	前髦없는 병신소	前髦ノナイ片端牛
피쟁이=백쟁이	백장	屠殺人
피창	순대	腸詰
피치가죽	동물의표피	動物ノ表皮

제주어	표준어	일어
하동이	곰배말, 곰배소	脊ノ凹入セル片 端ノ牛馬
함	함우	ベラボウ(篋棒)
함박살	구녕살	牛ノ臀肉
호달매(胡達馬)	큰말(濟馬에 對해서)	改良馬
황쇠=너린쇠	황우	黃牛
후각(後脚)	짐승의 뒷다리	畜類ノ後肢
후위- = 호우- = 시-	휘이, 쉬이	ホー(鷄等ヲ逐フ聲)
흰늘(南部語)	흰자	卵白
흰알(北部語)	흰자	卵白



## 海産關係의 濟州語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가시리	우무가사리	テングサ
강회	회(膾, 加水치 않은 것이고, 濟州語로 「회」라면 加水한 것)	刺身
개오리=홍에	가오리, 홍어(洪魚)	ガンギエイ
갯갓이=갯갓디 =갯동발디-갯벌	거루	ハシケ(舁)
갱이(南部語) =깡이(北部語)	게	蟹
고등에	고등어	鯖
피기낙근다	고기잡는다	魚ヲ釣ル
피기낙금	고기잡이	魚釣
피기술	낚싯줄, 낚시질연장	釣糸, 釣道具
피깃배	고기잡이배	漁船
구생이(北部語) =아우생이, 어우생이(南部語)	아가미, 아감지	鰓
구제기=구쟁기 =고동(東部)	소라	サザエ(榮螺)
깡이(北部語) =갱이(南部語)	게	蟹

제주어	표준어	일어
굴매똥	오징어뼈	烏賊ノ骨
꺇	물가	汀
낙금질	고기잡이	魚釣リ
낙시아리=아리	낙시달린 끝줄	釣針ヲ附スル先ノ釣絲
낙시알=비닐	미늘	モドリ(戻)
넙페(北部語)	—	磯毛(海藻)
=괘(南部語)		
네=네위=네윗대	노, 돛대	櫓
네위질	노질	漕櫓
네윗대=네위=네	노, 돛대	櫓
노을=늘	폭풍	暴風
눈	물안경	海女ノ水眼鏡
낙겁=낙겁	미끼, 고기밥	魚ノ餌
늘개	지느러미	鰭
딱살	딱지	貝殻
닷	뱃줄	船ノ紐
대엽(조갱이)	대합(大蛤)	ハマグリ
떠댕긴다	떠다니다	漂流スル
덕	낙시터	釣場
독갱이	회오리바람	颶風
=돛괘이(주체)(北部語)		
돌갱이주체(南部語)	회오리바람	颶風
돔=돛치	도미	鯛

제주어	표준어	일어
돔배	도마	眞魚板
돛꿩이(주제) =독갱이(北部語) =돌갱이주제(北部語)	회오리바람	颶風
돛대배	범선(帆船)	帆船
동치=돔	도미	鯛
뒤영박=퇴악=퇴왓	뒤옹박	海女用ノバカヂ
망시리	그물테	海女ノ網粹
매홍이	고둥	法螺貝
맷돌=먹돌	물가에 있는 돌멩이	海岸又ハ河岸ノ石
먹보말=좁보말=좁ㄱ매기	바다우렁이	螺
멘태	명태, 북어	明太魚
멜	멸치	鰯魚
모살조개	조개	蜆
무낭=무이낭	흑산호	黑珊瑚
문계(北部語), 무꾸럭 =물꾸럭	문어	蛸
물꾸럭(南部語)	문어	蛸
물씨	걸리는 것	餌附
물이실	해파리	水母
물절=절	물결, 해일(海溢)	波, 海嘯
물창	물밑	水ノ底
미=해삼	해삼(海蔘)	海鼠

제주어	표준어	일어
물른조기	굴비	石首魚ノ干物
물망=물뭉이	마름	ホンダワラ(大型不食)
뭉	마름	ホンダワラ(小型食用)
바당	바다	海
바다생이	바다새	海鳥
바룻	해산물	海産物
바룻배	낚시거루	漁船
바룻잡으러간다	해산물잡으러간다	海産物採リニ行ク
바룻칠	고기잡이(船使用한)	魚釣
밥게	갯강구	船蟲
배창	뱃밑	船底
배	배	船
뱃바위	뱃전	船縁
보건치	조기	石首魚
보재기	어부	漁夫
복쟁이	복	河豚
봣	알주머니	卵囊
뽄게=뽄기	고기깃, 고기밥	撒餌
붕에=장이	뱀장어, 장어(長魚)	鰻
뽄기=뽄게	고기깃, 고기밥	撒餌
비늘=낙시알	미늘	モドリ(戻)
사들질	후림질	大網デ漁ルコト
사옹때	상앗대	舟ノ竿

제주어	표준어	일어
산군	해녀두목	海女ノ頭目
상어	상어	鮫
새위	새우	蝦
생채	생짜	生
생성(北部語)	오도미	甘鯛
=옷도미, 솔나리(南部語)		
소곰ㅎ다	소금치다	鹽ヲカケル
소살	작살	魚採ル槍
솔나리=옷도미(南部語)	오도미	甘鯛
=생성(北部語)		
술때	주대	釣糸ト釣竿
술레미	가자미	比目魚
아우생이	아가미, 아감지	鰓
=어우생이(南部語)		
=구생이(北部語)		
옷도미=솔나리(南部語)	옥돔	甘鯛
=생성(北部語)		
우미	우무	寒天
아까리	닻	錨
이엿싸	이어차	ヨイシヨ
장이=붕에	뱀장어, 장어(長魚)	鰻
자리	자리돔	カジキリ(スズメダヒ)
절=물절	물결, 해일(海溢)	波, 海嘯

제주어	표준어	일어
조각이=조개 =조개기(南部語) =조갱이(北部語)	자개있는 동물, 전복, 조가비	貝類, 鮑, 貝殼
조개집죽=조갱이거죽	자개, 강요자	貝殼, 腹殼
조갱이거죽=조개집죽	자개, 강요자	貝類, 鮑殼
조왕구물	쟁이	投網
주낫질	배타고 하는 낚시질	船ニ乗ッテスル漁法ノ一
잠녀=잠수	잠수	海女, 潛水夫
잠수질	무자막질	潛水作業
치	키	舵
춘물	바닷물	海水
출리(接尾語)	마리	魚類等ノ匹數
출물	짠물	鹹水
춤매기=춤보말=먹보말	바다우렁이	螺
춤때	낚싯때	釣竿
춤보말=먹보말=춤매기	바다우렁이	螺
퇴악=퇴악=뒤영박	뒤옹박	海女用ノバガチ
패(南部語)	—(北部語—넙페)	磯毛(靑黑色ノ海藻)
해슴=미	해삼(海蔘)	海鼠
홍에=개오리	홍어(洪魚), 가오리	ガンギエイ
훈뭇	훈뭇	魚一束

## 漢字의 濟州名

제주어	표준어	한자
가를별	다를별	別
갑풀피	갓불피	疲
것물	만물물	物
곡갈관	갓관	冠
고로화	화활화	和
고칠경	다시갱, 고칠갱	更
고칠공	꽃을공	拱
골도	도읍도	都
곰배정	장정정, 고무래정	丁
곶직	곶죽	卽
곶칙	곶촉	則
꽃타울향	향기향	馨
괴일총	고일총	寵
괴척	피책	策
구미공	구멍공	孔
퀸당척	겨레척	戚
귀관	벼슬관	官
귀티감	구테감	敢
그얼물(北部語)	글월문	文
=글홀문(南部語)		
글얼장(北部語)	글장장	章

제주어	표준어	한자
=글홀장(南部語)		
글제=글즈=글쯔즈	글짜자	字
글즈	글짜자	字
글쯔즈	글짜자	字
글홀문(南部語)	글월문	文
=글얼문(北部語)		
글홀장(南部語)	글장장	章
=글얼장(北部語)		
글홀적	호적적	籍
끝릴탕	끓을탕	湯
기리에	기릴예	譽
ㄴ를왈(北部語)	갈왈	曰
=굴왈(南部語)		
ㄴ림하	물하	河
굴일택	가릴택	擇
굴왈(南部語)	갈왈 말씀왈	曰
=ㄴ를왈(北部語)		
곰출장	감출장	藏
굴을스	갈을사	似
나무피	나무비	枇
나무수	나무수	樹
너불홍	넓을홍	洪
넥스	넥사	四



제주어	표준어	한자
널어	늘어	於
놈즈	놈자	者
누기숙	누구숙	孰
누에좁	누에잠	蠶
누이즈	누이자	姉
느레상	뗏뗏상	常
느릴상=놀상	날개상	翔
느물채	나물채	菜
늘등	날등	騰
놀상=느릴상	날개상	翔
다홀제	건널제	濟
당길행=열행	갈행, 다닐행	行
때후	때구	垢
더을가	가할가	加
더을익	더할익	益
덧을복	엿드릴복	伏
데수데	역대대	代
떼다글선(北部語) =되다글선(南部語)	터닥을선	禪
도모지총	다총	總
돈회	돌해	亥
돌갈	돌갈	碣
되윤	되융	戎

제주어	표준어	한자
두테신	자지신, 콩팥신	腎
드실은	따뜻할은	溫
들상	아가위당	棠
들현	달현	懸
말렬이(北部語)	말이이	而
말리을이(南部語)	말이이	而
말불	아닐불	弗
말심스	말씀사	辭
말을스	말을사	司
멕귀	등구미귀	黃
모양즈	모양자	姿
모용옥	목욕옥	浴
무늬갈퇴	물러갈퇴	退
무릎실	무릎슬	膝
문들염	물들염	染
문을매	문을매	埋
밀취	밀추	推
ㄹ질결	맺을결	結
믈곤	말곤	昆
믈백	만백	伯
믈침경	마침경	竟
믈침중	마침중	終
바외	밖외	外

제주어	표준어	한자
반들필	반듯필	必
밭를위	버릴위	委
배울혹	배울학	學
빽빽홀밀	빽빽할밀	密
버를열	벌열	列
버릴라	벌라	羅
버릴숨	나무빽들어설삼	森
버풀밭	필밭	發
버풀선	베풀선	宣
범장여	범측려	呂
범장을	범측률	律
베실스(北部語)	벼슬사	仕
베슬사(南部語)	벼슬사	仕
보를이	밧을리	履
부루운	윤달운	閏
부릴스=쓸스	하여금사, 쓸사	使
부패실(北部語)	피파슬	瑟
빈솔	거느릴솔	紫
빛냥=헛냥	별양	陽
뜰를친	밧을친	踐
사내(北部語)	이에내	乃
=산내(南部語)		
사무살달	사무칠달	達

제주어	표준어	한자
사숫물수	물까수	洙
삭다리초	나무할초	樵
산내(南部語) =사내(北部語)	이에내	乃
새일곡	삭일각	刻
생각스	생각사	思
서느르울청(南部語) =식을청(北部語)	서늘청	清
선비스	선비사	士
성성	성품성	性
소동소	글소	疏
쇠급종(南部語)	쇠북종	鍾
쇠봉종(北部語)	쇠북종	鍾
수르튼곡	수레곡	轂
수푸림	수풀림	林
슬플척	슬플측	側
쓸스=부릴스	쓸사, 하여금사	使
시니불네	힘입을퇴	賴
시승스	스승사	師
씨집씨	시집시	媿
식식홀엄	엄할엄	嚴
식을청(北部語) =서느를울청(南部語)	서늘청	清

제주어	표준어	한자
신내신	신하신	臣
실홀비	슬플비	悲
실홀어	싫을어	飢
썰스	실사	絲
심을예	재조예	藝
스랑즈	사랑자	慈
아들남	사나이남	男
아들즈	아들자	子
아이으	아이아, 아해아	兒
아이제	아우제	弟
아질좌	앉을좌	坐
어두울만	늦일만	晚
어질선	①어질현	賢
	②착할선	善
열연	연할련	連
열행=당길행	갈행, 단길행	行
염고	염소고	羔
예דות네	예도례	禮
오를게	섬돌게	階
완장완	성완	玩
외여니	오얏리	李
외일좌	왼좌	左
올러릴앙	우릴앙	仰

제주어	표준어	한자
울멍	울멍	鳴
으뜸패	으뜸패	霸
이글독	읽을독	讀
이르숙	이를숙	夙
이스	이사	斯
익힐십	익힐습	習
일스	섬길사, 일사	事
임주	임금주	主
입게야(北部語)	이끼야	也
=잇게야(南部語)		
입게언(北部語)	이끼언	焉
=잇게언(南部語)		
입게재(北部語)	이끼재	哉
=잇게재(南部語)		
잇게야(南部語)	이끼야	也
잇게언(南部語)	이끼언	焉
잇게재(南部語)	이끼재	哉
자랑극	자랑궁	衿
쟁길림	임할림	臨
쟁길잠	잠길잠	潛
절틀단	짧을단	短
접엇신갓머리	민갓머리	一
정월정	바를정	正

제주어	표준어	한자
제기제	재조재	才
제화화	재앙화	禍
조칠종	쫓을종	從
좃칠존	쫓을준	遵
쫓칠수	쫓을추	逐
졸호	조홀호	好
죽을스	죽을사	死
지울츄	기울츄	旣
지일찬	기릴찬	讚
직글열	기쁠열	悅
질그릇도	질그릇도	陶
집기	집기	綺
집환	김환	紈
징홀징	증할증	證
즈못태	위태할태	殆
즈방변	재방변	才
찰를장	씩씩할장	莊
착빚김	책바침	訖
칙칙	칙서칙	勅
출냉	찰냉	冷
출영	찰영	盈
출한	찰한	寒
출함	찰함	醜

제주어	표준어	한자
칼검	칼검	劍
탕국탕	나라당	唐
퇴다글선(南部語) =떼다글선(北部語)	터다글선	潭
트망	터망	邨
평할평	평할평	平
푸릴남	쪽남	藍
할다	많을다	多
헝기희	복희희	羲
헛냥=빛냥	별양	陽
홀독	홀로독	獨
훈일	한일	一



## 濟州島의 洞里名

속칭	한자명	한글명
가는꽃	舊左面細花里	구좌면세화리
가는새	濟州邑回泉里細泉洞	제주읍회천리세천동
가마귀믄루	南元面下禮里	남원면하례리
가문질	翰林面月令里	한림면월령리
가물개	城山面新山里	성산면신산리
가소름=가시오름	表善面加時里	표선면가시리
가시나물	濟州邑寧坪里	제주읍영평리
가시낭봉오지	舊左面松堂里加時木洞	구좌면송당리가시목동
가시오름=가소름	表善面加時里	표선면가시리
간드락	濟州邑我羅里看月洞	제주읍아라리간월동
거루	濟州邑巨老洞	제주읍거노동
거문질	安德面沙鷄里	안덕면사계리
건곤자리	安德面西廣里乾坤洞	안덕면서광리건곤동
걸머리	濟州邑我羅里一部	제주읍아라리일부
검은데기	涯月面今德里	애월면금덕리
검은오름	翰林面今岳里	한림면금악리
고쇠	涯月面高內里	애월면고내리
고분다리	朝天面臥屹里山側一部	조천면와흘리산측일부
곽귀덕	涯月面郭支里	애월면곽지리
	및 翰林面歸德里	한림면귀덕리

속칭	한자명	한글명
	(兩里가 거의 連結되었음)	
관앞	涯月面納邑里	애월면납읍리
관청이	①涯月面光令里	애월면광령리
	②安德面西廣里	안덕면서광리
괴	舊左面漢東里	구좌면한동리
괴병대	舊左面漢東里及坪垵里	구좌면한동리급평대리
괴성	城山面古城里	성산면고성리
괴습뜰	翰林面明月里古林洞	한림면명월리고림동
구령뜰	表善面城邑里九龍洞	표선면성읍리구룡동
구석밭	大靜面九億里	대정면구억리
귀리	涯月面上貴里及下貴里	애월면상귀리및하귀리
그등에	城山面新川里	성산면신천리
굴막	舊左面東福里	구좌면동복리
난더리	中文面下貌里二區	중문면하예리이구
난미	城山面蘭山里	성산면난산리
날레	大靜面日果里	대정면일과리
내뜰	中文面江汀里 一部	중문면강정리 일부
넛계=넛끼	城山面 新禮豐里	성산면 신예풍리
넛끼	城山面新豐里	성산면신풍리
너분드르	濟州邑老衡里 一部	제주읍노형리 일부
너분밭	翰林面東明里一部	한림면동명리일부
넉시오름	南元面永貴里南山魂獅岳	남원면영귀리남산혼사악
넉개	翰林面板浦里	한림면판포리

속칭	한자명	한글명
논각	大靜面新桃里水田尾洞	대정면신도리수전미동
눈미	朝天面臥山里	조천면와산리
니지리	翰林面上明里	한림면상명리
다위	濟州邑道頭里多好洞	제주읍도두리다호동
닥무루	翰林面楮旨岳	한림면저지악
닥물오름	翰林面楮旨岳	한림면저지악
더디오름동네	中文面上貌里二區	중문면상예리이구
더럭	涯月面上加及下加里	애월면상가급하가리
덕지물	濟州邑梨湖里德池洞	제주읍이호리덕지동
떼미	南元面爲美里	남원면위미리
도그내	濟州邑內都里及外都里	제주읍내도리및외도리
도남니	濟州邑道南里	제주읍도남리
도래물	中文面廻水里	중문면회수리
도려	舊左面上道里	구좌면상도리
도원	大靜面新桃里一部	대정면신도리일부
독계	翰林面瓮浦里	한림면웅포리
돈오름	表善面細花里	표선면세화리
돌드르	西歸面吐坪里	서귀면토평리
돌숭이	中文面道順里	중문면도순리
돌연들	濟州邑道連里	제주읍도련리
동도노미	濟州邑吾羅里井實洞	제주읍오라리정실동
두미	翰林面頭毛里及新昌里	한림면두모리및신창리
똥계	大靜面新桃里一部	대정면신도리일부

속칭	한자명	한글명
뒷개	朝天面北村里	조천면북촌리
드른돌	濟州邑三陽里	제주읍삼양리
들렁귀	登瀛邱 (瀛邱는 濟州邑名所)	등영구
드락곳	濟州邑月坪里	제주읍월평리
드랑곳	濟州邑老衡里一部	제주읍노형리일부
드리	朝天面橋來里	조천면교래리
드리손당	朝天面橋來里 及舊左面松堂里	조천면교래리 및구좌면송당리
돌가기	涯月面月角伊	애월면월각이
돌뺩디	中文面月坪里	중문면월평리
막가름	翰林面楮旨里南洞	한림면저지리남동
멜개	大靜面鰯浦洞	대정면약포동
멍이동	翰林面楮旨里明理洞	한림면저지리명리동
모록밭	安德面上川里	안덕면상천리
모살왓하르	濟州邑吾羅里沙坪洞	제주읍오라리사평동
모슬개	大靜面慕瑟浦	대정면모슬포
몰래몰	濟州邑道頭里沙水洞	제주읍도두리사수동
무두내	濟州邑龍崗里	제주읍용강리
무둥이왓	安德面東廣里	안덕면동광리
무래	南元面水望里	남원면수망리
무주에	舊左面月汀里	구좌면월정리
묵굴	翰林面楮旨里水洞	한림면저지리수동

속칭	한자명	한글명
문덕개	安德面門德	안덕면문덕
문섬	西歸面蚊島	서귀면문도
물또앗	表善面水道里	표선면수도리
물미	①城山面水山里 ②涯月面水山里	성산면수산리 애월면수산리
물오름	南元面水岳	남원면수악
믄름	濟州邑老衡里一部	제주읍노형리일부
물랑소	西歸面大畚附近藻淵	서귀면대답부근조연
방이리	濟州邑老衡里 一部	제주읍노형리 일부
벌레낭=벌목리	西歸面甫木里	서귀면보목리
벌목리	西歸面甫木里	서귀면보목리
법환이	西歸面法還里	서귀면법환리
베랭이	翰林面金陵里	한림면금릉리
벨방(別防)	舊左面下道里	구좌면하도리
별또(別刀)	濟州邑禾北里	제주읍화북리
병두친밭	南元面坪垆陳田 一名 平垆源田	남원면평대진전 일명 평대원전
병디	①濟州邑都坪里 ②舊左面坪垆里	제주읍도평리 구좌면평대리
봉아오름	濟州邑奉蓋里	제주읍봉개리
부등개	南元面漢南里	남원면한남리
봣내	安德面和順里	안덕면화순리
사기소	大靜面武陵里坐起洞	대정면무릉리좌기동

속칭	한자명	한글명
산지물	濟州邑城內	제주읍성내
삼밭구석	安德面西廣里麻田洞	안덕면서광리마전동
상춘미	表善面上川里	표선면상천리
새당	安德面德修里	안덕면덕수리
새베리	濟州邑老衡里 一部	제주읍노형리 일부
색다리	中文面穡達里	중문면색달리
서구면	西歸面	서귀면
서구포	西歸面	서귀면
서도노미	涯月面於道里	애월면어도리
서치마루	中文面瀛南里	중문면영남리
선들	翰林面大林里	한림면대림리
섬섬	西歸面森島	서귀면삼도
섬지	翰林面狹才里	한림면협재리
성널오름	朝天, 南元面境 城板岳	조천, 남원면경 성판악
세꿀	翰林面楮旨里中洞	한림면저지리중동
세미	①濟州邑回泉里 ②大靜面東日里	제주읍회천리 대정면동일리
소섬	舊左面牛島	구좌면우도
속밭	城板岳西側高原石坡	성판악서측고원석파
손당	舊左面松堂里	구좌면송당리
쇠길	涯月面召吉里	애월면소길리
쇠돈(牛屯)	西歸面上, 下, 新孝里	서귀면상, 하, 신희리

속칭	한자명	한글명
섬뜰	城山面始興里	성산면시흥리
솔오름	西歸面米岳	서귀면미악
안자름	表善面加時里 一部	표선면가시리 일부
안카름	西歸面西烘里	서귀면서흥리
양근이	西歸面陽近洞	서귀면양근동
어등개(魚登浦, 於等浦)	舊左面杏源里	구좌면행원리
어름비	涯月面於音里	애월면어음리
엄수개	翰林面今騰里	한림면금등리
엄쟁이	涯月面新, 舊巖里	애월면신, 구엄리
여우내	南元面新興里	남원면신흥리
연동	濟州邑蓮洞里	제주읍연동리
연자골	濟州面鷺子洞	제주면연자동
열룬이	城山面溫平里	성산면온평리
영낙	大靜面永樂里	대정면영락리
예촌	南元面新禮里	남원면신예리
옛개	朝天面新興里	조천면신흥리
오도룽	濟里邑梨湖里 吾道洞	제리읍이호리오도동
오름새끼	舊左面德泉里	구좌면덕천리
옥기	南元面衣貴里	남원면의귀리
울릉래기	舊左面女川洞	구좌면여천동
울리소	表善, 南元面境	표선, 남원면경
	松川橋下鴨淵	송천교하압연
와강이	城山面三達里	성산면삼달리

속칭	한자명	한글명
용못	翰林面龍水里	한림면용수리
웃날레	大靜面新坪里	대정면신평리
이승이	濟州邑海安里	제주읍해안리
인다리	濟州邑我羅里仁多洞	제주읍아라리인다동
인향이	大靜面武陵里仁鄉洞	대정면무릉리인향동
장밭	涯月邑長田里	애월읍장전리
정이꽃(旌義)	旌義面城邑里	정의면성읍리
조가의외	安德面造水里	안덕면조수리
조숫물	翰林面造水里	한림면조수리
종ㄴ슬	翰林面上大里	한림면상대리
종다리	舊左面終達里	구좌면종달리
중보기왓	中文面江汀里一部	중문면강정리일부
죽성고다시	濟州邑梧登里	제주읍오등리
지구섬	南元面地歸島	남원면지귀도
지새포	翰林面龍水里瓦浦	한림면용수리와포
직세	南元面直舍洞	남원면직사동
짐녕	舊左面金寧里	구좌면짐녕리
징근	翰林面東明里一部	한림면동명리일부
즈물캐	翰林面洙源里	한림면수원리
차귀	翰林面高山里	한림면고산리
차귀섬	翰林面遮歸島	한림면차귀도
창고내	安德面遮歸島	안덕면차귀도
청산	安德面倉川里	안덕면창천리



속칭	한자명	한글명
청수물	翰林面清水里	한림면청수리
추제도	楸子島	추자도
큰개	中文面大浦里	중문면대포리
표선이	表善里	표선리
풀개	南元面泰興里	남원면태흥리
하늘오름	朝天面下栗里	조천면하올리
하니꼴	翰林面楮旨里北洞	한림면저지리북동
하춘미	表善面下川里	표선면하천리
한습풀	翰林里	한림리
함박이굴	濟州邑老衡里一部	제주읍노형리일부
허더귀	南元面水岳洞	남원면수악동
호구물	西歸面西好里 及 好近里(連結됨)	서귀면서호리 및 호근리(연결됨)
홍리	西歸面東烘里	서귀면동홍리
활오름	中文面江汀里弓山洞	중문면강정리궁산동
황바두리	涯月面古城里	애월면고성리
흑불근오름	濟州, 朝天, 南元境 土赤岳	제주, 조천 남원경 토적악

이상을 보면 제주도 지명에는 가시(加時), 개(浦), 내(川), 오름(岳)들이 많이 들어 있음을 알겠고 또 틱음으로 시작되는 지명은 없고 몽고식의 지명이 많은 것도 알겠다.

## 濟州島方言中の 朝鮮古語

제주어, 고어, 현대표준어의 순으로 기록하겠는데, 고어란에 「一」로 표한 것은 제주어와 전동(全同)한 것을 의미하고, 다소라도 상이한 것은 고어대로 기록하여 비교하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ㄴ」表는 「同上」의 뜻이다.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가라몰	—	검은말
가로기=골르기	굴오기	쌍둥이
가시아방	가시	장인(丈人)
간죽대	간죽(間竹, 簡竹, 竿竹)	오죽(烏竹)
갈치	갈(刀)	칼치
갑풀	갓블, 갓썰	아교
강올따	—르다(語尾)	갓다오겠느냐
거두운다	거두워(收)	거두다
개염지	개염이	개미
게우	게오리, 거유	거위
게우리	거위	지렁이
게워	게오리, 거유	거위
고깔관	곶갈(冠)	고깔
고고리	—	이삭
고들개	고들개	깅거리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고라몰	—	회색말
고롬똥	—	곱똥
고장	곶	곶
꼭뒤	—	꼭 뒤
골이	골회	고리(環)
곰배	곰비	흙방망이
곰	—	쇠기름
곰새등	곰(曲)	곰새등이, 등곰장이
괴	—(猫)	고양이
괴기	—	고기
괴우다	괴오다(支)	고이다
구렁적다	구렁몰	붉은말
구져다	—	나쁘다
구진것	구즌(惡)	나쁜 것
구진내	구즌(惡)	군내
구진물	구즌(惡)	구정물
구진물단지	구즌(惡)	개숫물그릇
구진사발	구즌(惡)	상사발
긱다	—	언짱다, 좋지않다
퀸당	권당(戚)	친척
귀껏	궂껏	귀신, 잡귀(雜鬼)
귀관	구의관	벼슬관(官)
귀마리	귀머리	복사뼈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귀티여	귀티여	구태여
그디	—(그대의뜻)	거기(其處)
그레기	그려기	기러기
그르메	—	그림자
그르	그르(株 ; 그루)	그루
끄스다	끄스다	꼴다
ㄹ늘다	ㄹ늘다	가늘다
ㄹ대	꺠(蘆)	갈대
ㄹ득	—	그득
ㄹ라뵤사	ㄹ르디(日)	말쭙하십시오
ㄹ래	—	맷돌, 매
ㄹ로	ㄹ르(橫)	가로
ㄹ루	ㄹ르(粉)	가루
ㄹ르사되	ㄹ르사디	가라사대
ㄹ리치다	ㄹ르치다	가르치다
ㄹ림히	ㄹ름	강(江)
ㄹ물다	ㄹ물다	가물다
ㄹ세	ㄹ새	가위
ㄹ슬	ㄹ술	추수
ㄹ슴	ㄹ슴	가음, 감
ㄹ을	ㄹ을	가을
ㄹ장	—	가장
ㄹ지	—	까지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굴다	—	갈다(代, 研)
굴루기	갈오기	쌍둥이
굴매기	굴며기	갈매기
굴왈	—	갈왈(田)
꺾	—	물가
꺾뚝	꺾득	그뚝
굴으다	꺾타다, 꺾흐다	갈다
나(語尾)	—	다(語尾)
남넉거리	남넉	남쪽
남초(南草)	—	담배
납해치	납(猿)	申(猿)년에 난 사람
너분	너븐	넓은
너삼	—	도둑놈의 지팡이
너출	—	덩굴
넉스	—	넉사(四)
네기다	너기다	여기다
노을	—(霞)	폭풍(暴風)
놀에	—	노래
놉셋브름	놉새	東北風
눈뚜께	눈두에	눈꺼질
눈비애기쿨	눈비앗	암눈비앗(益母草)
니	—	이(齒)
넙초	넙(葉)	엽초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느누다	눈호다	나누다
느라가다	—	날아가다
느리다	—	내리다
느물	느물	채소
느물밭	느물밭(畹)	채전(菜田)
느직이	느죽호(低)	나직이
날	—	날
날개	—	날개
날다	—	날다
낮	—	낮
다려가다	—	데려가다
다리	—	사닥다리
다리외	다리우리	다리미
다습	다습	계(繼)
따	싸	땅
더을가	—	가할가(加)
더을익	—	더할익(益)
덕	—	언덕
덜	덜	들(等)
도꾸마리	돛고마리	도투마리
돋	—	꽤지
돋치	도치	도끼
동곳	—	비녀, 비나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동넉거리	동녝	동쪽
두둑	두뚝	둑
두테비	두터비	두꺼비
뒤	—	띠(뻘기, 茅)
드르	—	들(野)
등지	등즈(鎧子)	방사오리
드라미	—	박쥐
드라젓다	드라(懸)	달려있다
드레낭	드래	다래나무
드리	—	다리
드시다	드스다	따뜻하다
드투다	드토다	다투다
쁘로	쁘로	따루
쁘리다	쁘리다	때리다
둑	뚝	닭
둑새기	계자(鷄子)	달걀(鷄卵)
든술	—	감주, 식혜
들다	—	달다
덜	—	달
들리	들외	달래
들린다	들니다(馳)	달린다
덜뽕이	덜팡이	달팽이
딸	딸, 딸	딸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달른다	쫄을(迫)	따른다
땀	땀	땀
땀때기	땀되야기	땀띠
링금	림금, 닝금	사과
마	—	장마
마리	—	마루
마브롬	브롬(風)	남풍(南風)
먹언다	ㄴ다(語尾)	먹었느냐
멀위	—	머루
멩마구리	머구리(鞋)	멩꽂이
명질	명실	명절
모로기	모르다(不知)	병어리
몬지	—	먼지
몰루쿠다	몰름(不知)	모릅니다
무스것	—	무엇
무시	무스	무슨
물긏	물긏	물까
미다	미다	밋다, 미워하다
므딤	므딤	마디
므루	므룩	마루
므르다	—	마르다(乾, 裁)
므쉬	므쇼	마소(牛馬)
므을	므을	마을(村)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므음	—	마음
므친다	므춤(終)	마치다
믄진다	—	만진다
믈	—	말, 가장
믈	—	말
믈망	믈, 물뱀	마름(藻)
믈채	—	말채찍
믈다	—	맑다
믈야지	므야지	망야지
바당	바탕	바다
바위	바회	테, 선시울
바치	—	아치(人)
반초	반초	과초
밧끌	밧(外)	바깥채
밧자리	밧(外)	웃목
밧잠지	밧(外)	불기
방울	—	방울
배울혹	비흘혹	배울학(學)
백번	복뻬	백반
버금	—	다음
버섯	—	버섯
벼룩	벼룩	벼룩
베리	(베루)	벼루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베염	벼얌, 비얌(蛇)	뱀
보미	—	녹, 동록
보선	—	버선
부루	—	상치
부짓뎡이	부지대	부지깽이
북넉거리	북넉	북쪽
불휘	—	뿌리
비끼다	빗기(橫)	비키다
비리	—	옴, 비루
빼다	빼싸다, 빼타	씨뿌리다
벼름	벼름(風)	바람
벼스다	벼스다(碎)	바스러뜨리다
빠르다	쌌르다	빠르다
빨리	썰리	빨리
밝다	—	밝다
첩다	첩다	밝다
빠·스는다	붓다	뿜다
사롬=사름	스롬, 사름	사람
삭다리	—	삭정이(枯枝)
산태	산태	삼태기, 들 것
새삼	새삼	마
새위	새요	새우
서넉거리	서넉	서쪽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석	석	끈
소로기	—	솔개
쇠	쇼	소(牛)
술리	술위	수레
숫	숫	웃(웃노리의)
씨앗	식앗	첩(妾)
썰스	실스	실사(系)
심방	—	무당
스내	—	사내, 사나이
스당	—	사당
스라분다	슬아(燒)	살라버린다
스랑	—(思, 憶, 隣)	사랑
스래기	—	싸라기
스못	스못	아주
스양	—	사양
스오일	—	사오일(四五日)
스이	—	사이(間)
스장(師長)	스(師)	선생(先生)
스환	슴(使)	사환(使喚)
솔	—	살
솔(接尾語)	설	살(歲)
솔피다	—	살핀다
쌀	밭	쌀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숯다	숯다	삶다
습	—	삼
습지다	습쩌다	삼키다
삿기	삿기	새끼(繩)
아들	—	아들
아바님	—	아버님
아사오라	—	가져오라
아시	아스	아우, 동생
아이으	아히으	아이아, 아해아(兒)
양에	양힛양(囊)	양하(囊荷)
어욱	어욱새	억새
엄	—	엄이(牙)
엇께	엇게	어깨
에비아들	어비아들	부자(父子)
여뒸	—	어뒸
여름	—	열매
여췌	여췌	예순
예반초	예(倭)	왜파초
오름	오름	피, 산
오좁	—	오좁
올리	올히	오리
왓	왓(畹)	밭(田)
외엿니	외엿니	오얏니(李)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용심내다	—	성내다
우방	우왕방(勞)	우엇
월라말	월아(花馬)	위라말
위연	위안(園)	덧밭
은근즈	은근짜	매음녀
이렁	이럼	이랑
이배	예배	왜배(倭船)
이신	이시니(있으니), 이시면(있으면)있는	
일스	일쯔	일사(事)
적다물	절짜물	적다마(赤多馬), 걸다
마		
제금	—	제각기
제오내오	—	제나내나
조금	조감(潮減)	조금
조지다	—	쪽지다
조스다=좏나 (啄)	좏다	①조다(刻), ②좏다
주시	즈희	찌끼
중승	중싱(衆生)	짐승
지계문	지계(窓)	창, 방문
지동	기동	기동
지새	—	기와
지새그릇	—	질그릇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지질	디질	치질
짓	①— ②웃짓	깃(羽) 깃(襟)
즈룩	즈룩	자루(柄)
즈세이	즈세, 즈서히	자세히
좁	—	잠
좁긴다	좁다	잠긴다
치	—	키(舵)
츠다	①— ②쁘다	차다(寒) 쯔다(鹹)
츠지흐다	—	차지하다
츠츠	—	차차
츄떡	츄떡	찰떡
츄	—	참
츄쌀	츄쌀	참쌀
코시	고시	고사(告祀)
코키리	코키리	코끼리(象)
톡	—	장해물
톡아리	톡(頤)	턱
팔즈	—	팔자(八字)
퍼렁흐다	퍼러흐다	퍼렇다
포리	—	파리
폴	—	팔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풀다	—	팔다
풀	푯	팔
하다	—	많다
하외욘	—	하품
한	—	많은
한이브름	하니	북풍(北風)
허물그르	하물	흙, 헌데자리
홀독	호을독	홀로독(獨)
훤훤다	—	환하다
휘조치나	—	급히쫓아내다
흐나	—	하나
흐다	—	하다
흐라	—	하라
흐를날	흐르(一日)	하룻날
훅	훅	훅
헌	—	한
헌일	—	한일(一)

이상은 대개 알려워져 있는 고어이지만 상기한바와 같은 고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어휘를 여기 다시 발기(拔記)한다. 편의를 생각해서 (표준어를) 부(附)한다.

가름(마을), 막다름(남동, 南洞), 거렸다(갈리어졌다), 거린다(갈린다), 거림(자개미), 고장정뱅이(고쟁이), ㄱ른다(말한다)

濟州語	古語	現代標準語
-----	----	-------

나(내), 너(네), 녀낫다(흔낫다), 녀시오름(地名), 낫사밭(바리), 눈다(쌓다), 둘(날가리, ㄷ미), 눈뽀(쌓는 곳).

마벼름(남풍), 막가름(남동), 동마벼름(동남풍).

빠디다=벼디다(가깝다), 벼디게(바투).

양살룬=양살운(사나운), 앓는다(갓는다), 입게야(이끼야).

하간것(여러가지), 하서(많아), 하영(많이), 한이=한이벼름(북풍), 하니꼴(북동).

이외에도 「ㄴ」음이 있는 어(語)는 대개가 고어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와같이 많은 고어와 「ㄴ」음이 잔존한 점으로 보아, 제주어는 조선어의 역사적 연구상 가장 가치있는 자료임을 알 수가 있겠다. 이 점은 고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924)씨도 벌써 지적하였다.

또 위의 고어집에서 특히 눈에 띄우는 점은 ㄱ자행의 고어가 특히 많다는 것이다. 이제 그 통계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68+7=75

ㄴ 26+8=34

ㄷ 39

ㄹ 1

ㅁ 28+3=31

ㅂ 31+3=34

ㅅ 34

ㅇ 28+3=32

ㅈ 19

ㅊ 8

ㅋ 2

ㅌ 2

ㅍ 6

ㅎ 15+6=21

---

計 307+31=338



## 外國語에서 由來한 濟州島方言

제주어, 몽고어, 표준어의 순으로 기록하였는데, 외국어란에 ‘—’로 표한 것은 제주어음과 전혀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다소라도 상이한 것은 외국어음을 그대로 기록하여 비교하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ㄴ’ 표는 ‘同上’의 뜻이다.

가. 몽고어와 관계있는 것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가라말	가라매리디, 하라모리	검은말
가마귀머림	머림(畜舍울타리)	鷄舍의 지붕그물
가마귀므루	뿔(洞里)	下禮里
가소름	蒙古式地名	加時里
가시낭봉오지	蒙古式地名	加時木洞
간드락	蒙古式地名	看月洞
간전이	간전이, 할잔모리	이마에 흰줄이 코까지 있는 말
간지	간즈	옷걸이
거울물	거울매러	밭목이 흰 말
건곤자리	蒙古式地名	乾坤洞
걸머리	걸모리	(洞里名)
쟁글랑쟁글랑	—	어슬렁어슬렁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고라몰	(馱驢 ; 버새), Kula, 후라모리	灰色馬
고지	—	밭이랑, 이랑
골	—	옛기름
광산광	광산광	의 그것으로
피엌시나	피엌시너	끓느냐
피우라	피엌시러바	끓이라
픽-픽-	—	꿀꿀
핀다	피엌시어다	끓다
구둑	—	먼지
구렁적다	구렁모리, 적다(驢의 1型)	붉은말
꿈본다	몽우지(夢見)	꿈꾼다
굿사라	굿사바	비켜라
궤광	궤광(事務室같은것)	광
궤되	궤도	뒷박
궤리	蒙古式地名	(洞里名)
궤마리	궤얼렁	복사뼈
궤양내다	궤양(喇嘛式經) 웃지(읽는다)	진부정가심하다
궤망	궤망(過失)	他人의 過失
그네(接續詞)	—	서
극트더	궤더	겨우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글투다	글텃다	닭의 産卵의 자세를 取하다
기여	—	그리하라
ㄹ목갓다	고목다	곰질리다,  빠다
곤저리낭	—(意味未詳)	싸리나무
나	미니(所有格에도 不變) 내	
너	치니(〃)	네
놀	—	暴風
눈미	(蒙古式地名)	(臥山里)
느룻	—	내려바지
능화지	능화즈	반자지
늑실다	—(意味未詳)	날카롭다
늑뻐	—, 러뻐이	무
늑뻐채	늑뻐채이	무생채
늦싸움	—	여드름
다그네	(蒙古式地名)	(修根洞)
다슴	—	계(繼)
다슴아방	다슴아바	계부(繼父)
다슴어멍	다슴어머	계모(繼母)
다위	(토끼사냥의 뜻)	多好洞(洞里名)
대걸룽	따걸룽	대강
더디오름동네	더디오른(東便)	上狍里二區(洞里名)
떨락쇼시	—	가위바위보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테께불다	테께불(헤친다)	던저버리다
떼미	(蒙古式地名)	(爲美里)
도그내	”	(內都里及外都里)
도곰	—	언치, 떼치
도노미	(蒙古式地名)	(동도노미 井實洞, 서 도노미 於道里)
도래물	”	(廻水里)
독고리낭	—	찢레나무
두루루	—	후두두(소낙비소리)
두메기	—	풍뎅이
마—	—	자—
마농	—	파(葱)
마니마니	—	도리도리
마피다	마(곰팡이)	장마곰팡이가 생기다
만뒤	만투	모밀송편
멤매	—	맘마
맹맹	—	매매 (송아지의 우름소리)
멘	—	국수
멘판	—	상판
멩마구리	—	멩꿍이
멩막멩막	—	멩꿍멩꿍
무두내	(蒙古式地名)	龍崗里(地名)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무제미	—	원앵기
물오름	(蒙古式地名)	水岳(山名)
밋밋	밍밍	철철
ㄹ쉬	—(家畜의 뜻)	牛馬
믈	mori	말
바래기	—	구루마
박	—	뽕(방귀소리)
버버버	—	엉정병정
벽석	—	흙백
베롱개	—	까마중
베부래기	부래기	두렁이
보곰지	보곰즈	지갑
보태	보타이	태(胎), 태보
복시테와앗나	복시테완나	도사리다
볼레낭	—	볼레나무
봉	폰	촉(鏃)
부득부득	—	빠드득빠드득
부렁이	—	수소(牛牡)
부섭	—	室內常備爐
부애	—	어부바
부인유마	—, 부인유매리	黃褐色馬
북글래기	—	거품
분츄하다	훈츄(燒紙)	소지올리다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붕당거리다	붕당	두덜거리다
빅	—	뽕(방귀소리)
빙	—	병(病)
산적	싼저	김승고기의적(炙)
서치믄루	(蒙古式地名)	瀛南里(地名)
선	쨌	현(玄)
설래불다	설러불러	그만두다
소본	쏘본	벌초
손또매	토매	토수
쇠왕이	—	영경귀, 향가새
수단	—	조떡의 一種
수악거리다	수악(서격)	서격거리다
술락	—	홀떡
쉬	—	보숭이
시	쉬	쨌(힘낼때내는 소리)
신디	디(곳)	있는데
솔오름	(蒙古式地名)	米岳(山)
○(接續音)	—	서
아마마아마마쿠-	—	쨌-쨌
아방	아바	아버비
안카름	(蒙古式地名)	西烘里(地名)
앗다	—	앗다
액괍운다	—	까르륵까르륵운다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야로꼬떼=	—	야—우섭다
약돌기	—	망태기
어러러러	—	와나
어멍	어머	어머니
어스숨오름	(蒙古式地名)	御乘生岳(山名)
어위	—	두메
얼럭지	—	얼레빗
엔년	이녀	따님
여수	—	예수(耶蘇)
오도롱	(蒙古式地名)	吾道洞(地名)
오롯	—	올려바지
오제미	—	닥공기
올레친심	—	婚禮式의 1種
왕상	—	거푸스스
우시	쵸시	들러리
움머까라	—(意味未詳)	별소릴다—(女子의말)
월라몰	—, 월라매리	월랏말(斑馬)
유마	—	褐色馬
이디	저디	여기
이디저디	저디나디	이리저리
이신디	디(곳)	있는데
이엿싸	—	이어차
자글자글	—	자작자작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아기의 짓는 모양)
잘잘	—	줄줄(눈물흘리는 모양)
저디	나디	저기
적다물	츠뒤마	赤多馬
적시	저시	몫
재산이개	(蒙古式地名)	南元里(地名)
제완지	—	바랭이類
쫘우	—	우여, 위여
주시	—, 시	찌기
죽성고다시	(蒙古式地名)	梧登里(地名)
짐녕	지녕(集寧, 內蒙古地名)	金寧(洞里名)
청방	청팡	안마루방(찬간방)
청초마	칭마	黑色混色에 靑艷있는 말
체다	체	쩌다
첼리통	첼리통	망원경
출	초	꿀
치	—	창애
칼칼웃는다	칼칼(웃는모양)	깔깔웃는다
쿠룽쿠룽	—	쿨쿨(잠자는모양)
큰큰	크—(목마르다)	바작바작(목마른양)
탕	—	철씩
탕탕	—	와드등와드등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텀불랑	텀불렁	퐁덩
통	엔통	담뱃대
통(통)	—	꽁(무거운물건의 떨어지는 소리)
패	파이	영수증
펼	—	진창
포롱포롱	—	펼쩍펼쩍
푸드득	—	뿌지직
피창	—	순대
폴깨	폴까이	泰興里(洞里名)
팟닥팟닥	팟닥팟닥	너울너울 (큰새의 나르는 모양)
폴쉬	파쉬	팔고물
하동이	하동	곰배말, 곰배소
형	—	탱(속빈모양)
호우-	—	빨리
황마두리	(蒙古式地名)	古城里(地名)
훅	—	훅
흥	—	훅(큰바람소리)
홧술홧면	홧술(건똥)	건똥하면

## 나. 일본어와 관계있는 것

濟州語	日本語	標準語
가내	カナイ(家内)	아내
가반	カバン(鞆)	가방
가산	カサ(傘)	우산
간판히다	簡單ダ	간단하다
간대기	シチリン (京阪方言カンテキ)	풍로
감병	カンビョウ(看病)	병구완
고계곡—	コケッコウ	꼬끼오—
고삐다	クサッタ에서 由來?	피었다(菜蔬)
고직쟁이	コツカイ(小使)	관청의 하인
곡구짐치	カウコ(漬物)에서 由來?일본김치	
꿈본다	夢見ル	꿈꾼다
마래수기	スギ(杉)	전나무
나츠미깡	ナツミカン(夏橘)	하귤
다대겻다	ブツカッタ (タタキツケル에서?)	부딪치다
대비	タビ(足袋), クツシタ(靴下)	웨서번, 양말
대절스럽다	大切ダ	중대하다
덥보	嘘ノ俗語 (鐵砲에서 由來?)	뺨

濟州語	日本語	標準語
동구리(사탕)	飴玉 (ドングリ에서 由來?)	누갈사탕
독술	トリハタ(鳥肌)	소름
무래	ムレ(群)	무리, 떼
무자무자	ムチャクチャ	함부로
미깡냥	ミカン	귤나무
뭇딱	全部(全ク에서 由來?)	송두리째
본상	小僧(僧; ボンサン)	사환아이
뽀뽀	ボンブ	핍프
사랑사랑	サラサラ	졸졸
세수사라	サラ(皿)	대야
시바잇군	シバイコ(芝居子)	광대
야매	闇賣買	야미
엔쵸	エンリョ(遠廬)	사양
역기	ヨツキ	도끼
이까리	イカリ(錨)	닻
차왕	メシチャワン(飯茶碗)	공기
주리(돈)	オツリ, ツリセン(釣錢)	우수리, 거스름돈
지꾸땅	ジクテン?	지어땡
지질	ジシツ(持疾)	치질
진긴	ジンケン(人絹)	인조건
진또리	ジントリ(陳取)	술래잡기의 1種
치짱	水屋(茶櫪의 뜻)	찬장(饌櫪)

濟州語	日本語	標準語
강강	カンカン	쟁쟁
쿠세	クセ(癖), 酒癖	버릇, 주장
펑창코	ペチャンコ(에서 由來?)	벽장코, 납작코
하꼬	ハコ(箱)	상자
하리비고장	オキナグサ(翁草)	할미꽃
화본	花盆	화병(花瓶)
회야	ホヤ(火屋)	등피(燈皮)
후로	湯屋(風呂에서 由來)	목욕탕
흔썸내라	ジョウ(條)	한턱내라

다. 중국어와 관계있는 것

濟州語	中國語	標準語
관디청	—	觀德亭
켄당	첸당(眷堂)	친척
니지리	山西省一村落名	上明里
단지	뎬지(短肢)	꼬마동이
대산이	따싼	마늘
도원	地名(桃園)	新桃里一部
등지	뎬즈	방사오리
등테—	언치	
달뎡디	달뎡디(山西省一村落名)	月坪里
락태	락타	약대
병두친밭	핑대이천텐	坪垞陳田

濟州語	中國語	標準語
병디	井地	都坪里와 坪岱里
부—애	부—왜	어부바
수가ㅎ다	수자(搜家)	집뒤집하다
야편	—	아편
얌편	—(南部中國)	아편
엄수개	엄수개(山西省—地名)	今騰里
에영즈	에영즈	앵도
여수	—	예수(耶蘇)
오도롱	五道弄(山西省唐縣—村名)	吾道洞
와강이	山西省北部地名	三達里
오자	우—즈(屋子)	울안
유	마즈유	들깨
유마	油馬	褐色馬
인항이	이항이 (山西省여러 洞里名)	仁鄉洞
옹	—	은나
장남(藏男)	짱난	머슴
저대	조때이	妓生
젤	젠	매미
중애	쵸—	다리
중문이	中門義(中國地名)	中文里
줄유마	—	자류마(紫驢馬)
청산	—	城山浦

濟州語	中國語	標準語
쿨	퀘-르	차루
쿨	〃	대
탕수	탕수유	제사에쓰는 잡채
팽	핑	병(瓶)
피치가죽	피즈	動物의 表皮
화단	휘단	상여(喪輿)
화분	화편(花盆)	花瓶
확확	쾌이쾌이	빨리

## 라. 마래어와 관계있는 것

濟州語	馬來語	標準語
각	가끼(kaki)	다리
거살	가수-르(kasar ; 粗雜)	남루한 의복
계(語尾)	게(inggeh ; 贊意)	네
고양고양	—	번데기 (gojang-gojang ; 除外, 例外)
구중	갓중(katjoeng)	종(奴)
권작	곤작(gondjak)	공중제비
그닥거리다	그락(gerak ; 小)	새끼
깃짜	그찌와 (ketjiwa ; 失望, 損)	별소릴다—(女子의 말)
ㄱ루삭다	그루삭 (keroesak ; 破, 腐, 害, 惡化)	졸들다

濟州語	馬來語	標準語
ㄱ림하 년(接尾語)	갈리(kali ; 河) 농(njong, njonja의 短縮된 것으로 夫人의 尊稱, nona는 孃)	물하(河) 아씨
되악새기 두가지 독다귀 방상	세기(segi ; 角) 가시(kasih ; 愛) 독계(toke ; 大守宮) 방사(bangsa ; 同胞, 門族, 家族 등에서 由來)	되(升) 부부(夫婦) 도마뱀 친척
베룻사다 베룻이	베룻(peroet ; 腹) 빨루-르 (pelover ; 葡語에서 由來)	배쩌다 알(彈丸)
붕그다 비낭대죽 세비낭 소왓소왓	뽕긋(pungut ; 拾, 集) 삐낭(pinang ; 檳, 椰子) 스비(sebih ; 植物名) 소약 (soyak ; 二分割, 分裂)	얻다 비수수 짚레나무 송송, 송당송당
심방 아리 아방 예-게 오라방(올아방) 오몽못한다	—(timbang ; 不可信) —(ari ; 端網) —(abang ; 兄, 年長者) —게-게(ingg도 ; 對答) 아방(abang ; 兄, 年長者) 오몽(omong ; 話)	무당 린시달린끝줄 아버지 예-예- 오빠 옴쪽못한다

濟州語	馬來語	標準語
우망우망	우만우만 (oemanoeman ; 같은말을 反復)	우글우글
우박	—(ubak ; 灌木의 1種)	녹나무
자리	—(jari ; 指)	차리(魚名)
조름	조룻(chorot ; 終)	밑(尻), 마지막, 끝

마. 만주어와 관계있는 것

濟州語	滿洲語	標準語
가라말	카라모린	검은말
간전이	칼자모린	이마에 흰줄이 코까 지 있는 말
고라말	Kulan	灰色馬
구렁적다	Kuren, 쿠러모린	붉은 말
니	—	이(齒)
니염	니옌	잇몸
도비상귀	도비쌍귀(行商櫃)	도보장수
들렁귀	—	登瀛邱(場所名)
못탕	—(支木)	목침(木枕)
몰	morin	말
쇠돈(牛屯)	쇠툰(屯은 滿洲式)	上下新孝里
염돈	옻툰( " )	江汀里一部
유마	—(油馬)	褐色馬
올아몰	alha, 알하모린	얼력말



濟州語	滿洲語	標準語
적다물	『적다』는 cherte, 절더모린	赤多馬
태전	타이첸	태가(馱價)

바. 비도어(比島語)와 관계있는 것

濟州語	타갈로그·비사야語	標準語
득다귀	도께	도마뱀
맹맹	—	매매
뽀뽀	—	핌프, 무자위
아까시낭	아까시아	아카시아

II

濟州語	타갈로그語	標準語
막가름	막가람(意味未詳)	南洞
몬독(塵)	몬독(山)	먼지
이녁	이녀(너의)	자기(自己)

III

濟州語	비사야語	標準語
가반	—	가방
계—(語尾)	곶—	네
고닥—고닥—	—	꼬꼬덕꼬꼬덕
두가시	—(硬木의 1種)	부부(夫婦)
숨빱	—(反對의 뜻)	가뜩

濟州語	비사야語	標準語
앙앙	—	엉엉
액—ㄱ객	—	웁웁
키여(語尾)	기엿—	꼰오

사. 안남어와 관계있는 것

濟州語	安南語	標準語
고닥—고닥—	—	꼬꼬닥 꼬꼬닥
노이다	노—(滿腹)	설체하다
락태	락타	약대
마	머—(雨)	장마
막게	—(放置)	방망이
매웅(猫聲)	매우(猫)	아웅
멤매—맘마		
메—(接頭語)	매—(速)	맨—
뽀뽀	—	폼프
시	—	취
시—	—	쉬—
엄매	매	엄마

이상 취급한 제외국어(諸外國語) 관계의 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몽고어 …………… 184 | ② 일본어 …………… 49 |
| ③ 중국어 …………… 41  | ④ 마래어 …………… 33 |
| ⑤ 만주어 …………… 16  | ⑥ 비도어 …………… 15 |

## ⑦ 안남어 ..... 12

이 표에 의해서 제주어에 포함된 제외국어 요소의 다과(多寡)를 판정할 것 같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포함된 제외국어의 요소의 다과를 판정하려면 기본될 말을 선출하여 음미하여야겠고 또 그 변화의 정도도 음미하여야겠다

그러나 위의 표만으로도 몽고어의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일본어와 중국어의 요소가 가장 적게 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앞으로 더 태국어, 고사어(高砂語; 臺灣蕃人語), 유구어(琉球語), 아이누어 등 여러말도 기회있는대로 알아보겠다.

## 濟州島方言과 馬來語

[附] 한국어와 마래어와의 공통어數個

졸저 『濟州島方言』(1947) 제2편말 후기에서 저자는 제주도방언을 남방 제어(諸語)와도 비교 연구해야될 것을 부기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 다행히 마래어에 통하는 전주홍(全周鴻), 이우태(李愚兌) 양씨의 도움을 얻어 전술의 기저(既著) 제17장에서 다루던 정도로 제주도방언중 마래어와 관계있는 것들을 뽑아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마래어란 것은 남양(南洋) 전체의 제민족(諸民族)이 널리 사용하는 공통어요, 동은 필리핀(Philippine)군도의 남부 민다나오(Mindanao)섬의 일부에서부터 서는 아프리카(Africa) 동안(東岸)의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섬까지, 남은 뉴우기니아(New Guinea) 및 뉴우칼레도니아(New Caledonia)군도의 일부에서부터 북은 해남도(海南島)의 일부까지에 걸치는 광지역(廣地域)에서 사용되는 공통어로, 이 지역 내에는 각 민족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어가 실로 150여가 있으니, 여기서 취급된 마래어(馬來語)란 것은 이 넓은 지역에서의 Esperanto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사전은 다음의 3책이다.

타케도미 쇼이찌(武富正一) : 馬來語大辭典, 東京, 쇼와(昭和) 17년(1942).

미야타케 세이도(宮武正道) : 인도네시아(インドネシア) · 日本語辭典,  
東京, 쇼와(昭和) 17년(1942).

자와(ジャワ)軍政監部 · 內務部文教局 : 日馬辭典, 東京, 쇼와(昭和) 19  
년(1944).

이제 제주어, 마래어, 표준어의 순으로 기록하겠는데 마래어란에 『—』로 표한 것은 제주어발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濟州語	馬來語	標準語
각	가끼(kaki)	다리
거살	가수르(kasar ; 粗雜)	남루한 의복
계(語尾)	계(inggeh ; 贊意)	네
고양고양	—(gojang-gojang ; 搖)	고이고이
고주아리	그쭈알린 (ketjoeali ; 除外, 例外)	번데기
구중	갓중(katjoeng)	중(奴)
권작	곤작(gondjak)	공중제비
그닥거리다	그락(gerak ; 動)	끄뻬거리다
곰치	끄칠—(kechil ; 小)	새끼
깃짜	그찌와 (ketjiwa ; 失望, 損)	별소릴다—(女子의말)
ㄹ루삭다	그루삭 (keroesak ; 破, 腐, 害, 惡化)	졸들다
ㄹ림하	갈리(kali ; 河)	물하(河)
년(接尾語)	농(njong ; njonja의 短縮된 것으로 夫人의 尊稱, onna는 孃)	아씨
피약새기	세기(segi ; 角)	되(升)
두가시	가시(kasih ; 愛)	부부(夫婦)

濟州語	馬來語	標準語
독다귀	독게(toke ; 大守宮)	도마뱀
방상	방상(qangsa ; 同胞, 門族, 친척 家族等 Sanskrit에서 由來)	
베룻사다	쁘룻(peroet ; 腹)	배찌다
뽕롱이	뽕루-르 (peloer ; 葡萄牙語에서 由來)	알(彈丸)
뽕그다	뽕굿(pungut ; 拾, 集)	얻다
비낭대죽	뽕낭(pinang ; 檳榔子)	비수수
새비낭	스비(sebih ; 植物名)	절레나무
소왓소왓	소약 (soyak ; 二分割, 分裂)	송송, 송당송당
심방	—(timbang ; 不可信)	무당
아리	—(ari ; 端網)	남시달린끝줄
아방	—(abang ; 兄, 年長者)	아버지
예-게	게-게-(inggeh ; 對答)	예-예-
오라방(올아방)	아방(abang ; 兄, 年長者)	오빠
오몽못한다	오몽(omong ; 話)	옴쪽못한다
우망우망	우만우만 (oeman oeman ; 같은말을 反復)	우글우글
우박	—(ubak ; 灌木의 1種)	녹나무
쟈리	—(jari ; 指)	차리(魚名)
조롬	조롯(chorot ; 終)	밑(尻), 마지막, 끝

이상과 같이 내가 수집한 제주도방언 중에서 마래어와 관계있는 것을 발출(拔出)하면 33에 달한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필자 자신도 다소의 비약(飛躍)을 느끼는 것이 약간 있고 더욱이 똑같은 것은 불과 6이고 이 6개의 전동음어(全同音語) 중에서도 그 의미까지 일치하는 것은 게(語尾), 아리, 우박 등의 3개어 뿐으로 제주어와 마래어와의 유연(類緣) 관계는 기저(既著)에서 다루어 놓은 몽고어, 중국어, 만주어, 일본어 등의 어느 것 보다는도 희박하다.

그러나 제주어에는 마래어의 요소가 약간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로 금후 유구어(琉球語)나 비도어(比島語)와의 관련도도 구명(究明) 필요를 더욱 느끼게 되었다.

끝으로 이 일에 협력을 아끼지 않은 젊은 학우 전주홍(全周鴻), 이우태(李惠兌) 양씨의 장래에 있을 남양(南洋)에의 진출을 축복하고 싶다.

#### (附) 한국어와 마래어와의 공통어數個

가람……우리말의 강(江)을 의미하는 고어로 마래어의 『골람(kola m ; 지소(池沼) 등의 意)』과 대단히 비슷하다. 이 『골람』은 Sanskrit와 Tamil어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니 우리말의 『가람』도 육로로 수입된 Sanskrit와 Tamil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꿩……마래어의 『광(kuang ; 鳩의 一種)』라 거의 일치하니 한국어의 『꿩』과 마래어의 『광』도 동일 어원을 가진 것 같다.

모새기……『모새기』의 『모』는 각(角)이요, 『새기』는 마래어의 『세기(segí ; 角)』와 거의 일치하니 『모새기』는 외래어가 붙은 『겹말(重語)』로 생각된다.

미라……호박(琥珀)을 우리말로 『미라』라고 하여 미라단추, 미라사탕 등의 말이 생겨 있다. 그러나 몇 권의 한국어사전을 보니 『밀화(密花)』

는 호박(琥珀)의 한 가지』라고 있어서 『밀화』가 『미라』로 변해온 것도 같다. 하기는 『밀화부리(鳥名)』도 있어서 분명히 『밀화』가 『미라』로 변해온 양도 싶지만, 근본이 잘못되어 『미라』가 『밀화』로 변하였고 『밀화』에 『蜜花』를 채택했을런지도 모르겠다. 사전에 있는 『호박의 한가지』란 것도 우수한 말이고 호박이면 호박이지 『의 한가지』랄 것도 없는 일이다. 호박은 그 품질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소위 『蜜花』 이외 또 몇 가지의 호박이 있는지 한국어사전 편자들에게 물고도 싶다.

아마 『미라』가 『밀화(蜜花)』로 변했을 것이고 이 『미라』는 마래어의 『미라(batu mirah=mirah ; 紅玉)』와 『바투(batu : 石, 小의 意)』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둑』이라는 말이 『바투』에서 유래되었다는 것 뿐이지 『바둑』 그것은 마래의 것이 아니다.

(語文, 第2卷, 第2號, 1~4頁, 1950)



## 濟州島方言과 比島語

줄저 『제주도방언』(1947)의 연장으로 제주도방언중 남방 제어(諸語)와 관계있는 것들을 뽑아보기에 힘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도어(比島語)와 관계있는 것만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필리핀(Philippines)은 7,200여개의 도서로 되었고 그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2000여개요, 그 지역에서 유통되는 언어는 300여종이라고 한다. 그 다수의 언어 중에서 가장 세력을 갖고 널리 쓰이는 것이 타가로 그(Tagalog)어이고 버금이 비사야(Nisaya)어라고 한다.

본래 Tagalog란 Manila를 중심으로 한 루손(Luzon)섬 일부에 거주하는 1종족의 명칭이고, Visaya란 세부(Cebu : Zebu)섬을 중심으로한 1종족의 명칭인데, 민다나오(Mindanao)섬에 거주하는 Moro족과 더불어 Philippnes의 3대족을 이루어 있다. 이 종족들은 피차에 자기의 언어로는 통화가 못되는 정도이나 그러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우리 한국 내의 경상도민·평안도민간의 정도로 그들의 외래민족에 대한 단결심 내지 민족의식은 의외로 강대하다고 한다.

근래에 와서는 Tagalog어가 Philippines국어로 채택되었으니 현재는 이 Tagalog어가 비도어(比島語)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다.

### 1. 제주도방언중 Tagalog, Visaya 양어와 관계있는 것

제주어, 비도어, 한국표준어의 순으로 기록하겠는데 비도어와 똑같은 것이요 유사어는 비도어의 발언대로 기록하였다.

濟州語	比島語	韓國標準語
독다귀	도깨	도마뱀
맹맹	—	매매
뽀뽀	—	뽀뽀, 무자위
아까시아	아까시아	아카시아

2. 제주도방언중 Tagalog어와 관계있는 것

濟州語	타갈로그語	韓國標準語
막가름	막가람(意味未詳)	南洞
몬독(塵)	몬독(山)	먼지
이녀	이녀(너의)	자기(自己)

3. 제주도방언중 Visaya어와 관계있는 것

濟州語	비사야語	韓國標準語
가반	—	가방
계-(語尾)	곶-	네
고닥-고닥-	—	꼬꼬닥 꼬꼬닥
두가시	-(反對의 뜻)	가득
앙앙	—	엉엉
애-ㄱ객	—	왁왁
키여(語尾)	기엿-	겘오

4. 總 括

	全 同 語	類 似 語	計
濟州語와 Tagalog, Visaya 兩語	2	2	4
濟州語와 Tagalog 語	—	3	3
濟州語와 Visaya 語	4	4	8
計 (比島語)	6	9	15

이상으로 제주도방언에 비도어의 요소도 분명히 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으며 그 비율은 마래어에 비하여 분명히 낮다. 그리고 Tagalog어보다도 남방의 Visaya어의 요소가 한층 많은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附] 한국어와 공통 혹은 유사한 比島語(15어)

다음에 열거한 비도어란 것은 Tagalog과 Visaya의 공통어이고 그 중에는 Visaya에만 국한된 2어가 포함되어 있다.

比島語	韓國語
가(疑問語尾)	—
꼭고—	—
꾸르르(腹中音)	—
꿀꿀(豚聲)	—
날래	날래(「빨리」의 平安道方言)
다(語尾)	—
뚜어뚜어	두두(逐豚聲)
수어	취이(逐鷄聲)

比島語	韓國語
쉬—	—(우여, 위여等の 逐鳥聲 : 幼兒의 小便時의 促音)
아고(Visaya)	아이고
와(Visaya)	소모는소리
응으—	은나
장기뽕	가위바위보
쥬쥬 쥬쥬	취쥬—(呼鷄聲의 平安道方言)
함빱(急激의 意)	全部의 意

이상으로 한국어 전체에 비도어의 요소가 들어 있음도 알 수가 있겠다. 여기서 나는 이번에 비도어를 공부하면서 새로 인식한 비도 사정을 단편적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1) 변소와 돈사(豚舍)를 같이하여 인분을 사료의 일부로 쓰는 풍습은 제주도나 유구(琉球) 등지에서와 같아서 이 풍습은 남방계의 것임이 분명하다.

(2) 빈한(貧寒)한 사람이 딸을 혼인시킬 때 돈을 받는 풍습 즉 『딸판다』는 풍습은 제주도 내지 우리 한국 풍습에도 통한다.

(3) 주택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층 건물이고 목욕실을 구비하는 것은 열대지방인 관계일 것이다.

(4) 절대로 연애결혼만이 있는 것은 일찍이 서양풍이 들어온 관계이겠지만 결혼식까지에 탈선행위가 비교적 적다는 것은 역시 동양풍이 있는 때문인양 하다.

(5) 섬미(纖美)한 남자들이 음녀(淫女)의 대용이 되는 예가 지극히

많은 것이 특이한데 이네들은 특히 세탁을 잘하여 식모(食母)같이 고용되는 수가 많다고 한다.

(6) 많이 혼혈(混血)된 관계도 있어서 인종 차별은 별로 없고 직업의 귀천도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하여 순조로운 민주주의가 생장되었다고 한다. 대학 출신의 여자가 중학도 못나온 남자와 결혼하는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은 저간(這間)의 소식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 된다.

(7) 민가가 20호만 있는 산간부락에는 콘크리트 건물의 훌륭한 소학교 하나는 있는 형편이요, 중류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자동차쯤은 갖고 있더니 소미국(小美國)의 관(觀)이 있다고 한다.

(8) 시설도 좋거니와 민도(民度)도 의외로 높아서 우리 한국의 정도가 아니라고 하니 우리가 일제시대에 주입받은 선입감은 정정을 요하는 것 같다.

끝으로 수십년간이나 『필리핀』에서 활약하다가 이번에 귀국하여 타가로그어를 가르쳐 주신 조상복(趙尙福)씨, 비사야어를 가르쳐주신 최무즙(崔武楫)씨에게 심심한 사의를 공표하는 바이다.

(조선교육, 3권3호, 17-9頁, 1949)

## 濟州島方言과 安南語

의주(義州) 출신 이일래(李一來)씨가 安南(佛領印度支那)을 중심으로 25년간이나 해외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익년에 귀국하였기에 나는 씨의 원조를 받을 기회를 얻었다. 씨는 안남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광둥어(廣東語)와 조주어(潮州語)에도 능통하여 이 기회에 그 2개어에 공통되는 말들도 뽑아보았다. 모두 제주어와는 인연이 적은 말들이므로 공통어, 유사어가 지극히 적다. 그중에는 개념이 일치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다소 억지로 뽑아보았다. 그 제외국어중 제주어와 일치하는 것은 ‘—’로 표하고 개념이 다른 것은 (의미)를 붙였다. 여기서 이일래씨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濟州語	安南語	標準語
고닥—고닥—	—	꼬꼬닥 꼬꼬닥
노이다	노—(滿腹)	설체하다
락태	락타	약대
마	머—(雨)	장마
막게	—(放置)	방망이
매옹(猫聲)	매우(猫)	아옹
멤매	—	맘마
메—(接頭語)	매—(速)	맨—
뽀뽀	—	뽀뽀
시	—	취

濟州語	安南語	標準語
시—	—	쉬—
엄매	매	엄마

濟州語	廣東語	標準語
간남	감남(別種)	광나무(물푸레나무과)
고닥—고닥—	꼬닥—꼬닥—	꼬꼬닥 꼬꼬닥
팡	팻	삐
뽀뽀	—	뽀뽀
시	—	췌
시—	—	쉬—

濟州語	湖洲語	標準語
고닥—고닥—	꼬닥—꼬닥—	꼬꼬닥 꼬꼬닥
뽀뽀	—	뽀뽀
시	—	췌
시—	—	쉬—

[附記]

안남은 옛날에는 독립국이었지만 오래동안 인도지나(印度支那)라고 하니만큼 문화면은 전연 중국화하였던 모양이다. 고유의 문화가 없고 한문을 사용하며 자국어의 표현을 위하여 한자를 적당히 변화시켰는데 이 한문을 위주하는 교육은 극도로 상류 계급에 전속(專屬)되었었다. 유교의 영향도 실로 강하여 안남과 중국과의 관계는 옛날 한국과 중국

과의 관계보다도 더욱 심하였다. 한국서는 중국인과의 혼인을 영예롭게까지는 생각지 않았는데 안남서는 양측간의 잡종이 실로 많고 그 잡종이 상류계급에 속하며 세력이 많다고 한다. 인종도 피부가 그리 검지도 않고 약간 체소(體小)하나 일견 한족(韓族)같은 감이 있다고 한다.

뒤에 불령(佛領)으로 되고는 착취와 학정의 도는 난인(蘭印)에서의 화란(和蘭) 이상이라고 한다. 불령으로 되고는 안남어를 로마자(羅馬字)로 표하는 글이 생겼지만 교육의 보급을 도(圖)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보다 안남인의 교육은 거의 막아왔다고 할 형편이다. 안남인의 보수적 태도도 관련되어 여자의 교육은 전혀 없고 남자도 초등 정도의 교육으로 끝이니 현재의 주민은 식자라고 하여도 연장자는 한문을 연소자는 로마자문을 이해할 뿐이라고 한다. 중등교육을 거쳐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실로 상류계급에만 국한되어 있고 대학은 전국에 불과 수개소 있을 뿐이고 그것도 의학과 미술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 최상류계급이 불국 유학까지 간다는 것도 의학과 미술에 한정된다고 한다.

관리도 고급자리는 불인이 모두 차지하고 안남인에게는 낮은 자리만을 줄 뿐, 농상공을 통하여 세금만은 최대한으로 받고 더욱이 외국인의 침입은 관세와 기타 세금으로 전혀 막고 있다고 한다. 세금에 인두세(人頭稅)라는 것까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안남인을 많이 구라파에 출전시킨 관계로 군인도 적지 않은데 물론 장교라고는 1인도 없으며, 하사관은 약간명 있다고 한다.

이상 안남어를 말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설명만으로 끝냈는데 안남어는 전국적으로 몇가지 방언으로 분화는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 濟州始祖 高·良·夫三氏考

나는 제주도방언에 육지제방언과의 공통요소가 얼마큼씩 들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한편 인방(隣邦) 제어의 요소가 얼마큼씩 들어 있는가도 조사하고 있다.

육지부의 것으로는 벌써 광주(光州)·대구(大邱)·청주(淸州)·평양(平壤)·주을(朱乙)·회녕(會寧) 등의 제지방어를 필(畢)하였고 근일중 장연(長淵) 지방어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것이 끝나면 원주(原州)·강릉(江陵)·고성(高城)·함흥(咸興)·강계(江界) 등지어를 조사하고 일단락을 지으려고 한다.

인방 제어로는 벌써 몽고(蒙古)·만주(滿洲)·중국·일본·안남·비도·마래 등 제어를 필하였고 다음에 태국어에 손대볼려고 한다. 그의 예도 유구어·고사족(高砂族)어 아이누어 등을 조사하여야 되겠는데 이것들은 언제 착수하게 될 것인지 망연하다.

최근 안남을 중심으로 해외생활을 25년이나 하고 해방 익년에 환국한 의주 출신 이일래(李一來)씨를 맞게되자 씨가 능통하는 안남어 광둥어 호주어(湖洲語) 등을 배우고 계몽된 바가 많았는데 동시에 실로 귀한 자료를 또 하나 얻게 되었다. 즉 해남도(海南島)에서 안남에 걸쳐서는 고량부(高梁符) 3성이 많은데 중국 본토에는 이 3성이 희귀하다는 사실이다.

안남에는 현 보대왕(保大王)의 원씨성(阮氏姓)이 제일 많아 대성(大姓)으로 우리나라의 김(金), 이(李)씨에 해당하고 이 고(高), 양(梁), 부(符) 3성은 이류(二流), 적어도 삼류(三流)의 성은 되어서 우리나라의

박(朴), 최(崔), 한(韓) 정도의 것은 된다고 한다. 해남도(海南島)에서의 형편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이 고(高), 양(梁), 부(符) 3성은 역시 대성(大姓)으로 안남에서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 지방의 고(高), 양(梁), 부(符) 3성이 제주도의 고(高), 양(良), 부(夫) 3성에 통하는 바가 있어서 제주도와 해남도, 안남 지방을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된다. 이때까지 논급(論及)된 일이 없는 일이니 만큼 특별대서(特筆大書)할만한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안남은 벌써 조사한 언어로 보아도 별로 닿지가 않고 안남쪽이 고래로 보수적이요 해사(海事)에 능치 못한 점으로 보아 제주도에 연결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해남도는 제주도와 꽤 잘 연결이 된다. 즉 해남도민은 해사(海事)에 능하다는 것보다 해사를 주로 하고 도외활동을 지극히 많이 하는데 중화민국 10년경까지는 절대로 여자는 동반치를 앓았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해남도민은 복건어(福建語)를 쓰면서 『액센트』가 강하다고 하니 제주도 사정과는 꽤 들어 맞는다. 제주도 시조 고(高)·양(良)·부(夫) 3성의 신화는 3남(男)이 땅에서 나온데서 시작되었고, 제주도민의 방언에는 액센트가 강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수물을 쭈물, 시집을 씨집, 짚세기를 짚세기, 재떨이를 재떨이 등 예를 들면 암만이라도 있다.

그러면 해남도민의 유래를 고찰해 보자. 해남도 본토족은 여족(黎族 : 廣義의 苗族)이라고 하는데 중국 타처에서와 같이 그 건너편 광둥, 복건 지방으로부터 진출해온 한족(漢族)에 몰려서 묘족(苗族)은 산중으로 밀려들어가 살게되고 도내외에서 활동하는 해남도민은 진출해온 한족이다.

복건성 대안(對岸)의 대만(臺灣)같은 곳에는 복건인·광둥인이 상반(相半)되어 언어·풍속·습관이 다른 양성인의 세력도 상반이 되는 것

을 누구나 곧 알게되어 있지만, 해남도에서는 해안 광동성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복건어이고 다만 액센트가 너무 강해져서 통상의 복건어와는 판이한 감을 주는 수가 있는 정도라니 해남도에는 광동인이 건너왔다해도 적었을 것이요 복건인에게 동화되고 말았다고 볼 수가 있다.

옛날 복건성으로부터 해남도에 건너온 사람 중에는 고(高), 양(梁), 부(符) 3성이 많았었을 것이고 본토에서는 성(盛)하지 못하던 것이 남진(南進)한 후에 성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다. 남진한 복건인중 안남으로 간 사람들은 안남 본토족과 합해져서 현재의 안남인을 형성하였을 것이고 해남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타족들을 축출(逐出) 혹은 동화하여 현재의 해남인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남방의 전설 더욱이 제주도 3신인(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 올라왔다는 이야기에 연결시켜 보아야 하겠다. 뿐만아니라 그들의 진출한 연대·기타 사적(史的) 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해남도 근방의 현상도 이 각도에서 조사하여야겠다.

제주도의 상고사(上古史)를 차차 밝혀 쓰게 되는 것 같고 따라서 우리나라 상고사에 있어서의 민족이동설에 광명이 비쳐오는 것도 같다.

(週刊서울. 87호, 13頁, 1950)

## 續 報

중앙박물관 김원용(金元龍)씨의 好意로 그뒤에 과연 적합한 한 전설을 얻었다. 이제 그 전설을 전제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을 약간 설명하겠다.

後漢書 卷116 列傳76 南蠻傳

巴郡(筆者註：四川省江州 卽 三苗之江州) 南郡(湖北省郢) 蠻本有五姓巴氏攀氏相氏鄭氏皆出於武落鍾離山其山有赤黑二穴巴氏之子生於赤穴四姓之子皆生黑穴未有君長俱事鬼神乃共擲劍於石穴約能中者奉以爲君巴氏子務相乃獨中之衆皆歎又令各乘土船約能浮者當以爲君餘姓悉沈唯務相獨浮因共立之是爲廩君……

과연 이 후한서(後漢書)에서 나온 묘족(苗族)의 전설에는 사람이 땅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다. 고양부(高良夫)의 삼혈(三穴) 대신에 이혈(二穴)이지만 이 묘족 전설의 공척검어석혈(共擲劍於石穴)은 고양부의 사시복지(射矢卜地)의 유적과도 아주 쉽게 가닿는다. 연이어 나오는 묘족 전설의 토선(土船)은 고양부의 배필이 운반된 자니봉목함(紫泥封木函) 중의 석함(石函)과도 통한다.

여하튼 이만하면 이 묘족의 전설은 고양부의 전설과 서로 통한다고 할 수가 있어서 먼저 내가 제창한 제주도시조 고양부 삼씨(三氏)는 해남도에서온 사람이 아닐까한 우견(愚見)이 좀더 확연해지는 것 같다.

뿐만아니라 해남도 부근과 제주도 사이는 고래로 표선(漂船)이 피차(彼此) 교류되었다. 이제 그 자료를 몇 개 적어 보겠다.

1. 일본의 해안에서 빈 맥주병을 띄우면 저절로 인도지나(印度支那)

해안에 닿는 일이 있다고 한다.

2. 안남(安南)왕자 이용상(李龍祥)은 이조(李朝 ; 安南國)의 사직(社稷)이 비운(悲運)에 빠지게 되자 그는 진씨(陳氏)를 섬기기를 불공(不肯)하고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예를 본받아 제기(祭器)를 품안에 안은채 홀연히 고국을 떠나 표류하여 도달한 곳이 황해도(黃海道) 웅진군(甕津郡) 마산면(馬山面) 화산리(花山里)였다. 때는 고려 고종(高宗) 13년 병술(丙戌 ; 1226). 그 뒤 이용상은 우리나라에서 공을 세워 정식으로 귀화하여 화산(花山) 이(李)씨의 시조가 되었는데 그의 유적은 아직도 화산리 부근에 뚜렷이 있다고 한다.

3. 1653년 7월 16일 난인(蘭人) 하멜(Hendrik Hamel) 일행은 대만(臺灣)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도중 폭풍에 밀려 8월 15일 밤 제주도 부근에서 파선(破船)되어 전원 64인중 28인은 익사하고 하멜 이하 36인의 생존자가 제주도에 표착하였다.

4. 이조(李朝) 숙종(肅宗) 정묘년(丁卯年 ; 1687)에 제주도민 고상영(高尙英)외 24인은 추자도(楸子島) 부근에서 폭풍을 만나 35일을 해상(海上)에서 지난 후 안남(安南)땅 회안군(會安郡) 명덕부(明德府)에 도착하였다.

위의 몇 가지의 예만 가지고도 해류와 기류 관계로 해남도 부근과 제주도 부근과는 문물이 자연히 교류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다.

벌써 대원도(大原島) 사정을 살피고 집필하려고 했지만 이 정도로 일 단락을 지어 두고 싶다.

<참고문헌> 鳥居龍藏一苗族調查報告 : 東京帝國大學理科學部人類教室 研究報告 第2編, 明治 40年(1907).

## 耽羅古史

조선사(朝鮮史; 1932~38)에 의하여 신라 통일 이전의 제주도 관계 사료(史料)만을 여기서 취급해 보려한다. 즉 조선사 제1편의 조선사료(朝鮮史料), 일본사료(日本史料) 및 지나사료(支那史料)를 취급하겠는데 먼저 각 사료를 연대순으로 배열하여 기록하고 필요한 개소에는 설명을 가(加)하기로 하고 내중에는 그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원문을 게재하기로 한다. 연대에는 곳곳이(西歷)을 부(附)하기로 한다.

1. 百濟文周王 2年(新羅慈悲麻立干 19年 高句麗長壽王 64年 西紀476年) 4월에 耽羅國이 方物을 獻하다.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文周王 2年夏 4月. 耽羅國獻方物. 王喜. 拜使者爲恩率.

2. 百濟東城王 20年(新羅炤知麻立干 20年 高句麗文咨明王 7年 西紀498年) 8월에 耽羅가 朝貢양하므로 이를 伐할려고 했지만 耽羅 罪를 乞함으로 中止하다.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20年 8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耽羅卽耽牟羅.

3. 高句麗文咨明王 13年(百濟武寧王 4年 新羅智證麻立干 5年 西紀 504年) 4월에 芮悉弗을 魏에 遣하다. 芮悉弗이 世宗께 드리는 말씀 中에 珂는 涉羅(耽羅의 別稱)의 産이요 涉羅는 百濟에 屬한다는 말이 있다.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13年夏 4月. 遣使入魏朝貢……世宗引見其使芮悉弗於東堂. 悉弗進曰. …… 珂則涉羅所產. 扶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4. 繼體天皇 2年戊子(西紀508年) 12월에 耽羅人이 처음으로 百濟에 通함.

〔日本書記〕 卷17 繼體天皇 2年 12月. 南海中耽羅人初百濟國.

5. 百濟威德王36年(新羅眞平王 11年 高句麗平原31年 西紀589年)에 隋의 一戰艦이 耽牟羅國에 漂至하여 百濟를 經해서 還國하였다. 百濟王 昌資는 이를 送하고 并하여 遣使奉表하고 平陳을 賀하였다. (支那史料에 依하면 朝鮮史料보다도 1年 이르게 記錄되었다.)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36年. 『隋平陳. 有一戰船漂至 耽牟羅國. 其船得還. 經干國界. 王資送之甚厚. 并遣使奉表賀平陳. 高祖善之. 下詔曰. 百濟王既聞平陳. 遠令奉表. 往復至難. 若逢風浪. 便致傷損. 百濟王心迹淳至. 朕已委知. 相去雖遠. 事同言面. 何必數遣使來相體悉. 自今已後. 不須年別入貢. 朕亦不遣使往. 至宜知之.』

〔隋書〕 卷81 列傳第46 東夷百濟. 平陳之歲(隋高祖開皇 8年 西紀588年) 有一戰船. 漂至海東耽牟羅國. 其船得還. 經干百濟. 昌資送之甚厚. 并遣使奉表. 賀平陳. 高祖善之. 下詔曰. 百濟王既聞平陳. 遠令奉表. 往復至難. 若逢風浪. 便致傷損. 百濟王心迹淳至. 朕已委知. 相去強遠. 事同言面. 何必遣使來相體悉. 自今以後. 不須年別入貢. 朕亦不遣使往. 王宜知之. 使者舞蹈而去.

6. 齊明天皇 7年辛酉(西紀661年) 5月丁巳, 耽羅 처음으로 王子阿波伎等을 遣하여 貢獻하다.

〔日本書記〕 卷26 齊明天皇 7年 5月 丁巳,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

(伊吉連博得書云. 辛酉年正月廿五日還到越州. 四月一日, 從越州上路東歸. 七日行到檉岸山明. 以八日鷄鳴之時. 順西南風. 放船大海. 海中迷途. 漂蕩辛苦九日八夜. 僅到耽羅之嶋. 便即招慰嶋人. 王子阿波岐等九人. 同載客船. 擬獻帝朝. 五月廿三日. 奉進倉之朝. 耽羅入朝始於此時. 又爲智興慊人東漢東直足嶋所讒. 使人等不蒙寵命. 使人等怨徹于上天之神. 震死足嶋. 時人稱曰. 大倭天報之近.)

7. 唐高宗龍朔元年(辛酉, 西紀661年) 8日 에 耽羅가 朝貢하다.

〔唐令要〕 卷100 耽羅國. 龍朔元年 8月. 朝貢使至.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15 朝貢第3. 龍朔元年 8月. 多蔑國王摩如失利・多福國王難修強宜說・耽羅國王儒李都羅等. 竝遣使來朝. 各貢方物. 三國皆林邑之南・邊海小國也.

〔唐書〕 220 東夷列傳第145. 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大豕皮・壽居革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8. 新羅文武王 2年(高句麗寶藏王21年 西紀662年) 2月 에 耽羅國이 來降하다.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2年 2月. 耽羅國主佐平徒



冬音律(一作律)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高麗史〕 卷57 地理2 全羅道. 耽羅縣 左全羅道海中. 其古記云. 大初無人物. 三神人從地聳出. (其主山北麓有穴. 曰毛輿.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獄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 以來. 爾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至十五代孫高厚高淸昆弟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 王嘉之. 稱長子星主. (以其動星象也.) 二子曰王子. (王命淸出股下. 愛如己子故名之.) 季子曰都內. 邑號曰耽羅. 蓋以來時初泊耽津故也. 各賜寶蓋衣帶而遣之. 自此子孫蕃盛. 敬事國家.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又改良爲梁.

9. 唐高宗麟德 2年(乙丑, 西紀 665年). 是歲에 劉仁軌는 新羅, 百濟, 耽羅, 倭等 4國의 酋長을 領하여 泰山의 封에 赴會하다. (朝鮮史料에도 이 記錄의 內容은 同年의 일로 되어 있다.)

〔唐書〕 220 東夷列傳第145. 前項에出.

〔舊唐書〕 卷84 列傳第34劉仁軌. 麟德2年. 封泰山仁軌領新羅及百濟, 耽羅, 倭四國酋長赴會. 高宗甚悅. 擢拜大司憲. 遷右相

兼檢校太子左中護，累功封樂城縣男。

〔資治通鑑〕 卷201 唐紀17 高宗中之上。麟德2年。上命熊津都尉扶餘隆與新羅王法敏釋去舊怨。（去羌呂飜）八月壬子。同盟于熊津城。劉仁軌以新羅，百濟，耽羅，倭國使者。浮海西還。（耽羅國。一曰儋羅。居新羅武州南島上。初附百濟。後附新羅。）會祠泰山。高麗亦遣太子福男來侍祠。

〔唐會要〕 卷95 新羅。麟德 2年 8月。法敏與熊津都督扶餘隆盟于百濟之熊津城。其盟書藏于新羅之廟。于是帶方州刺史劉仁軌領新羅，百濟，耽羅，倭人四國使。浮海西還。以赴太山之下。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5年(西紀 665年)。……仁軌領我使者及百濟。耽羅。倭人四國使。浮海西還。以會祠泰山。  
……

## 總 括

1. 고려사(高麗史)에 있는 삼신인(三神人)의 출현기는 물론 전설이고 고을나(高乙那)의 15대손 3형제가 신라 성시(盛時)에 입공(入貢)하여 성주(星主), 왕자(王子), 도내(都內)의 칭호를 받고 또 탐진(耽津 : 現全南康津)으로 상륙했다고 하여 탐라(耽羅)라 국호(國號)까지 받아 가지고 왔다는 기록도 현재로는 전설의 역(域)을 탈(脫)치 못한다.

2. 제주도는 고대에는 탐라란 하나의 소독립국(小獨立國)이었고 기록에 분명한 타국과의 첫 번 교섭은 백제(百濟) 문주왕(文周王) 2년 4월에 백제에 방물(方物)을 헌(獻)한 일이니 때가 서기 476년 즉 제5세기의 일이었다.

3. 이래(爾來) 백제의 한 속국(屬國)으로 있으면서 소국(小國)의 통례(通例)로 근린(近隣) 제국(諸國)에 입공(入貢)한 것은 사실이며 서기 661년 5월에는 일본에 공헌하고 동 8월에는 중국(唐)에 조공(朝貢)하고 익(翌)662년 2월에는 신라에 내강(來降)하는 등 연속하여 제외국(諸外國)과의 교섭을 가졌다. 전출한 제5항의 기록에서와 같이 중국의 기록이 1년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3국에 공헌한 것이 동일년의 일로 볼 수도 있겠다.

4. 이 줄편(拙篇)이 한국사(韓國史)에 있어서 연차(年次) 상부(相符)치 않는 동양국왕사료편년(東洋國王史料編年)에 자료로 된다면 다행이다.

5.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통일한 후에는 탐라는 일본과 약간의 교섭이 계속되었지만 백제로부터 완전히 신라에 인계된 셈이 되었고 후에 고려에도 그대로 인계되었다.

## 兎山堂 由來記

이 편(篇)은 아카마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양씨가 수집한 제주도신가(濟州島神歌) 중의 하나인 토산당본해(兎山堂本解; 朝鮮巫俗の研究, 上卷, 357-69頁, 12年) 그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아카마츠(赤松), 아키바(秋葉) 양씨 수집의 것은 서귀포 남무(男巫) 박봉춘(朴奉春) 구전(口傳)의 것이요, 이 편(篇)은 토평리(吐坪里) 남무 김해춘(金海春) 구전(口傳)의 것으로 토평은 서귀포와 불과 십리(相距)의 것으로 수집년의 약 십개년의 상거(相距)와 구전자(口傳者)의 개인차(個人差)로인지 그 내용의 대의(大意)는 같으나 세목(細目)에는 차이가 있으니 사학(斯學) 관계자에게 분명히 참고의 자(資)로 생각되어 이 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제주도 남부 표선면(表善面)의 서해안에는 남토산(南兎山)이란 80호에 가까운 소부락이 있고 그 부락 중앙 좀 높은 구상(丘上) 조망이 좋은 곳에는 재식(栽植)한 『섬쥐똥나무』에 포위된 북향의 원시적인 한 제단(祭壇)이 있다(사진은 아카마츠(赤松), 아키바(秋葉) 양씨 著 『朝鮮巫俗の研究, 下卷, 參考圖錄, 第28圖板, 第54圖, 13年』을 참조). 이것이 토산당(兎山堂)이란 신(神)의 본거(本據)요 이 신은 제주도 남반(南半)을 지배하는 절대의 존재이다. 해지방(該地方)에도 기타의 제신(諸神)이 있지만 토산당은 단연 제신(諸神)의 수석(首席)이라고 하고 주민의 생명 재산 및 생활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하여 많은 원시적 주민에게는 영험한 신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부락에는 그 부락의 토신(土神)인 본향

(本郷)이 있는데 이 토산당은 그 제신의 상위에 있다.

이 토산당은 주민의 일체 더욱이 길흉(吉凶)을 맡은 신인 고로 이 토산당의 존재는 무인(巫人)의 존재를 용허(容許)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토산당이 무인들의 생활수단으로 씨울 것은 물론이다. 제주도 무인에는 남녀가 비슷하게 있고 현재는 적지만 최근까지 무인계급은 상당히 성(盛)해서 제부락의 하인계급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세력은 깔볼 수가 없었다. 현재도 연중기(年中期) 이상의 주민들은 병시(病時)에는 먼저 무인의 손을 빌어 토산당을 위하고 의사에게는 본인대로 그뒤로 미룬다는 형편이다.

다음에 토산당의 유래를 소개하련다. 이 이야기는 물론 제주도어로 들은 것을 표준어로 고쳤다.

나주영산사도(羅州榮山使道)는 부임하면 백일이 되어 죽는 일이 계속 되었다. 그것은 같이 나주영산금성산(羅州榮山錦城山)에 본거를 둔 토주신(土主神)을 우대(優待)치 않는데 원인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한번은 토주관(土主官) 즉 지방장관(地方長官)인 사도(使道)가 말을 타고 토주신의 당전(堂前)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때 당수(堂守) 즉 무인(巫人)이 토주관더러 토주신에게 경의(敬意)를 표하도록 말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토주관은 말하기를 『내가 토주관인 즉 또 다른 토주가 있을 수가 있는가』.

당수 『귀관(貴官)이 이를 거절하면 역시 백일 이내에 죽어 이 토주(土主; 蛇神)이 영세토주(永世土主)가 될 것이오』.

토주관 『그러나 이대로 통과하면은?』

당수 『그러면 먼저 말이 발을 저를 것이오』

토주관은 그래도 자기 주장대로 통과할려하니 역시 말이 발을 절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당수가 말하기를 『영험(靈險)함을 보시라』

이 말을 들은 토주관은 당에 올라 말하기를 『신은 어디 있는가』

당수 『2주일간 곳을 아니하면 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주관은 2주일간이나 곳을 시켰더니 사신(蛇神)은 큰 머리를 조금 나타냈다.

연(連)하여 토주관은 말하기를 『두미(頭尾) 양부(兩部)를 공히 똑똑이 완전히 보이라』

그러니 사신(蛇神) 전신이 지면에 영출(靈出)하여 토주관도 감사(感謝)하였다.

다시 토주관은 말하기를 『영험한 신이면 입에 여주(麗珠)나 금강주(金剛珠)를 물었는가』.

그 대답으로 사신(蛇神)은 머리를 옆으로 흔들뿐.

토주관 『영험한 것이 무어야. 사수(射手)를 불러 곧 쏘게하라』고 부하에게 명령을 하였다.

얼마안되어 사수(射手)는 사신을 사살하고 사당(祠堂)을 살라버렸다. 그런뒤에 토주관은 그곳을 통과하였고 사신(蛇神)의 영(靈)은 본거를 잃고 할 수 없이 청천운간(靑天雲間)에 뜨고 말았다.

남토산(南兎山)에 사는 강씨(康氏)와 한씨(韓氏)는 지방산물을 경성(京城) 왕실(王室)에 헌상(獻上)하면 상(賞)을 받아 부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해보았다. 상을 받고 귀로(歸路)에 올랐는데 양부인(兩夫人)은 항구에 와서 짐을 정리하는중 한 보통이 속에서 금바둑(이것이 즉 전출(前出)한 사신(蛇神)의 영(靈)이다)이란 자기네가 휴대치 않았던 귀신(鬼神)이 있음을 발견하고海中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때문인지 그때부터 돌연히 파도는 높아지고 출항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주야(晝夜) 1주일이나 기다렸지만 풍파(風波)는 좀처럼 멎을 것 같

지가 없어서 점복인(占卜人)에게 묻기로 하였다. 그랬더니 점인이 말하기를 『금바둑을 버린 때문인데 그것이 선귀(船鬼)이니 위무(慰撫)할 것 이라』

점인 『강물에 심신을 정(淨)케하고 공물(供物)을 정(整)하여 선중(船中)에서 치성(致誠)할 것』이라고.

그래서 양부인은 점인이 하라는대로 하였더니 풍파도 멎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호조(好調)로 돛단 범선은 육(陸)을 향하고 배는 쾌속(快速)하였다. 추자(楸子)바다를 지나고 사수(泗水)바다(추자도 부근의 물살이 빠른 바다)를 지나 제주도 성산면(城山面) 온평리(溫平里) 방두포(防頭浦)에 도착하였다. 착항(着港)은 하였지만 선취(船醉)로 양부인(兩夫人)은 일어날 수 없는터에 비몽사몽간에 아름다운 처녀(處女; 前出한 蛇神의 靈이 다시 변했다)가 앞에 나타났다.

양부인(兩夫人) 『어디 사는 여자인가』

처녀(處女) 『나주영산금성산(羅州榮山錦城山)에 산다』

부인(夫人)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가』

처녀 『제주도는 토지도 넓고 인정(人情)도 후하다고 들었음으로 이곳에 살려고 왔다』

부인(夫人) 『여기서는 살기가 어려울 것이라 토지도 몰도 다 주인(主人)이 있으니까』.

처녀 『그러면 어디 공지(空地)는 없을까』

부인 『남토산(南兎山)은 공지(空地)라』

처녀 『그러면 그리로 안내(案内)를 좀해주오』

그래서 양부인(兩夫人)은 처녀에게 안내인을 앞선(斡旋)하였다.

처녀는 안내받아 남토산으로 가는 도중 성산면과 표선면과의 경계의

신평리(新豊里)를 통과하게 되었다. 때마침 그곳 토주신(土主神) 영산주(瀛山主;男神)의 탄생일축연(誕生日祝宴)으로 복잡(複雜)한 곳엘 당도하였다.

영산주(瀛山主)는 『양반(兩班)인가 중인(中人)인가 인사없이 지나가 다니』하고 말하면서 처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러나 미처녀(美處女)는 자기의 은장도(銀粧刀)로 그 붙잡힌 손목을 베어버리고 남토산으로 강행하여 해안 근처 큰바위 아래에 좌정(坐定)한 것이었다.

그러나 몇 달을 기다려도 감주(甘酒) 일배(一杯)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하여 하루는 심심도 해서 해면(海面)에 있는 한 큰 왜선(倭船)을 요술(妖術)로 해안벽(海岸壁)에 충돌(衝突)케 하고 파선(破船)시켰다. 조난(遭難)한 7인의 왜인은 참으로 당황하였다.

그날 가까운 동리(洞里) 가시리(加時里) 부락 오좌수(吳座首:漢學者의 한 계급으로 훈장의 하위)의 딸은 하녀를 데리고 압연(鴨淵:表善面과 南元面境의 松川橋下)이란 곳에 빨래하러 갔었다. 파선하여 상륙한 예(例)의 7인의 왜인은 물을 마시려 그곳에 접근하니 오녀(吳女)는 놀라서 속히 빨래감을 모아가지고 집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때에 물 먹으러 온 7인은 물보다도 이 처녀의 뒤를 따라오게 된 것이었다. 비녀(婢女)는 도중에 숨고 혼자서 도주하던 오녀는 뒤를 따라오게 된 것이었다. 비녀는 도중에 숨고 혼자서 도주하던 오녀는 종내 그 7인에게 추급(追及)되어 윤간(輪姦)을 당하고 죽게 되었다. 후에 비녀는 사(死)에 빈(瀕)한 영녀(令女)에게 접근하여 유언(遺言)을 청하였다.

영녀(令女) 『부친이 일찍이 서울서 구해다가 만드신 많은 귀한 의복이 있으니 그것을 입혀서 나를 물어달라』

그래서 비녀는 집에 급행하여 주인에게 그 참사를 고하니 오좌수는 의외로 속히 단념하고 죽은 여식의 유언대로 하여 주었다.



그 후 한씨(韓氏)의 딸은 오좌수의 집에 시집가서 홀연히 병이 생겨서 죽게 되었다. 의사의 치료는 지극하지만 병은 차차 중해 갈 뿐이었다. 드디어 오좌수는 명인(名人)에게 문점(問占)을 하게되니

점인(占人) 『이 병은 약이나 침으로 낫지 않으니 큰 곳을 하시라. 죽은 여식의 영이 들어 생긴 병이니 근본은 사신(蛇神)의 작란이라』

속히 무당을 초래(招來)하여 곳을 잘하니 병인(病人)은 차차 회복되었다.

이 영험(靈驗)함을 목도(目睹)한 강(康)·한(韓)·오(吳) 3씨는 이 신령(神靈)을 방임(放任)할 수 없다고 해서 시시(時時)로 공물(供物)하고 위무(慰撫)하기를 시작하였다.

이 3인이 시작한 토산당의 굿은 그 부락에 보급되고 점차 확대되어 지금은 동은 성산에서 서는 대정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 토산당의 이야기는 대단히 오래된 모양으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듯하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이 신은 본토 반도에서 도래하였고 일찍이 일본인과의 교섭을 갖고 제주도 중산지대(中山地帶) 양반부락의 처녀와의 교섭도 있는 등 제주도의 성격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 토산당은 본래가 사신(蛇神)이요 처녀로도 화(化)하고 또 나이찬 처녀와의 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사나운 신으로는 취급 안된다. 고로 도민들은 뱀을 토산당의 화신(化身)이라고 해서 숭상하고 뱀은 해를 받는 일이 없으니 민가 옥내에도 흔히 있어서 오히려 보호받는다(註1).

또 도민 더욱이 여인들로부터는 무당을 통해서 토산당은 항상 숭상되니 부근에는 토산당과 교섭이 없는 가정은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산북인들은 산남인 더욱이 토산리 부근의 사람들과는 혼인함을 좋아하지 않고 더욱이 부근의 여자를 맞아가기를 싫어하므로 그만큼

토산리에는 여자가 좀더 많이 남게 된다고 볼 수가 있다(註2).

그러나 현재는 도내 제면(諸面)을 통하여 굶을 금하고 이 토산당이 있는 표선면에서는 그 사당(祠堂)까지도 강제적으로 파괴하였고 민간에도 미신 타파의 소리가 점차 고창(高唱)되니 토산당에서 유래한 흔하던 굶도 현재는 잠행적(潛行的)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註1) Elaphe dione Pallas 누룩뱀.

(註2) 북토산은 남 53, 남토산은 남46 : 여54로 제주도 평균의 남48 : 여52에 비하여 여다(女多)이고 더욱이 남토산에 여다임을 재미있는 사실이다.  
(郷土, 9월호, 15~18頁, 1946)

## 馬羅島엘레지

마라도(馬羅島)는 조선 남단의 섬이다. 조선 남단의 섬이라면 누구나 제주도를 연상하지만 제주도에도 속도(屬島)가 십여개나 있고 이 마라도는 그 속도들 중의 하나이다.

제주도는 대략 타원형을 이루고 그 장축(長軸)은 동북에서 서남으로 경사졌으니 제주 본도의 남단은 모슬포 부근이 된다. 이 모슬포 부근에서 거의 정남방으로 떨어져서 두 섬이 있는데 가깝고 큰 편이 가파도(加波島)이고 멀고 작은 편이 이 마라도(馬羅島)이다.

이 마라도(馬羅島)는 북위 33도 7분 동경 126도 16분에 놓여 있다. 주위 약 2km의 타원형 섬인데 그 장축은 남북으로 되고 동쪽은 절벽섬 중앙 부근은 39m, 점차 서쪽 바다로 경사졌으니 선창(船艙)은 자연히 서면에 한하게 되었고 부락도 서해안에 생기게 되었다.

현재 마라도에는 13호 48인이 있고 행정상 제주도 대정면(大靜面) 가파리(加波里)에 속하는데 마라도 전체가 571번지이다. 마라도민은 반농반어라기보다도 거의 어업에 종사하며 가파도에 의존하는데 가파도민은 반농반어를 하면서 제주 본도에 의존한다.

나는 나의 전문(專門)의 입장에서 거년(去年; 1936) 이 조선 남단도의 동물상을 조사하려고 몇 번이나 마라도 도항을 기도(企圖)하고도 실패한 후 겨우 가파도까지만 왔었지만(Zephyrus, 제7권, 150~174頁) 나는 다행히도 1943년 5월말에 호기(好機)를 얻어 이 섬에 건너와 2박을 하면서 이곳의 동물상을 조사할 수가 있었다. 전문(專門)의 사항은 타지(他誌)로 맡겼지만 동물상으로 보더라도 마라도는 가파도의 속도요

가과도는 제주 본도의 속도로 이 점은 자연상으로는 인문상으로도 일치한다.

이상은 마라도의 개관이지만 나는 이 섬에 건너와서 주로 곤충 채집을 하면서 섬의 전설이나 무엇이랴도 수집하려고 애써 보았다. 그랬더니 과연 이 섬에는 이 섬에 알맞은 애처로운 한 전설이 있다.

섬 북단 선창 가까이 우물 옆에는 원시적 사당이라고 할만한 퇴석(堆石)이 있다. 분명히 오랫동안 제사를 지낸 흔적이 있고 부락민으로부터는 아미씨당(本鄉)이라고 하여 영험(靈驗)하다는 것이다. 여기 소개하는 엘레지—(悲歌)란 이 사당의 유래이고 이 이야기는 이 부락의 장노(長老) 김성종(金成宗; 1943년에 74세)옹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수백년 전의 일로 모슬포(慕瑟浦)에는 이모란 한 부인(婦人)이 살았다. 어느날 이부인(李婦人) 물을 길러가다가 수풀 속에서 어린애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울음소리를 향(向)하여 가보니 생후 3개월도 안되는 어린 계집애가 있었다. 우는 어린애를 달래면서 안고와서 그곳 원님께 아뢰었다. 놀랜 원님은 팔방으로 유아의 생모를 찾았지만 알 도리가 없어서 그 고아의 양육을 발견한 이부인에게 부탁하였다.

세월은 흘러서 그 고아가 8세가 될 즈음에 이부인에게도 처음으로 아기가 생겨서 그 8세의 여아는 자연히 애보개가 되었다. 이 어린애보개의 자장가에는 자장자장 와리자장 하는 중에 『아가아가 우지마라 아 빠있고 엄마있는 아가아가 너 왜우니』란 말이 끼어 있었다. 이 말이라기보다는 이 노래는 애처로운 어린 계집애의 고운 목소리로 늘 불리워서 동리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마침 이때에는 매년 봄마다 망종(芒種)으로부터 반달동안은 남쪽으로 떨어진 마라도에 건너가는 것이 허가되는 때라 해녀인 이부인도 많은 부락민과 더불어 함께 마라도에 건너 갔었다. 입도후 이틀째인지 갑자

기 바다에는 풍량이 일고 농무(濃霧)가 끼어 개이지 않으므로 적은 식량을 가지고간 일행은 주립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일행은 비탄(悲嘆)이 극도에 달한 어떤 낄밤 선주(船主), 선두(船頭), 이부인(李婦人) 등 3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백발로인(白髮老人)이 꿈에 벼개 옆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데리고 온 애보는 계집애를 이 섬에 남겨두라 그애만 남겨둔다면 너희들은 모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3인이 모두 같은 꿈을 꾸었고 돌아갈 것만 생각하는 일행은 물에 놓은 애포대기를 가질러간 계집애를 섬에 남긴채로 그만 창파(滄波)에 배를 띄우고 말았다.

갑자기 잔잔해진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온 일행은 다음해 4월에 다시 마라도에 건너와서 해변 가까이 있는 동혈(洞穴)에서 희생되어 죽은 애보는 계집애의 백골(白骨)을 발견하여 따뜻한 장례(葬禮)를 지냈다. 일신(一身)을 바쳐서 일행을 구한 이 가련한 여아의 영(靈)을 공양(供養)치 않은 한 처녀는 바다에 들어가 죽고 한 나무꾼은 발을 몹시 다쳤다고 한다.

이 애화(哀話)를 이야기하는 금옹(金翁)은 먼하늘을 바라보며 가련하게 일생을 마친 계집애의 영을 위하는 사당을 아직도 바다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위한다고 말하였다.

(城大學報, 第18號, 第2面, 1944, 原日文)

## 제 주 도 전 설

### 눈까진 장서방(눈먼 장 꿩)

3년이나 흉년이 들어 모두가 먹을 것에 곤란을 느끼었다. 그러니 산 사람들이 산에 있는 꿩들을 잡아 먹으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산동리에 사는 부(夫) 서방은 3년 묵은 콩밭에 치를 놓고 콩을 몇 알 뿌려 두었다.

이튿날 아침, 꿩 한 쌍이 그곳에 와 보니 몇 해만에 보는 콩알이라 곧 쪼아먹으려고 하였지만, 지혜있는 암꿩은 이것을 경계(警戒)하였다. 그러나 욕심있는 장꿩은 오히려 암꿩을 꾸짖고 자기가 뒤에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라 하고, 선뜻 먹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콩을 몇알 먹다가 이 장꿩은 그만 그 치에 치어서 움쪽 못하게 되어 비명(悲鳴)을 올리게 되었다.

암꿩은 수꿩을 구해 내려고 주둥이로 물어 끌어 내기로 하였지만, 몇 번이나 깃털만 빠져서 수꿩은 더 아플뿐이었다. 나중에는 수꿩은 죽을 것을 각오(覺悟)하게 되었고 암꿩에게 유언(遺言)을 하는 것이었다.

『여보 마누라, 나는 당신과 어린 것 여덟을 남기고 먼저 죽소. 내가 죽어도 어린 것이란 잘 키우소. 그리고 내 뼈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다가 터 좋은데 물어주요.』

유언까지 끝난 뒤에 산사람 부서방은 어제 논 치를 보러 그곳에 오이 과연 큰 장꿩 한마디가 걸려 있다. 빨리 목을 비틀어 죽여서 구렁에 담아갔다가 잡아 먹기를 시작하였다.

암꿩은 사람이 먹고 버리는 수꿩의 뼈를 주어다 묻으려고 지붕에서 잔뜩 기다린다. 그러나 내던지는 뼈조각은 매번 그집 개란놈이 곧 받아 먹으니 이 뼈조차 주어 갈길이 망연(茫然)하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는 그곳 사람들의 풍속에 따라 뒷길(또 잡을 것)을 생각하여 수꿩의 대다리만은 개가 먹지 못하게 뒷 지붕에 던지는 것을 이 암꿩은 물어다가 독수리에 터를 골라 달래서 물어 버렸다.

독수리는 터 보아준 샴을 청했으나 값을 길을 없는 과부 꿩은 찢찢 뿔 수밖에 없었다. 사나운 독수리는 동정할 이가 만무라, 새끼 한 마리를 그 값이라고 하여 채어가 버린다.

그 뒤에 이 과부 꿩은 영감의 덕이었는지 새끼를 잘 키워서 모두 장가 시집을 보내고 이 아들 저 딸의 집으로 돌아 다니는 것이 낙이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과부 꿩이라 못놈들이 와서 자꾸 꼬인다.

하르는 참새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몸은 작지만 마음조차 작으리까? 오심 나영 사라보게(와서 나와 살아보세)』

이 말을 들은 과부 꿩은 분해서 부지깽이로 이 참새를 때려 쫓아 버리고 말았다.

얼마 있다 또 까마귀란 놈이 와서는 하는 말이

“내가 주둥이는 구불어졌으나 마음조차 구부러졌겠오? 오심 나영 사라보게”

이 고집통이 과부 꿩은 이 솔개까지 부지깽이로 쫓아 보리고, 옆 집 장서방(꿩) 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였다.

“여자 혼자서 사니까 별 놈이 다 와서 야단이우. 참새란 놈이 아니 왔답니까 까마귀란 놈, 솔개란 놈, 별 놈이 다 와서 야단이라우.”

“그러기에 내 언제 멀합니까. 웃동네에 사는 눈까진 장서방과 살라고  
않합디까”

“눈먼 장서방은 나는 싫어요”

“공연히 그러지 마우. 그 장서방이 제일이라우.”

이와 같이 옆집 장서방과 이야기를 건넨 일이 있었다.

그 뒤, 얼마 있다가 이 과부 꿩에게는 또 오리 한 마리가 날아 와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이런 산골에서 혼자서 고생스레 살 것이 무엇이요. 나와  
함께 아랫동네 논 많은 곳에 가서 깨끗이 살며 쌀밥먹고 편히 지냅시  
다 그러.”

여기서 이 과부 꿩은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과연 이런 산골에서 혼  
자서 사는 것 보다는 아랫동네 논 많은 곳에 가서 오리와 함께 쌀밥먹  
고 사는 것이 좋을 것도 같다. 그래서 이 과부 꿩은 다시 그 오리에게  
시집갈 날을 받고 준비를 하게 되었다.

뒤에 그것을 안 옆 집 장서방은 이 과부 꿩이 시집간다는 날 아침에  
달려와서 야단을 하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큰 일이요. 말이 논이지 그 곳에 갔다가는 제일에 얼어 죽  
을 것이고 산에 살던 아주머니가 논 많은 곳에 간다고 편안할 줄 아  
오? 오리 같은 헛 놈을 사귀었다가 어찌려고 그러우?”

“이 놈, 헛 놈 오리야. 어서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이 난 통에 산골 장서방 께에서 많이 달려들어 오리를  
쫓아 버렸고 이 과부 꿩도 까딱하면 오리한테 속을번 한줄 알고 옆집  
장서방의 중매로 웃동네 눈까진 장서방에게로 다시 시집가기로 하였다.



## 제주도전설

### 독버르니

제주도(濟州島)에 가면 남제주군(南濟州郡) 정의읍(旌義邑) 근처에 ‘독버르니’라는 고개가 있다. 그것은 독이 깨진 곳이란 뜻이고, 그 이름이 생긴 유래(由來)란 것이 우리 육지(陸地)의 ‘독쟁이 구구’와도 꼭 같다.

여기 소개하려는 독버르니의 유래기(由來記)는 한 장님의 망상(妄想)인데 육지의 독쟁이 구구가 무당 판수가 많은 제주도에서 장님으로 변하였고, 달같이 많은 곳이라 이야기가 달갈로 시작된 것이 재미있다.

장님이 길을 가다가 돈을 한 푼 얻고는 기뻐서 그 언덕까지 오르는 쉬기로 하였다. 이 고개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할 것 없이 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짐진 사람은 으레히 쉬는 곳으로 되어 있다. 이 날도 장님이 쉬는 동안 독장사가 지개를 작대기로 버티고 옆에서 쉬고 있던 것이었다.

장님은 쉬는 동안에 길에서 얻은 한푼의 돈으로 망상(妄想)을 하는 것이었다.

이 한푼으로 달갈을 한 개 사야겠다.

그 달갈은 옆 집에서 달갈깨울 때 부탁을 하여 같이 깨워서 한 마리의 병아리로 해야겠다.

그 병아리는 그 집에서 좀 키워 달래서 나중에 암탉으로 달래야겠다.

암탉은 알을 낳을터이니 그 달갈을 모아서 우리의 암탉으로 많은 병

아리를 깨워야겠다.

많은 병아리는 많은 큰 닭으로 될 것은 물론이다.

이제는 닭이 너무 많으니 닭을 팔아서 말을 사야겠다.

암말 숫말을 사서 새끼를 받으니 닭보다도 큰 놈들이라 돈이 더 많이 생기겠다.

그럼 소도 사다가 기르자.

자 이제는 닭뿐만 아니라 말이나 소까지도 들어가니 말이나 소를 약간 팔아서 집도 사고 밭도 사자.

집도 있고 밭도 있으니 이제는 마누라도 있어야지. 그러면 장가를 가야겠다.

집도 있고 밭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짐승들도 많고 점점 재산이 늘어나니 그때에는 작은 마누라도 하나 구해야겠군.

하하 이 작은 마누라가 들어오면 큰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를 얹아 야단을 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힘들여 차려놓은 살림을 마누라들이서 싸움을 해서 깨뜨린다면, 제기랄 그때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 생각한 장님은 혼자서 흥분(興奮)이 되어 일어나자 이년 이년하며 이 부근을 지팡이로 후러대는 것이었다. 그 지팡이가 마침 그곳에 세워있던 독장사 지게작대기에 닿아 지게는 넘어가면서 지게 위에 있던 독들은 모두 깨져버리고 말았다.

옆에 있던 독장사는 갑자기 야단을 치는 장님의 행동(行動)을 말릴 수도 없이 앉은 곳에서 큰 손해를 보았다. 장님이 길에서 주은 한푼의 돈은 결국 이 고개 위에서 많은 독이 깨지게 한 것으로 그 때부터 이 고개 이름은 “독버르니”로 불리우게 된 것이다.

## 濟州島의 回想

작하(昨夏 ; 1936년) 나는 1개월여 제주도에서 동물 채집 여행을 하였는데 그 결과의 대부분은 “제주도산접류채집기(濟州島産蝶類採集記)”라고 하여 Zephyrus지에 투고(投稿)했으니 여기에는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단편적인 편상(片想)들만을 적기로 한다.

### 1. 도시와 부락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제주도의 민가를 보면 육지의 해남 지방서의 감(感)이 생긴다. 같이 강풍을 피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때문이겠다. 도시라면 제일 큰 것이 인구 3만5천여의 제주민인데(진짜 도시는 읍내에서도 성내 뿐이다)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오사카(大阪)풍이 많이 들어와 있어 전체로 육지에 비하여 오히려 진보된 관(觀)이 있다. 소도시의 상점을 들여다보더라도 꽤 물건이 많고 이발소 같은 시설도 개성(開城) 등지의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욱이 서호리(西好里)와 토평리(吐坪里)는 훌륭한 부락들로 제일에 깨끗하고 식수(植樹)가 많고 상수도의 설비가 있는 등 대도시에 비해서도 부끄러울 바가 없다. 다른 많은 부락들도 대부분이 이와 유사하다. 거기다가 공기는 좋아서 건강지로서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곳곳의 부락에는 폐병환자(肺病患者)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오사카(大阪) 방면에 여공(女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폐병이 들어서 돌아온 때문이라고 한다.

[追記] 이것은 1개월간의 피상적(皮相的) 관찰로 된바요 제주도가 건강

지대라고 하기는 어렵다. 자세한 점은 줄저 『濟州島の 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2. 율파종(栗播種)후의 복토겸균지(覆土兼均地)

제주도 특유의 것으로 종자를 산파(散播)하고 그 위를 십여두, 많을 때는 수십두의 우마로 밟게 하는 방법인데 남녀 수명이 우마의 뒤를 따르면서 부르는 민요는 우리에게는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어서 이국 정취까지 느껴지지만 어딘가 로맨틱한데가 있어서 곤충채집중의 우리들은 포충망(捕蟲網)을 옆에 놓고 앉아서 황홀(恍惚)히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때가 있었다.

## 3. 오백나한(五百羅漢)

일명 오백장군이라고도 하고 한라산 정하(頂下) 서남쪽에 있는 것인데 기암(奇岩)의 자태에서 그 명칭이 유래된 모양이다. 우리들은 2,3차나 그곳엘 갈려고 하였지만 우천(雨天)으로 말미암아 갈 수가 없었고 겨우 8월 15일 오후 한때 맑아지는 틈을 타서 오백나한의 원경(遠景)만은 보았다. 영험한 오백라한은 그리 쉽게는 그 자태를 보이지 않는다. 비많은 해에 온 죄다.

## 4. 감귤원(柑橘園)

나는 서귀면 서본(西本)씨의 제주농원을 견학하였는데, 이 농원 부근이 조선 유일의 밀감(蜜柑)의 산지라고 듣고는 더욱 귀하게 보았다. 이

곳의 감귤류는 아직 본도 내에서 전부 소비되는 형편이니 육지부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 5. 가파도(加波島)

제주 주도(主島) 서남단에 모슬포(慕瑟浦)란 제주도 굴지의 항구가 있다. 그밖으로 멀리 남쪽에 마라도란 조선 최남단의 지표(地標)를 점하는 고도(孤島)가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가파도는 모슬포와 마라도의 중간에 개재(介在)한 것이다. 가파도는 마라도에 비하여 면적, 인구가 크고 많지만 보통 지도에는 마라도는 실려있고 가파도는 빠져있다. 이것은 아마 마라도편이 지리학상으로 더욱 중요성을 많이 갖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리학적으로는 중요치 않은 따라서 世上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가파도에 대하여 소개할만한 자료를 이번에 견문(見聞)하였다.

무인도이었던 가파도가 처음으로 개간(開墾)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80년전이라고 한다. 원래 소구(小丘)도 없는 평탄한 주위 10이도 안되는 소도이니 개척은 비교적 쉬웠던 모양이고, 본래 있던 나무는 베기만하고 심지 않은 때문에 지금은 전도가 경지이고 나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형편으로 신목(薪木)도 주도(主島)로부터 구입한다고 한다. 나는 곤충 채집 때문에 건너왔지만 전도에 자연상태가 보존된 곳은 전혀 없어서 볼만한 채집품도 얻을 수가 없었다.

가파도에는 현재 호수 170여, 인구 700여요 비교적 훌륭한 학원(學園)이 있다. 신유의숙(辛酉義塾)이라고 하는데, 직원은 2명, 보통학교 정도의 개량서당으로 도민의 경영이니만큼 도민 전체가 이용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모양이다. 도민중 성인 남자 전부는 어업에, 여자 전부

는 해녀에 종사하는데 40세 이하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1인의 문맹도 없다. 제주 주도(主島)서는 여자는 일하고 남자는 노는 악습이 있지만, 이 섬에서는 이렇지가 않고 남녀가 평등으로 누구나 일한다는 미풍(美風)이 있다. 그러나만큼 남녀는 모두 기개가 있고 용감하여 애들까지도 모두 활달하다. 애들은 공부하는 한편 때로는 부업인 농업을 돕고 놀 때엔 수영을 하는데 거의 물고기 모양으로 자유롭게 헤엄을 친다. 여아는 해녀가 되는 훈련, 남아는 창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 헤엄치는 물고기를 찌른다. 이 애들을 볼 때 나에게는 직각적으로 전부가 올림픽 수영선수의 난(卵)으로 밖에 아니 보인다. 여행으로부터 돌아와서 손기정(孫基禎) 선수가 백림(伯林)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에 일등한 것을 듣고는 일층 감격하였다. 또 도민의 선조종(船操縱)은 실로 신기(神技)라고 할만하다. 나는 모슬포(慕瑟浦)로부터 왕복 모두 가파도민 조종의 소범선에 의하였는데 배를 전복(顛覆)않시키는 그들의 조종술을 경탄하였을 뿐이다.

다음으로 본도의 명물이라고 하면 해녀들이 따오는 큰 전복과 도산(島産)의 참외이다. 나는 다행히도 신유의숙 교원 문시욱(文始旭)씨의 호의로 두가지를 모두 맛볼 수가 있어서 유쾌하였다. 또 ‘자리회’도 본도의 명물이라한다. 그러나 그 뼈채로 먹는데는 육지인인 나에게는 친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 6. 한라정원(漢拏庭園)

제주도라면 한라산으로 된 섬이라고 하면 된다. 한라산은 해발 근 2천m의 큰 고산(高山)이고 심계(深溪)·호수(湖水)·삼림(森林)·초원(草原)·암석(巖石) 등의 재미관(諸美觀)을 포함하여 주위의 벽해(碧海)

와 어울려서 흠잡을 수 없는 정도로 조건이 구비된 일대 공원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유감스럽게도 세상 사람에게 간과(看過)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내가 한라정원(漢拏庭園)이라고 가칭(假稱)하여 여기 소개하는 것이다. 김남천(金南天)씨 초기 밭(樵小屋)에서 제주읍으로 향하여 조금 간 곳 즉 토적악(土赤岳 : 흑붉은오름) 동쪽 석파(石坡 : 속밭)이라는 완만(緩慢)한 경사지에 있는 천연정원(天然庭園)은 실로 훌륭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나 인위적 소산(所産)으로 단정케 할 정도로 미관(美觀)을 정(呈)한다. 정원학상의 지식이 없는 필자는 그 형용을 전연 생략키로 하지만 다만 그 규모가 커서 배후의 한라상봉과 어울려 전도의 자랑이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 7. 산중하천(山中河川)

보통때는 단순한 석곡(石谷)이던 것도 우천(雨天)에는 훌륭한 하천으로 되는 것은 다른 산에서도 볼 수 있는 바다. 제주도서도 입산한 사람이 비를 만나 비를 피하기 위하여 곡간암하(谷間岩下) 등에 은신(隱身)한 것이 불행히도 뒤에 흘러내려가 비참하게 죽는 예가 때때로 있다고 한다. 또 현재 큰 강모양으로 흐르던 것도 몇 시간 동안에 수량이 펴주는 수도 때때로 있다. 나도 실제로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였는데 수량이 너무 많고 수류(水流)가 너무 급하여 부득이 물가에서 몇 시간 기다려서 수량이 감(減)한 때 일행이 모두 서로 팔들을 끼고 옆으로 걸어서 내를 건널 때가 있었다.

(地理學研究, 第14卷, 第5號, 25-7頁, 1937. 原日文)

## 主要作物播種量比較表

(升反當)

作物名	濟州島西歸面吐坪里 (大學試驗場)			慶北安東 (農林學校)	開城府雲鶴町 (生藥研究所)		
	松原氏	金山氏	平均	原口校長	松江氏	松本氏	平均
大麥	8.0	8.0	8.0	5.0	5.0	10.0	7.5
小麥	3.0	4.0	3.5	4.0	4.0	7.0	5.5
蕎麥	3.0	4.0	3.5	5.0	—	—	—
粟	0.48	0.4	0.44	0.6	1.0	2.0	1.5
稗	0.48	0.4	0.44	0.5	1.0	2.0	1.5
大豆	3.0	4.0	3.5	4.5	4.0	55.0	4.5
甘藷	12.0	9.0	10.5	100.0	10.0	20	17.5
馬鈴薯	80.0	20.0	50.0	50.0	50.0	75.0	62.5

위 표의 숫자는 신뢰할만한 것인데 이 표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의 주요농작물의 과중량은 중선(中鮮), 남선(南鮮)에서보다 대맥(大麥)  
만 제외하고는 모두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木香의 栽培試驗 (1943)

장소……제주도 서귀면 토평리 대학시험장

3월 13일……정지(整地 : 除草 및 作床), 식부(植付), 휴폭(畦幅) 2척,  
보도(步道) 1척, 식부 본수(本數) 584, 기비(基肥)로 퇴비(堆肥) 105관.



- 5월 11일……제초
- 6월 8일……적엽시험(摘葉試驗) 개시. 이후는 수시 적당히 적엽함.
- 8월 2일……제2차의 제초.
- 11월 10일……수확(收穫).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향(木香)의 적엽시험성적(摘葉試驗成績)

階級	根頭部상에 남긴 葉數	供試本數	1本の 收穫高(刃)		
			4芽附根頭部	生根量	計
1	4	179	13.41	11.17	24.58
2	6	172	17.09	21.75	38.84
3	8	160	18.75	26.50	45.25
4	花莖摘去	41	12.44	26.83	39.27
5	採種分	21	26.67	33.33	60.00

비고

- (1) 본 시험은 석주명(石宙明)의 지도하에 김남운(金南雲)군이 담당한 것이었다.
- (2) 공시(供試) 본수는 계 573본이고 5계급으로 구분하여 시험하였는데 각 주의 환경을 동조건으로 한 것은 물론이고 그간에 한 회회의 시비와 3회의 제초도 모두 각 주에 동조건으로 하였다.
- (3) 제5계급의 채종분(採種分)이 최양(最良)인 성적은 재검토를 요하는 바이다.
- (4) 본시험의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가. 엽(葉)을 4~6매 남기는 것은 손(損)이다.
  - 나. 8매 남긴 것. 화경적거분(花莖摘去分), 채종분의 3계급은 재시험후 비교하여 그 우열을 결(決)할 것이다.

蓖麻의 栽培試驗

(1943~44)

장소…제주도 서귀면 토평리 대학시험장.

3월 18일……정지(整地; 均地 및 除草). 파종은 점파(點播)로 1곳에 4입(粒)씩. 복토(覆土) 1촌(寸), 주간방(株間方) 3척. 파종량 2합(合). 무비료.

7월 27~29일……제초

1월 14일……수확

비마(蓖麻)의 품종별 재배시험성적

階級	品種名	供試本數	種子收穫高		1本の 收穫高	
			重量(匁)	粒 數	重量(匁)	粒 數
1	赤芒	415	790	9,551	1.9	23
2	靑芒	13	24	354	1.8	27
3	赤丸	] 양자는 조제중 인부의 불주의로 혼합하여 무의미로 되었음.				
4	靑丸					

비고

- (1) 본시험은 석주명(石宙明)의 지도하에 김남운(金南雲)군이 담당한 것이었다.
- (2) 품종명은 불명하지만 형태적으로 식물의 색채와 과실표면망(果實表面芒)의 유무로서 적망(赤芒), 청망(靑芒), 청환(靑丸)의 4계급으로 분류하여 검(檢)하였다. 재배의 조건은 각 주에 평등히 한 것은 물론이었다.
- (3) 가장 혼한 적망(赤芒) 품종은 청망(靑芒)에 비하여 수확량(收穫量: 重量)이 많고 입수(粒數)는 오히려 적으니 우량품종(優良品種)임이 분명하다.
- (4) 그러나 적환(赤丸)과 청환(靑丸)과의 관계는 불명(不明)하니 1년 더 시험을 계속 하여야겠다.

II

12월 6일 …… 수확(收穫)

1월 15일 …… 조제(調製)

1월 16일 …… 측정(測定)

비마(蓖麻)의 품종별 성적

階級	品種名	本數	種子收穫高		1本の 收穫高		1粒의 重量(刃)	優良順
			重量(刃)	粒 數	重量(刃)	粒 數		
1	赤芒	58	392	5,382	6.76	92.79	0.07	2
2	青芒	38	340	4,008	8.95	105.47	0.08	1
3	赤丸	52	237	3,304	4.56	63.54	0.07	4
4	青丸	16	99	1,410	6.19	88.13	0.07	3
1	赤芒	487	3,030	42,480	6.22	87.23	0.07	1
2	青芒	13	25	450	1.92	34.62	0.06	4
3	赤丸	36	162	2,544	4.50	70.67	0.06	2
4	青丸	3	6	107	2.00	35.67	0.06	3

品種別 優良順位

	第1境遇	第2境遇	平 均	判 定
赤 芒	2	1	1.5	1
青 芒	1	4	2.5	2
赤 丸	4	2	3	3
青 丸	3	3	3	4

비고

- (1) 이상의 성적으로 가장 혼한 적망(赤芒) 품종이 가장 우량하고 적은 청보다 유망(有芒)은 무망(無芒)보다 우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 (2) 그러나 실험실적(實驗實績)에 균정(均整)되지 않은 점도 있으니 1년만이라도 재배를 더 계속해 볼 것이고 또 순계분리(純系分離)도 하여 진짜 품종을 선정하여야겠다.

## 濟州島廳論

9월말에서 10월초에 걸쳐서 발간된 귀지(貴紙)를 지금 서울서 읽고 두어줄 글월을 드리겠습니다.

고래로 우리 동양 사람은 형식으로 살아왔고 서양 사람들은 실질로 살아 왔다고 나는 봅니다.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보지를 않고 짐작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양으로 부터의 실학(實學)의 풍조와 낭만주의 내지 자연주의로 표현된 감정의 표현 방식은 종내 막아낼 수가 없었고 그것들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현단계에 있어서 부자연한 점이 많은 것도 무리는 아니외다.

목하(目下) 지방조직법(地方組織法) 상정(上程)을 계기로 제주도 소속(所屬) 문제가 제주도에서 여론화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제씨(諸氏)의 담화 발표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점에서 모두 일치한데는 고마운 일입니다. 나는 도(島)가 도(道)로 승격하는 당초부터 미국인 군정하의 위곡(萎曲)된 하나의 행정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실질을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형식을 좋아한다고 보이는 한국에서 행정할 때 제주도가 특수하고도 중요하다고 해서 도(道)로 승격시킨 것이고 도(道)로 했으니까 군(郡)을 둔 것입니다. 근본 2군을 포함한 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두 말할 것 없이 비능률적인 기구이겠지요. 도로는 되었으니 타도와의 균형을 생각해서라도 형식적으로 정비할테니 도민의 부담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본래 한국은 전역에 화강암(花崗岩) 지대가 많고 적절한 임정(林政)이 시행되지 않아서는 국토가 피폐될 것이고 사실 현하(現下) 국토가 그 도정(道程)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주도는 전체가 부식질(腐植質) 과다의 척박한 토지로 도민의 근로를 자연히 강요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근면하다는 말은 도민을 칭찬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근면치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제주도에 살고있는 것만도 고맙게 인의(認議)하도록 하여 국가 혜택의 균점(均霑)을 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제주도에 지사(知事) 각하가 계시고 고관(高官) 국장(局長)이 타도에 못지않게 여러분이 있다면 도민(島民)의 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결국은 자치제로까지 될 것이니 도민 제위가 현명한 책(策)을 강구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끝으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제주도는 개발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도민은 살게될 것이며 제일에는 도중(島中) 지하수의 착출(鑿出)에 착안(着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 문제만 먼저 해결된다면 제주도 개발 문제는 반은 성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생산이 없는데 건국이 없다는 말은 벌써 진부(陳腐)에 속(屬)합니다.

(제주신보, 4281년 10월 20日紙 第2面)

## 大韓民國의 女多地域

D. M. Seok : Multi-female Districts in the Republic of Korea.

사람은 출산시의 성비가 남>여요 사망율의 성비도 남>여이지만 생존자 즉 주민의 성비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민의 성비만은 대체로는 남>여이고 특수한 사정으로 남<여로 되어 여다지역을 만드는 예가 있다.

남한총인구.....20,166,756

남 : 여.....10,188,238 : 9,978,518=1.02

즉 남자수는 그 약 2%가 여자수보다 많다. 그러나 시도별로 보아도 대개가 남>여임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제주도만은

남 : 여.....114,736 : 139,791

로 여자수가 20% 이상이나 남자수보다 많아서 제주도가 옛부터 여다국(女多國)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다.

그러나 일보(一步) 나가서 부구군면별(府區郡面別)의 통계를 보면 여다구역(女多區域)이 적지 않게 나온다. 그 중에서도 현저한 것들만을 들어 음미하기로 하자.

1. 여자수가 남자수의 1.40배 이상되는 구역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2. 여자수가 남자수의 1.35배 이상되는 구역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3. 여자수가 남자수의 1.20배 이상되는 구역

- 제주도
- 제주도 북제주군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면
-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 제주도 북제주군 성산면

4. 여자수가 남자수의 1.15배 이상되는 구역

- 제주도 제주시
- 제주도 남제주군
-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면
-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

이상 여자수가 남자수의 1.15배 이상이나 되는 현저한 여다 지역들은 모두 해안에 면한 제주도의 것들 뿐이요 그 중에서도 극단의 조천, 구좌의 양면은 일제시대부터 사상적으로 격렬한 곳으로 제주동란을 겪은 뒤의 통계임을 여실히 말하여 준다.

5. 여자수가 남자수의 1.10배 이상되는 구역

- 경기도(京畿道) 강화군(江華郡) 길상면(吉祥面)
- 전남(全南) 영암군(靈岩郡) 금중면(金中面)
- 전남(全南) 무안군(務安郡) 도초면(都草面)
- 경남(慶南) 창원군(昌原郡) 천가면(天加面)

경남(慶南) 통영군(統營郡) 연초면(延草面)

이상의 5개면중 영암군(靈岩郡) 중면(中面)을 제외한 전부가 해안면(海岸面)이요 금중면(金中面)도 그것을 포함한 영암군은 해안군으로 역시 이 여다(女多) 지역이 모두 해안지역임을 알겠다.

6. 여자수가 남자수의 1.05배 이상되는 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鐘路區)

경기도(京畿道) 부천군(富川郡) 북도면(北島面)

경기도(京畿道) 부천군(富川郡) 용유면(龍游面)

경기도(京畿道) 부천군(富川郡) 영흥면(靈興面)

황해도(黃海道) 웅진군(甕津郡) 북면(北面)

황해도(黃海道) 웅진군(甕津郡) 동강면(東江面)

전북(全北) 임실군(任實郡) 지사면(只沙面)

전남(全南) 구례군(求禮郡) 간전면(艮田面)

전남(全南) 구례군(求禮郡) 마산면(馬山面)

전남(全南) 구례군(求禮郡) 광의면(光義面)

전남(全南) 고흥군(高興郡) 도양면(道陽面)

전남(全南) 고흥군(高興郡) 과역면(過驛面)

전남(全南) 무안군(務安郡) 차은면(慈恩面)

전남(全南) 무안군(務安郡) 안좌면(安佐面)

전남(全南) 무안군(務安郡) 암태면(岩泰面)

전남(全南) 완도군(莞島郡) 신지면(薪智面)

전남(全南) 완도군(莞島郡) 청산면(靑山面)

전남(全南) 완도군(莞島郡) 소안면(所安面)

전남(全南) 완도군(莞島郡) 노화면(蘆花面)



전남(全南) 진도군(珍島郡) 조도면(鳥島面)  
경북(慶北)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경북(慶北) 경주읍(慶州邑)  
경북(慶北) 표산군(表山郡) 도개면(桃開面)  
경남(慶南) 울산군(蔚山郡) 강동면(江東面)  
경남(慶南) 울산군(蔚山郡) 온산면(溫山面)  
경남(慶南) 울산군(蔚山郡) 서생면(西生面)  
경남(慶南) 김해군(金海郡) 녹산면(菴山面)  
경남(慶南) 고성군(固城郡) 개천면(介川面)  
경남(慶南) 고성군(固城郡) 남하면(南下面)  
경남(慶南) 거창군(居昌郡) 남하면(南下面)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楸子面)

이상 33개 지역중 서울시 종로구, 개성부(開城府), 임실군(任實郡) 지사면(只沙面), 구례군(求禮郡) 간전면(良田面), 마산면(馬山面), 광의면(光義面), 경주읍(慶州邑), 선산군(善山郡) 도개면(桃開面), 고성군(固城郡) 개천면(介川面), 구만면(九萬面), 거창군(居昌郡) 남하면(南下面) 등 11개 구역을 제외한 22개 구역은 모두 해안 지역들이다. 그리고 북제주군의 추자면이 여기 속하는 것으로도 추자도가 제주도 같은 여다 구역이 아님을 가히 알겠다.

이제 211개의 내륙 지역을 음미하기로 하자.

서울시 종로구에는 기생(妓生), 여급(女給), 기타가 많고 개성부는 남자의 이타(移他)가 많은 때문이겠다.

고성군(固城郡)의 개천(介川), 구만(九萬) 양면은 군으로는 해안군(海岸郡)이다.

경주읍(慶州邑)은 고도(古都)이라 유흥지화(遊興地化)하여 기생같은 사람이 많은 때문일까?

임실군(任實郡) 지사면(只沙面), 구례군(求禮郡) 간전면(良田面), 마산면(馬山面), 광의면(光義面), 선산군(善山郡) 도개면(桃開面), 거창군(居昌郡) 남하면(南下面) 등 6개 지역은 모두 내륙지역인데 무엇때문에 여다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곧 알 수가 없다.

#### 7. 여자수가 남자수의 1.05배 미만의 부군(府郡)

마산부(馬山府), 진주부(晉州府), 강화군(江華郡), 개풍군(開豐郡), 연백군(延白郡), 연기군(燕岐郡), 구례군(求禮郡), 여수군(麗水郡), 고흥군(高興郡), 해남군(海南郡), 영암군(靈岩郡), 무안군(務安郡), 완도군(莞島郡), 진도군(珍島郡), 영덕군(盈德郡), 경주군(慶州郡), 의녕군(宜寧郡), 함안군(咸安郡), 울산군(蔚山郡), 통영군(統營郡), 고성군(固城郡), 사천군(泗川郡), 남해군(南海郡).

이상 24개 지역중 진주부(晉州府), 연기군(燕岐郡), 구례군(求禮郡), 의녕군(宜寧郡), 함안군(咸安郡)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9개 지역은 모두 해안 지역들이다. 25개의 내륙지역중 진주부만은 기생 때문에 여다지역으로 되었을 것이고 기타의 4개 지역의 사정은 곧 알 수가 없다.

요컨대 이상 취급한 숫자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해안지방에 여다지역을 이루는 경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와같이 해안지대에는 여자가 많고 내륙지대에는 남자가 많다는 사실은 옛날이라는 것보다도 태고로부터도 알려진 사실인양 싶다.

서양 제국(諸國)서는 언어에 있어서 해양에 관한 것은 모두 여성으로

취급하고 육지의 것은 모두 남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양서도 서양서와 같이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고문헌을 통해서는 그런 사상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즉 中國人 孫詒讓著 國學基本叢書 周禮正義(三) 十八 卷六十三(中華民國 23年(1934) 4月, 上海)에 “案此經, 揚荊豫兗幽并之州, 皆女多於男, 雍冀二州, 則男多於女, 淮南子地形訓云 山氣多男, 澤氣多女”라고 있다.

此經은 周禮, 揚荊豫兗幽并之州는 內陸의 6州, 雍冀二州는 海岸의 2州, 淮南子 地形訓은 漢武帝時(B. C. 140~87)의 淮南王 安氏의 저서를 2000여년전에 벌써 중국에는 해안에 여자가 많고 내륙에 남자가 많다는 생각이 분명히 뿌리박혔음을 알 수가 있는 동시에 이 사상을 고대로부터 동서양에 공통된 것이었으나 서양에서 더욱이 보편화하였음을 알 수가 있겠다.

끝으로 중국고문헌을 교시(敎示)하신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선생께 사의(謝意)를 표한다.

## 補 遺

(統計官 朴潤德)

대한민국 제1회 인구조사결과속보(人口調查結果速報; 이하 速報라고 칭함)는 단기 4282년 5월 1일 오전 0시 현재로 전국을 일제히 조사한 총 인구를 국적별과 남녀별로 읍면까지 표시하였다. 이 책에 의하면 여자수가 남자수보다 많은 읍면은 466인데 5%가 더많은 여다(女多)지역이라 칭하는 논거(論據)가 어디 있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나는 속보의 읍면인구 남자 100에 대한 여자의 수를 하나하나 카드에 기입하여서 숫자

의 대소로 정리하여 얻은 도수분포표(度數分布表)는 표1과 같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분포곡선은 하나의 뾰족한 꼭대기를 가진 산을 그리는데 곡선의 양단은 기선(基線)과 고차(高次)의 접촉을 한다.

표 1에서 대표치로서 산술평균치와 산포도(散布度)로서 표준편차와 좌우대칭성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왜도(歪度)와 도수분포곡선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첨예도(尖銳度)를 계산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되니 이것을 정규분포라고 칠 수는 없다.

- 산술평균치 ..... 98.2
- 표준편차(Sheppart씨 보정을 한) ..... 4.0
- 왜도(상대적) ..... +1.7(정규곡선 0 중등왜도 3)
- 첨예도(Sheppart씨 보정을한) ..... 2.7(정규곡선 3)

그러므로 대표치로서 중앙치와 산포도로 사분편차를 정리한 카드에서 빼어내면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

- 중앙치 ..... 98
- 제1회 분점 ..... 97(숫자가 작은 카아드로부터 세어서 383번째)
- 제3·4 분점 ..... 100(숫자가 큰 카아드로부터 세어서 383번째)



그러므로 사분편차는 1.5

이 결과로서 따진다면(중앙치)+4(사분편차)가 되는 점은 104로서 여자수가 남자수보다 5% 이상되는 점을 여다지역이라고 본 석선생의 직감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표1에서 계산한 중앙치 97.36과 사분편차 2.35를 가지고 논하더라도 105는 사분편차의 2배보다는 훨씬 크고 3배보다는 조금 작으니 역시 5% 기준은 무난하다고 보겠다.

끝으로 여다읍면의 분포지도와 여다와 남다읍면일람표를 첨기하여 둔다. 지면과 활자 관계로 통계계산표와 도수분포곡선은 생략하였다.

## 女多와 男多面 一覽表

단기 4282년 5월 1일에 시행한 대한민국 제1회 총인구조사결과에 의하여 전국 1531읍면 인구 남자 100인에 대한 여자의 수를 일일이 카드에 기입하여서 숫자의 대소순으로 정리하여 얻은 중앙치와 사분편차를 이용하여 통계학적으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확율 즉 변이범위가 중앙치에서 사분편차의 4배를 벗어난 수자만 기록하였다.

### 여다음면(女多邑面)

#### 전라남도(全羅南道)

- 고흥군(高興郡) 도양면(道陽面) 104
- 보성군(寶城郡) 미력면(彌力面) "
- 보성군(寶城郡) 태산면(態山面) "
- 영암군(靈岩郡) 학산면(鶴山面) 104
- 진도군(珍島郡) 군내면(郡內面) "
- 무안군(務安郡) 비금면(飛禽面) "
- 무안군(務安郡) 자은면(慈恩面) "
- 완도군(莞島郡) 군외면(郡外面) "

#### 전라북도(全羅北道)

- 남원군(南原郡) 대산면(大山面) "
-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 "
- 정읍군(井邑郡) 고부면(古阜面) "

#### 경상남도(慶尙南道)

- 울산군(蔚山郡) 강동면(江東面) ”  
 울산읍(蔚山邑) ”  
 망어진읍(方魚津邑) ”  
 사천군(泗川郡) 사천면(泗川面) ”  
 삼천포읍(三千浦邑) ”  
 통영군(統營郡) 장목면(長木面) ”  
 의령군(宜寧郡) 대의면(大義面) ”  
 경상북도(慶尙北道)  
 문경군(聞慶郡) 산양면(山陽面) ”  
 예천군(醴泉郡) 하리면(下里面) ”  
 영주군(榮州郡) 장수면(長壽面) ”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夫餘郡) 양화면(良化面) ”  
 서천군(舒川郡) 판교면(板橋面) ”  
 경기도(京畿道)  
 연백군(延白郡) 호동면(湖東面) 104  
 연백군(延白郡) 송봉면(松逢面) ”  
 개풍군(開豐郡) 남 면(南 面) ”  
 개풍군(開豐郡) 서 면(西 面) ”  
 강화군(江華郡) 교동면(喬洞面) ”  
 용진군(甕津郡) 용연면(龍淵面) ”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군(莞島郡) 노화면(蘆花面) 105  
 구례군(求禮郡) 마산면(馬山面) ”  
 무안군(務安郡) 지도면(智島面) ”



고흥군(高興郡) 과역면(過驛面)	”
고흥군(高興郡) 도화면(道化面)	”
전라북도(全羅北道)	
남원면(南原面) 주천면(朱川面)	”
임실군(任實郡) 청웅면(靑雄面)	”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군(蔚山郡) 서생면(西生面)	”
통영군(統營郡) 거제면(巨濟面)	”
고성군(固城郡) 구만면(九萬面)	”
고성군(固城郡) 개천면(介川面)	”
김해군(金海郡) 녹산면(菴山面)	”
의령군(宜寧郡) 칠곡면(七谷面)	”
경상북도(慶尙北道)	
선산군(善山郡) 도개면(桃開面)	”
경주읍(慶州邑)	”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
경기도(京畿道)	
옹진군(甕津郡) 동강면(東江面)	”
옹진군(甕津郡) 북면(北面)	”
전라남도(全羅南道)	
구례군(求禮郡) 황전면(黃田面)	106
무안군(務安郡) 안좌면(安佐面)	”
완도군(莞島郡) 신지면(薪智面)	107
진도군(珍島郡) 조도면(鳥島面)	”
경상남도(慶尙南道)	

- 울산군(蔚山郡) 온산면(溫山面) "
- 경기도(京畿道)
- 부천군(富川郡) 용유면(龍游面) "
- 제주도(濟州道)
- 북제주군(北濟州郡) 추자면(楸子面) 108
- 전라남도(全羅南道)
- 완도군(莞島郡) 청산면(靑山面) "
- 완도군(莞島郡) 소안면(所安面) "
- 무안군(務安郡) 암태면(岩泰面) "
- 경상남도(慶尙南道)
- 영일군(迎日郡) 청하면(淸河面) "
- 강원도(江原道)
- 삼척군(三陟郡) 상장면(上長面) "
- 경상남도(慶尙南道)
- 통영군(統營郡) 연초면(延草面) 109
- 경기도(京畿道)
- 부천군(富川郡) 영흥면(靈興面) "
- 부천군(富川郡) 북도면(北道面) "
- 강화군(江華郡) 길상면(吉祥面) 110
- 경상남도(慶尙南道)
- 창원군(昌原郡) 천가면(天加面) 111
- 전라남도(全羅南道)
- 여수군(麗水郡) 삼산면(三山面) 114
- 제주도(濟州道)
- 남제주군(南濟州郡) 서귀면(西歸面) 115

남제주군(南濟州郡) 중문면(中文面) 117  
 남제주군(南濟州郡) 안덕면(安德面) 118  
 남제주군(南濟州郡) 대정면(大靜面) 118  
 남제주군(南濟州郡) 성산면(城山面) 120  
 남제주군(南濟州郡) 표선면(表善面) 121  
 북제주군(北濟州郡) 애월면(涯月面) 122  
 북제주군(北濟州郡) 한림면(翰林面) 125  
 북제주군(北濟州郡) 구좌면(舊左面) 135  
 북제주군(北濟州郡) 조천면(朝天面) 141

**남다음면(男多畝面)**

강원도(江原道)  
 원주읍(原州邑) 58  
 경기도(京畿道)  
 고양군(高陽郡) 은평면(恩平面) 69  
 양주군(楊州郡) 구리면(九里面) 73  
 경상남도(慶尙南道)  
 창원군(昌原郡) 진해면(鎭海面) 82  
 충청북도(忠淸北道)  
 제천군(堤川郡) 한수면(寒水面) "  
 경기도(京畿道)  
 김포군(金浦郡) 김포면(金浦面) "  
 전라북도(全羅北道)  
 임실군(任實郡) 강진면(江津面) 86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노은면(老隱面) "

강원도(江原道)

평창군(平昌郡) 미탄면(美灘面) "

정선군(旌善郡) 신동면(新東面) "

경기도(京畿道)

이천군(利川郡) 부발면(夫鉢面) "

경상북도(慶尙北道)

봉화군(奉化郡) 소천면(小川面) 87

강원도(江原道)

춘성군(春城郡) 산북면(山北面) "

강릉군(江陵郡) 현북면(縣北面) "

영월군(寧越郡) 북 면(北 面) "

경기도(京畿道)

가평군(加平郡) 북 면(北 面) "

강원도(江原道)

영월군(寧越郡) 상동면(上東面) 88

전라남도(全羅南道)

나주군(羅州郡) 공산면(公山面) 89

경상남도(慶尙南道)

동래군(東萊郡) 북 면(北 面)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이인면(利仁面) "

강원도(江原道)

강릉군(江陵郡) 신서면(新西面) "

전라남도(全羅南道)

영광군(靈光郡) 낙월면(落月面) 90

경기도(京畿道)

양평군(楊平郡) 청운면(靑雲面) "

양평군(楊平郡) 서종면(西宗面) "

연백군(延白郡) 해월면(海月面) "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양군(光陽郡) 진월면(津月面) 91

경상남도(慶尙南道)

김해군(金海郡) 생림면(生林面) "

김해군(金海郡) 이북면(二北面) "

양산군(梁山郡) 하북면(下北面) "

충청남도(忠淸南道)

서산군(瑞山郡) 안면면(安眠面) "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신니면(薪尼面) 91

강원도(江原道)

홍천군(洪川郡) 내 면(內 面) "

원주군(原州郡) 흥업면(興業面) "

영월군(寧越郡) 서 면(西 面) "

평창군(平昌郡) 도암면(道岩面) "

춘성군(春城郡) 사북면(史北面) "

춘성군(春城郡) 동 면(東 面) "

전라남도(全羅南道)

화순군(和順郡) 동 면(東 面) 92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외산면(外山面) "

대덕군(大德郡) 회덕면(懷德面) "

충청북도(忠淸北道)

단양군(丹陽郡) 가곡면(佳谷面) "

단양군(丹陽郡) 대강면(大崗面) "

영동군(永同郡) 상촌면(上村面) "

강원도(江原道)

홍천군(洪川郡) 기린면(麒麟面) "

횡성군(橫城郡) 서원면(書院面) "

삼척군(三陟郡) 소원면(所遠面) "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서운면(瑞雲面) "

가평군(加平郡) 외서면(外西面) "

가평군(加平郡) 상면(上面) "

용진군(甕津郡) 송림면(松林面) "

(大韓民國統計月報, 第8號, 附錄, 2-8頁, 1950)

## 「남녀수의 지배선(支配線)」의 위치

나는 줄저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에서 “제주도에 있어서의 남녀수의 지배선”을 제창하였다. 이 “남녀수의 지배선”이란 것은 출생시는 남>여인 것이 성장함에 따라 남이 많이 죽는 관계로 주민은 남<여로 되는데 그 중간에 남=여로 될 때의 경계선을 말함이다. 이 선은 제주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내지 전세계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대한민국통계월보 제1~3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각처에 있어서의 “남녀수의 지배선”의 위치를 구명하여 인구문제 연구에 한 자료로 제공코져 한다.

제1표 「남녀수의 지배선」의 일람표(註1~6)

지 역	성별연령계급 인구분포에서	성별 各歲 人口分布에서	合理的推定位置
서울시	44-45 歲間	44-45 歲間	44-45 歲間
京畿道	59-60 "	54-55 "	56-57 "
仁川府	54-55 "	54-55 "	54-55 "
開城府	19-20 "	18-19 "	18-19 "
江原道	79-80 "	73-74 "	76-77 "
春川府	54-55 "	55-56 "	55-56 "
忠淸北道	64-65 "	60-61 "	62-63 "
淸州府	54-55 "	54-55 "	54-55 "
忠淸南道	54-55 "	57-58 "	56-57 "
大田府	51-52 "	51-52 "	51-52 "
慶尙北道	54-55 "	59-60 "	57-58 "
大邱府	44-45 "	47-48 "	46-47 "

지역	성별연령계급 인구분포에서	성별 各歲 人口分布에서	合理的推定位置
慶尙南道	54-55 "	54-55 "	54-55 "
釜山府	49-50 "	50-51 "	50-51 "
晉州府	49-50 "	49-50 "	49-50 "
馬山府	51-51 "	49-50 "	50-51 "
全羅北道	54-55 "	55-56 "	55-56 "
全州府	49-50 "	51-52 "	50-51 "
群山府	54-55 "	52-53 "	53-54 "
裡里府	54-55 "	54-55 "	54-55 "
全羅南道	54-55 "	54-55 "	54-55 "
光州府	54-55 "	51-52 "	52-53 "
木浦府	54-55 "	54-55 "	54-55 "
濟州道	14-15 "	15-16 "	15-16 "
北濟州郡	14-15 "	16-17 "	15-16 "
南濟州郡	14-15 "	15-16 "	15-16 "

- (주) (1) 성별연령계급 인구분포는 1947년 현재.  
 (2) 부군(府郡)의 성별各歲인구분포도 1947년 현재.  
 (3) 서울시와 제주도의 성별各歲인구분포는 1944, 1947양년분.  
 (4) 그외 8도의 성별各歲인구분포는 1935, 1940, 1947의 4년분.  
 (5) 『합리적 추정위치』는 『성별연령계급인구분포에서』와 『성별各歲인구분포에서』에서 유도된 것.  
 (6) 통계월보에서 각도마다 16~18세로부터 청소년기에 남자의 수보다 여자의 수가 많을 수가 있는 것은 지방청소년들의 도시유학의 관계요, 1940년과 1944년 더욱이 1944년분에서 심한 것은 일제의 전쟁으로 인한 징용 때문이었다.

제1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제주도의 『남녀수의 지배선』의 위치가 극단으로 낮은 것은 유아의



사망율이 극단으로 높은 것과 남자의 사망율이 여자의 것 보다 현저히 높은 때문이요, 또 남자에는 출가인도 더욱이 많아서 여인국을 형성한다는 것은 전출 줄거에서 상론(詳論)한 바와 같다.

2. 개성부의 것도 제주도분에 가까운 여인국을 이룬 것은 외지상업에 종사하는 남자가 많은 때문일 것인데, 제주도에서와 같이 유아의 사망율이 극단으로 높은지 또 남아의 것이 더욱이 높은지 어떤지는 개성부의 생명조사를 실제로 해보지 않는 한 단정할 수가 없다.

3. 그외의 지방에서는 여인국은 볼 수가 없고 이 「남녀수의 지배선」은 모두 40세대 이후에 들어 있으니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 선의 위치는 40세대 이후로 생각할 수가 있다.

4. 그리고 도시(市府)에서의 「남녀수의 지배선」의 위치는 광역지역(道)에서의 것보다 예외가 없이 낮다. 다만 목포부의 것이 전라남도의 것과 동일한 것 하나가 예외일 정도이다.

5. 유소년이 사망율의 성비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다면 이 「남녀의 지배선」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겠으니 이 「남녀수의 지배선」을 인정하는 한 도시에서는 농촌에 비하여 남이에 치우친 고율의 아동사망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6. 도시에서는 고율의 사망율이 고율의 출생율도 가져온다.

이제 그 「남녀수의 지배선」의 위치순으로 제지방을 배열해보면 다음의 제2표로 된다.

제2표 「남녀수의 지배선」의 순위

강 원 도(江 原 道)	76~77	군 산 부(群 山 府)	53~54
충청북도(忠淸北道)	62~63	광 주 부(光 州 府)	52~53

경상북도(慶尙北道) 57~58	대 전 부(大田府) 51~52
경 기 도(京畿道) 56~57	부 산 부(釜山府) 50~51
충청남도(忠淸南道) 56~57	마 산 부(馬山府) 50~51
춘 천 부(春川府) 55~56	전 주 부(全州府) 50~51
전라북도(全羅北道) 55~56	진 주 부(晉州府) 49~50
인 천 부(仁川府) 54~55	대 구 부(大邱府) 46~47
청 주 부(淸州府) 54~55	서 울 시 44~45
경상남도(慶尙南道) 54~55	개 성 부(開城府) 18~19
이 리 부(裡里府) 54~55	제 주 도(濟州道) 15~16
전라남도(全羅南道) 54~55	북제주군(北濟州郡) 15~16
목 포 부(木浦府) 54~55	남제주군(南濟州郡) 15~16

제2표에 의해서 보면, 개성부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서울시가 최저 위인데 동도내의 해항(海港) 인천부는 상당히 고위이고, 서울시의 직상 위는 대구부 같은 대도시이고, 최고위는 농촌이 많은 강원도, 경상북도 등의 순서인데 모두 무리가 없는 배열이다.

### [附] 제주도통계에 대하여

1947년 통계(大韓民國統計月報)에 의하면

1. 제주도에 있어서의 출생아수의 성비는 남 965(53) : 여 840(47)이니 남한 전역의 총수의 성비 남 233,050(53) : 여 204,982(47)에 일치한다.
2. 제주도에 있어서의 인구개수의 성비는 남 112,703(48) : 여 120,742(52)인데 남한 전역의 총수의 성비는 남 9,268,966(51) : 여 8,817,321(49)이다.
3. 제주도에 있어서의 추정인구의 성비는 남 129,562(47) : 여 146,337(53)인데 남한 전역의 총수의 성비는 개수에서와 같이 남 10,053,752(51) : 여 9,832,482(49)이다.

4. 그러니 제주도에 있어서 출생시의 성비와 총인구의 성비는 정반대로 역전되는 것이 전기 줄저에서와 같다.

5. 그러나 기간본(既刊本) 통계월보에 있어서

- ① 1년 미만아의 최저의 사망율이라든가,
- ② 인구자연증가율에 있어서의 감소라든가,
- ③ 사산수(死産數)의 전무라든가,
- ④ 출생율의 최저라든가,
- ⑤ 사망율의 최저라든가, 모두가 제주도에 한해 신뢰할 수가 없는 통계이다.

(大韓民國統計月報, 第5號, 1~3頁, 1949)

## 도민(島民)의 식료품 조사

주식품(麥, 粟)

농부 남자 1일 3식분 ..... 대승(大升) 8합(合)

농부 여자, 보통남자분 ..... 7합

보통여자 ..... 6합

평균 성인 남녀 1일 ..... 대승 6~8합

단 백미(白米)라면 그 분량에 달(達)치 않고, 감저(甘藷)는 주요한 대용식이다.

부식물

백채(白菜) ..... 김치, 국, 또는 생으로 통년(通年) 사용한다.

미역 ..... 국(더운국 혹은 찬국)으로 4~7월에 많이 사용한다.

자리 ..... 산남서는 5~12월에 산북서는 5~9월에, 산(産)하는데 회로 하여 많이 먹고 소곰에 담가서 통년 식용으로 한다.

멸치 ..... 산북인이 비교적 많이 먹음.

무 ..... 김치, 국, 생으로 혹은 말리워서 10~3월에 많이 먹음.

해어류(海魚類) ... 종류가 많으니 통년 식용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다.

콩잎(生食), 호박잎(더운국), 호박, 오이, 달래, 쭈, 미나리, 해초(海草), 돈육(豚肉) 등을 흔히 먹는다.

고사리는 전도에 풍산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앉쓰이는 것은 고사리 요리에는 다소 손이 가는 때문에 분주(奔走)한 주부들에게 채택되지 않는 관계다.

## 제주도(濟州島)의 상피병(象皮病)

The Elephantiasis in the Is. Quelpart.

제주도에는 『필라리아』에 의하지 않은 상피병이 있다고 알려워져 있다. 물론 진정한 상피병의 증상을 정(呈)치 않는 때문이고 초기에는 각기병(脚氣病) 같기도 하나 후기에는 하지(下肢) 더욱이 발[足]의 피부는 상피상으로 된다. 일편(一便)의 다리를 알른 사람도 있고 또 양편 다리를 다 알른 사람도 있는데 심할 때에는 전박부(前膊部)까지도 종태(腫太)한다. 그러나 대퇴부나 대박부(大膊部)에까지 미치는 환자는 극희하다. 직접 생명에는 관계치 않는 모양이고 그러니만큼 지방인의 이 병에 대한 공포심도 대단치는 않지만 환자의 불편은 대단한 것이다. 더욱이 증부에 미상이라도 받으면 곧 3~4일은 병상에 누어서 고열로 신음하게 되니 이 환자는 항상 주의(注意)하는 것이고 그 때문인지 이 병이 가장 많은 위미리의 주민에는 양말이나 버선을 신는 이가 분명히 많다.

이 병은 염분이 섞이는 기회가 많은 해안용수를 음료수로 하는 지방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보통은 이런 해안용수를 마시기 시작하여 3~4년 지나면 발병하는데 1~2년 혹은 5~6년 되어서 발병하는 예도 있다. 또 보통은 20세 전후에 발병하지만 극단의 예로는 4~5세부터 60세경의 예도 있다. 환자의 성별에는 관계없는 듯하고 척형(瘡型)에 보다는 비만형(肥滿型)의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보통은 환자라도 중환이 아닌 이상 근로에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피로하면 발열하고 발병하여 와상(臥床)케되며 계절적으로는 음 7~8월경인 환절기에 발병이 심하다.

이 병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는 불가능이고 전지(轉地)하고 음료수를 변경하면 병의 양진(昂進)은 억제할 수가 있다. 분명히 전염성은 아니지만 이병(罹病)의 소질은 유전(遺傳)하는 듯하다.

이 병의 분포상태는 남원면 위미리 제2구(동부락)의 주민 962명중 환자 77명 즉 8%를 수위로, 표선면 남토산의 398명중의 15명 즉 4%, 중문면 하예리 제2구의 4%, 동면 강정리(江汀里) 제1구 서동(西洞)내 강정리의 4%(중문면장으로부터의 회신에 의함), 기타는 대개 1% 내외의 부락이 많고 전도적이다. 표선면 세화리 제2구의 해안부락 같은 곳은 10년쯤 전부터 정수(井水) 사용을 개시하고는 이 병이 태무하여졌다고 한다. 또 같은 해안부락인 서귀면 하효리에서는 옛날부터 해안용수를 사용치 않았으니만큼 이 병의 발생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이 병의 현저한 발생부락은 남토산을 중심으로 한 표선면에 서부터 중문면에 걸쳐있는 제주도 해안부락이고, 제주도 북부인 한림면 월령리나 제주읍 용담리 수근동의 1%강(強)을 중심으로 부근의 해안부락에도 이 병은 있다.

여기서 민간요법 하나도 소개해 두기로 한다. 적웅계(一赤雄鷄), 적소두(赤小豆), 백길경(白桔梗)의 자웅(雌雄)을 혼합하여 달여서 그 즙(其汁)을 마시고 해안용수의 음용(飲用)을 중지하면 초기의 환자는 치료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병도 물론 『필라리아』에 의한 것이고 좀 자세히 말하면 *Microfilaria malayi*에 의한 듯하고 이 지방의 문(蚊)의 분류 및 생태 특히 해안용수와와의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해결의 단서를 얻게될 것이다.

(朝鮮醫報, 第2卷, 第1號, 38-9頁, 1948)

부록

## 저자의 업적목록 및 해설

(Publications by D. M. SEOK)

### 학술편(Scientific Section)

1. 朝鮮球場地方産蝶類目錄(A List of Butterflies from Kyuzyo Vicinity, Korea), 1-3 : Zephyrus, vol. 4, p.311~317, 1932 : vol. 5, p.309~313, 1934 : vol 7, p.57~60, 1937. — 球場公立普通學校長 高塚豊次氏와의 共著로 6科117種을 열거함.
2. 開城地方ノ蝶類(Papilioen Songdo, Korejo) : 朝鮮博物學會雜誌(Jour. Chos, Nat. Hist.), 1942— 열거한 것은 7과 132종이요, 그 豊此篇에서와 같이 어떤 지방의 蝶相을 논할려면 비교적 豊産(豊産)하는 종류 즉 그 지방에서와 같이 어떤 지방의 종류만을 취급하여 그 분포를 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개성(開城) 지방의 나비는 북방계 : 남방계가 전체로는 3 : 1이지만 豊産종으로만은 4 : 1로 된다.
3. 朝鮮産蝶類ノ未記録種, 異常型及ビ「ウラギンヘウモン」ノ斑紋ノ變異性(Nepublikigitaj Specoj kaj Nenormalaj Formoj de Papilioj en Koreujo kaj Varieco de makuloj sur la Flugiloj de Argynnis adippe LINNAEUS) : 朝鮮博物學會雜誌(Jour. Chos. Nat. Hist.), no. 15, p.73~74, pl. 1, 1933.
4. 白頭山地方動物採集記 附 開城産しべりあまむし(Animals collected in the Paiktusan Region, Korea, and some notes on the Agristrodon

- halys intermedius STAUCH form Songdo) : Do. no. 18, p.129~136, 1934. — 나비 이외의 동물을 취급하였음.
5. 白頭山地方産蝶類採集記(Butterflies collected in the Paiktusan Region, Korea) : Zephyrus, vol. 5, p.259~281, 1934—6과 130종을 열거하고 각 채집지를 부(附)하였음.
  6. 朝鮮産蝶類の研究, 第1報(Papilioj en Koreujo, Unua Raporto) : 鹿兒島高農創立廿五周年記念論文集, 前編(Bulletin of the Kagoshima Imperi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edicated to the Twenty-fifth Anniversary, vol. 1) p.631~784, pls. 10, 1934 : 第2報 (Dua Raporto) : 鹿兒島博物同志會研究報告(Bull. Nat. Hist. Soc. Kagoshima), no. 1, p.5~95, pl. 1~3, 1942. —第1報에 취급된 것은 7科138種 16,016개체요 그 중에 新種 1, 新亞種 4, 新型 2, 新異型 11, 學名變更多數等の 新事實이 많고 기타 百餘種에 대해서는 개체 변이(個體變異)와 제2차 성적(性的) 표징(標徵)의 연구로부터 학명의 정리까지에 논급(論及)하였음. 第2報는 그 속편으로 취급된 것은 7과 108종 29,375개체, 第1報의 내용과 합하면 실로 8과192종 42,939개체에 달함.
  7. 朝鮮産畸形의蝶(Malbonformaj Papilioj kaptitaj en Koreujo) : 鹿兒島高農創立廿五周年記念論文集, 前編(Bulletin of the Kagoshima Imperi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edicated to the Twenty-fifth Anniversary, vol) p.785~788, pls. 2, 1934 : 朝鮮産異型及び畸形의蝶(Nenormalaj papilioj kaptitaj Koreujo) : 鹿兒島博物同志會研究報告(Bull. Nat. Hist. Soc. Kagoshima), no. 1, p.97~139, 1~19, 1942.—전편에 취급된 것은 기형(畸形) 24개요 후편에 취급된 것은 이형(異型) 53개와 기형 269개이니 전후편을 합하면 이형 53개



와 기형 293개이다.

8. 卵島見學記(Nots on the Is. Rantō, Korea) : 文教の朝鮮(Bulletin of Tyōsen Society of Education), no. 114 (Feb), p.131~135, 1935. — 「괘이갈매기」의 번식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필요를 논하였음. 그 효과가 있어서 1938년 5월 3일 조선총독부관보 호외(號外) p.12 에 천연기념물 제56호로 지정 발표되었음.
9. 三角紙入りの蝶類保存容器(The Box for preserving the specimen envelopes of butterflies) : 植物及動物(Botany and Zoolgy, Tōkyō), vol.3, no.2, p.116, 1935 — 필자 자신이 고찰한 것인데 대단히 편리하므로 소개하였음.
10. 羅南地方産蝶類目錄(A list of butterflies collected in Renan district, Corea) : Zephyrus, vol. 6, p.88~98, 1935 ; 第2報(Ⅱ) : vol. 9, pars 3, p.204~205, 1943.—羅南中學教諭 西元藤市氏와의 共著로 취급된 것은 6과 120종이고 그중의 1未記錄種에는 新稱日本名을 附加하였음.
11. 五月末の金剛山蝶類(Butterflies collected at the Mt. Kongōsan in the end of May) : Zephyrus, vol. 6, p.99, 1935.—6과16종을 열거함.
12. 性的異常のカウライキジ(Intersexual Korean pheasant) : 植物及動物(Botany and Zoology, Tokyō) vol.3, no.9, p.1711~1713, 1935.
13. ヒメウラナミジャノメの變異研究並に其學名に就て(Pri la varieco de *Ypthima baldus* FABRICIUS kaj ĝia nomo) : 動物學雜誌(Zool. Mag), vol. 47, p.627~631, 1935 ; 再び朝鮮産ヒメウラナミジャノメの變異研究(Ankoraŭfoje pri la varieco de *Ypthima baldus* FABRICIUS de Koreujo) : vol.53, p.397~402, 1941.
14. ヲカジマミスズギ及びギンジシジミなる2新種の蝶に就て [附] 金剛山

産蝶類目錄(Pri la du novaj specoj de Papilioj, *Neptis okazimai* kaj *Zephyrus ginzii*, kaj Listo de Papilioj de la Monto Kongōsan) : 動物學雜誌(Zool. Mag.), vol.48, p.60~66, pl.1, 1936.—  
 恩師 岡嶋銀次先生の 성명을 따서 명명하였고 목록에는 7과 124종을 열거하였음.

15. 朝鮮産モンシロテフの變異研究 [附] 朝鮮産畸型のモンシロテフ (Studo pri la varieco kaj malbonformuloj de *Pieris rapae* LINNÉ) : 動物學雜誌(Zool. Mag.), vol.48, p.337~345, pls.2, 1936 ;  
 再び朝鮮産モンシロテフの變異研究(Ankoraŭfoje pri la varieco de *Pieris rapae* LINNÉ de Koreujo) : vol.49, p.329~340, pl.1, 1937 ;  
 三たび朝鮮産モンシロテフの變異研究(Triafoje pri la varieco de *Pieris rapae* LINNÉ de Koreujo) : vol.54, no.6, p.219~229&no.8, p.326, 1942.—취급된 개체수는 실로 167, 847개에 달함.
16. 新種スナイダーヘウモンモドキに就いて(On a new species *Melitaea snyderi* SEOK) : *Zephyrus*, vol.6, p.178~179, pls.2, 1936 ; 스나이더-헤우몬모ドキに就て(On *Melitaea snyderi*) : vol. 7, p.283~284, 1938.—*Melitaea snyderi* SEOK은 *M. plotina* BREMER의 Synonym이다.
17. 朝鮮東北端地域産蝶類採集記(Butterflies collected in the farthest north-eastern region of Korea) : *Zephyrus*, vol.6, p.252~277, pls.2, 1936.—6과 121종을 열거하였는데 그중에 미기록종 1, 未記錄亞種 1이 있음.
18. 朝鮮産所謂 「ウラギンヘウモン」 ノ變異並ニ其學名ニ就テ(Pri la variecoj de *Argynnis locuples* BUTLER kaj *Argynnis vorax* BUTLER) : 朝鮮博物學會雜誌(Jour. Chos. Nat. Hist.), no. 21, p.3

- 8~41, 1936.—종래 조선산 *Argynnis adippe*라고 한 것은 眞의 *A. adippe*가 아니고 전연 별종의 2종을 포함한 것으로 그 양자의 학명은 *A. locuples* 및 *A. vorax*로 할 것이라고.
19. 朝鮮生たいりくひばかりトしべりあまむしニ就テ(On *Natrix vibakari* Denburgh and *Agkistrodon halys intermedius* STRAUCH of Korea) : Do. p.113~114. —양자의 新産地를 소개하고 「까치살모사」는 全鮮에 분포되었음을 논함.
20. 智異山の蝶類(Papilioj en la Monto Ziisan) : 植物及動物(Botany and Zoology, Tōkyō), vol.4, no.12, p.2059~2064, 1936.—전체 7과 91종중 新型 1, 朝鮮未記録種 1, 南鮮未記録種 30을 포함함.
21. 朝鮮産 *Aphantopus hyperantus* LINNÉ に就て [附] 眼狀紋及び其他の斑紋研究上の一様式(Pri *Aphantopus hyperantus* LINNÉ en Koreujo kaj unu nova modo sur la studo de ocelli(Rhopalocera) : 動物學雜誌(zool. Mag.), vol.48, p.905~1000, 1936.—조선에는 2亞種이 있어서 蓋馬高台産은 *A. h. ocellatus*이고 漢拏山産은 그 亞種이다. 또 眼狀紋其他의 斑紋研究에 있어서 翅表斑은 正로마字(a, b, c……)로, 翅裏斑은 附點字(a', b', c'……)로 표하면 斑紋의 出現빈도와 翅表裏와의 關係가 밝혀져서 심히 편리하다.
22. 内地産 2個の蝶(Two butterflies from Japan) : 昆虫界(Ent. World), vol.5, no.36, p.135~136, 1937.—「줄흰나비」의 夏型♂崎型과 岡山市産 「먹부전나비」♂을 기록하였음.
23. 朝鮮産アムールヤマキテフに就て(Pri *Gonepteryx rhamni amurensis*, GRAESER en Koreujo) : 蝶と甲虫(The Butterfly and Beetle, Tōkyō), vol.2, no.1, p.2~4, 1937.—285개체로써 연구한 것인데 주로 변이에 관한 것이다. 우는 白型 이외에 *Colias*속에서와 같이 黃

형태가 또 있음을 소개하다.

24. マドタテハの知見(Notes on *Dilipa fenestra takacukai*) : 昆虫世界 (Ins. World), vol.41, no.477, p.179~183, 1937.—本種외의 개체변이 및 雌雄間의 차이에 대하여 기록함.
25. Prof. H. Kuwano's Collection of Butterflies from China : Annot. Zoo. Japan., vol.16, no.2, p.106~116, pl.1, 1937.—30년 전에 桑野久任氏가 北京大學 教授時代に 채집한 것을 정리한 것인데 그 내용은 443개체, 89종류, 그 중에는 1新種 *Parnara kuwanoi* SEOK, 2新亞種 *Satyrus alcyone chinensis* SEOK, *Argynnis pales palinoida* SEOK, 및 20의 중국미기록종 등이 있음. 그리고 Variation-Sphere(變異範圍)란 나의 新造語를 처음으로 사용하다.
26. 多物里島の蝶類, 莞島の蝶類(Butterflies from the Iss. Tabuturitō, and Wantō, Korea) : 昆虫界(Ent. World), vol.5. no.40, p.396~399, 1937, 多物里島産蝶類追加(Butterflies from the Is. Tabuturitō, Korea) : vol.6, no.56, p.22~23, 1938.—多物里島の 기록으로는 본편이 최초이고 3과9종을 기록하였고 莞島分은 6과32종을 열거하였음.
27. 二新亞種の蝶に就て(On two new subspecies of butterflies) : Zephyrus, vol.7, p.29~32, pl.1, 1937.—*Apatura ulupi morii* 및 *Dilipa fenestra takacukai*를 기재함.
28. 朝鮮ジャカウアゲハの變異研究(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Papilio alcinous* from Korea) : 昆虫界(Ent. World), vol.5, no.42, p.582~584, 1937.—朝鮮各地産 1,307個體의 標本으로써 研究하였음.
29. 朝鮮ジャノメテフの變異研究(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Satyrus dryas* SCOPOLI from Korea) : 動物學雜誌(Zool. Mag.), vol.49, p.369~375, pl.2, 1937.—13, 184개체로써 연구한 것인데 그

결과는 「배추흰나비」에서와 같음.

30. 濟州島産蝶類採集記(一新亞種の記載を含む)(On the Butterflies collected in Is. Quelpart, with the Description of a New Subspecies) : Zephyrus, vol.7, 150~174, 1937.—採集種58型中 *Lycaena argus zezuenis* SEOK은 新亞種이다. 이 採集品으로 考察하면 同島の 南側은 北側보다도 南方系를 多産함을 알겠다.
31. 朝鮮産珍蝶稀蝶の新産地 第1~2報(New localities of the Rare Korean Butterflies 1~2) : Zephyrus, vol.7, p.186~190, 1937 ; vol. 9, p.281~3, 1947.—31+15=46種の 新産地를 紹介함.
32. 朝鮮産畸形蝶集報(Korean malformed butterflies) I~VIII : 植物及動物(Botany and Zoology, Tōkyō), vol.5(1937), no.8, p.131~132 ; no.9, p.141~144 ; vol.6(1938), no.2, p.125~126 ; no.3,p.122~124 ; no.5, p.122~124 ; no.7, p.125~126, no.8, p.116~119 ; no.9, p.119~123, no.10, p.160.—鳳蝶科에 屬하는 畸形蝶 11種 53個體를 취급하여 高찰한 것인데 그 결과는 既發表의 「배추흰나비」의 畸形에 대한 愚見(1937)과 대략 같고 또 次記諸項도 밝혀졌음.
  - ① 「모시나비」에 比較적 畸形이 많음.
  - ② 一般으로 上에 比較적 畸形이 많음.
  - ③ 畸形과 異型은 同規同類의 것으로 變異性과는 關係가 있음.
33. 朝鮮産 *Limenitis*중 近似의3種に就て(On the 3 similar species of Korean *Limenitis*) : 動物學雜誌(Zool. Mag.), vol.50, p.39~42, pl.1, 1938.—종래에 혼동되어있던 것을 *L. helmanni* 제일줄나비, *L. duplicata* 제일줄나비, *L. homeyeri* 제삼줄나비의 3종으로 適確히 구별하였음.
34. 朝鮮産蛾類の研究, 第1報(Korean Moths, 1) : 京城博物教員會誌(The Bulletin of the Teachers' Society of Natural History in Keizyo)

- no.1, p.28~40, 1938.—나의 蒐集品中 가장 個體數가 많은 23種에 대하여 주로 그 變異를 연구한 것.
35. 朝鮮産 *Hesperia maculata* チャマダラセセリに就て(Pri *Hesperia* BREMER et GREY de Koreujo) : 動物學雜誌(Zool. Mag.), vol.50, p.82~84, 1938.—從來에 別種으로 되어있던 *H. maculata* 미야마 차마다라세세리와 *H. zona* 차마다라세세리는 실로 同一種内の 別季節型에 부과한 것으로 前者는 그 春型이요 後者는 그 夏型이다. 그리고 *H. albistriga*와 *H. bieti tokachiana* 등도 본종의 Syn.이다.
36. 朝鮮産ウラナミジャノメ의 變異研究(Studo sur la variéco de *Ypthima motschulskyi* BREMER et GREY de Koreujo) : Do. p.88~93.—前出 『朝鮮産ジャノメテフ의 變異研究』와 同類의 것으로 그 結果도 일치한다.
37. 樺太, 北海道蝶類採集記(Travels after butterflies in Hokkaido and Saghalien) : 昆虫界(Ent. World), vol.6, no.48, p.195~214, 1938.—1937년 夏期에 한 채집여행의 結果를 보고하였음.
38. 朝鮮産ホソヲテフに就て(On *Sericinus telamon* of Korea) : 動物學雜誌(Zool. Mag.), vol.50, p.281~283, 1938.—주로 분포 및 변이에 관한 것으로 *f. telamon* DONOVAN, *f. montela* GREY 2型의 朝鮮에 있어서의 多産境界線을 劃함.
39. 朝鮮産蝶의 二新型에 就て(On two new forms of Korean butterfly s) : *Zephyrus*, vol.7, p.241~243, pl.19, 1938.—*Argynnis selene sugitanii* SEOK과 *Apatura ilia clytie* ♂ ab. *kangkeensis* SEOK 을 記載.
40. 朝鮮産 *Neptis thisbe* MÉNÉTRIÈS 오호키미스즈에 就いて(On *Neptis thisbe* MÉNÉTRIÈS from Korea) : Do. p.244~249.—從來

記載된 朝鮮産キイロミスヂ類는 全部가 이 1種에 不過하다. 그리고 *Neptis themis* LEECH는 朝鮮에는 産치 않음.

41. *Studo pri Pieris napi* : LINNÉ : Annot, Zool Japon., vol.17, nos. 3~4(Dr. A. Oka Jubilee Numbers), p.525~529, 1938.—*p. melete* MÉNÉTRIÈS(1857)와 *P. napi* LINNÉ(1767)와는 同一種으로 朝鮮에서는 便宜上 2型을 두기로 함. 즉 f. *napi*는 全國에 産하지만 蓋馬高台에는 적고 年2回發生이요 f. *dulcinea* BUTLER는 蓋馬高台에 豊産하고 年1回 發生임.
42. 鬱陵島産蝶類(On the butterflies from the Island of Dagelet of Korea) : Zephyrus,, vol.8, p.24~29, 1938.—島産으로 26種을 列擧하였는데 그中 初記錄種은 7.
43. 朝鮮産 *Limenitis amphysa* MÉNÉTRIÈS 테우센이치몬지모ドキ(新稱)に就て(On *Limenitis amphysa* MÉNÉTRIÈS from Korea) : 植物及動物(Botany and Zoology, Tōkyō), vol.6, no.12, p.114~115, 1938.—朝鮮産으로는 세번째의 本種을 報告함.
44. 朝鮮産 *Erebia* 屬의 數種에 關係ある 文獻(Two literatures concerning the *Erebia* of Korea) : 朝鮮博物學會雜誌(Jour. Chos. Nat. Hist.), no.24, p.38, 1938.—Warren, B.C.S. : Monograph of the Genus *Erebia*, 1936.(London)과 Goltz, D.H. : Einige Bemerkungen über Erebien ; Dt. Ent. Z. Iris, Dresden, Band 49, 1935, p.54~57과의 2著를 나의 立場에서 紹介함.
45. ウスバツバメ가に就て(On *Elcysma westwoodi* VOLLENHOVEN) : 京城博物敎員會誌(The Bulletin of the Teachers' Society of Natural History in Keizyō), no.2, p.54~55, 1939.—從來 別型으로 취급되어온 f. *westwoodi* VOLLENHOVEN은 ♂에, f. *caudata*

BREMER는 우에 해당하는 명칭임을 알았음.

46. 一濠南啓宇の蝶圖こ就て(On the pictures of butterflies drawn by late Mr. K.U. Nam) : 朝鮮(Tyōsen), Syōwa 14, no. Jan. p.80~87, 1939 ; 第2報(Ⅱ) : 朝鮮博物學會雜誌(Jour. Chos. Nat. Hist.) no.28, p.15~19, 1940 ; 南나비傳(Stories on so called “Nam-nabi” who was known as a famous Korean artist) : 朝光(Chokwang), Syōwa 16, no. Mar. p.257~259, 1941 ; 南啓宇の蝶圖に就て(On the pictures of butterflies drawn by late Mr. K. U. Nam Ⅲ) : 寶塚昆虫館報(Bull. Takarazuka Mus. Ins.), no.28, 1943.—以上の 諸拙著中 最後の 寶塚昆虫館報가 그 決定版이다. 約 100年前에 그린 南啓宇의 蝶圖에는 5科37種이 取扱되어있고 그 중에 現在에도 分布資料로 興味있는 것은 京城産의 「남방공작나비」와 「붉은점모시 나비」이다.
47. 칸캬우타카네히카게 *Oeneis urda* EVERS-MANN의變異研究 (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Oeneis urda*) : 松友(Bulletin of the student association of Songdo Middle School), no.11, p.3~4, 1939.
48. 蓋馬高台産蝶類採集記(Travels after butterflies in the plateau Kai-ma, Korea) I~Ⅱ : 昆虫界(Ent. World), vol.7, no.60, p.39- 48; no.61, p.38-56, 1939.—採集蝶은 114種類.
49. 朝鮮産ヒメヒカゲ의變異研究(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Coenonympha oedippus* FABRICIUS from Korea): 關西昆虫學會會報(Trans. Kansai Ent. Soc.), no.8, p.72-80, pl. VII-IX, 1939.—故寺西暢氏에 奉獻한 論文.
50. 外地産畸型異型の蝶集報(On some abnormal butterflies from



- foreignands): 昆虫界(Ent. World), vol.7, no.63, p.22-24, pl. 289, 1939.—國外産 畸型蝶 4, 異型蝶 2, 都合 6個體를 記載.
51. 朝鮮産蝶類ノ研究史(The History of the studies on the Butterflies of Korea): 朝鮮博物學會雜誌(Jour. Chos, Nat. Hist.), no.26, p.20-60, 1939.—拙著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의 姉妹篇으로 5時代로 나누어 論함.
52. 蝶ニ關スル朝鮮古典ノ解説(Notes on Korean classics concerning Korean butterflies): Do. p.61-65.—文獻 16篇을 取扱하였음.
53. 支那及び蒙古産蝶類の新産地(New localities of some butterflies of China and Mongolia): 動物學雜誌(Zool. Mag.), vol.51, p.658, 1939.—支那未記録種 7, 蒙古未記録種 7, 都合 14種의 新産地를 報告함.
54. 滿洲産蝶類目錄(A list of the butterflies of Manchuria): 動物學雜誌(Zool. Mag.), vol. 51, p.773-776, 1939; 第2報(Ⅱ): 滿洲生物學會會報(Trans. Bio. Soc. Manch.), vol. 5, no. 3, p.103-110, 1943.—第2報는 補訂版으로 取扱된 것은 8科232種이고 내가 檢한 種類는 6科 177種이다.
55. 咸北高地帶産蝶類採集記(Travels after butterflies in the high land of North-Kankyōdō, Korea): 朝鮮博物學會雜誌(Jour. Chos. Nat. Hist.), no.27, p.10-18, 1939.—採集品 109種類를 列舉함.
56. ケヤキを害する數種のカメムシの生活史と其の驅除法(The Life Histories of Some Urostyloid Insects Affecting *Zelkova serrata* MAKINO and their Control): 昆虫(Kontyū), vol.13, p.246-248, 1939; 動物學雜誌(Zool. Mag), vol.52, p.438-450, 1940.—開城産 느티 나무폴노린재, 제주노린재, 강구노린재等 3種에 對하여 論한 것으로 이 部類의 生活史로는 最初의 것이고 驅除法도 完全히 究明되었음.

그런데 前篇은 日本昆虫學會第3回大會에서의 講演要旨이고 後篇이 完全한 論文이다.

57.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Published by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Korea. pp.xxxi+391, col. p1.2, 1940.—韓國產나비를 255種類로 하고 每種의 研究史, 學名의 變遷, 異名의 整理等을 取扱한 便利한 著書로 1939年發行으로 印刷는 되었지만 實際로는 1940年에야 出刊되었음.
58. 蓋馬高台産蝶類(Butterflies collected in the plateau Gaima, Korea): Zephyrus, vol.8, nos.3-4, p.131-154, 1940; vol.9, no.2, p.118, 1941.—王鎬君과의 共著요 採集蝶은 6科156種을 列舉함.
59. 朝鮮東北地方産蝶類採集記錄(A list of butterflies collected in north eastern Corea): Zephyrus, vol.8, p.155-165, pl.9. 1940.—朝比奈正二郎氏와의 共著로 採集蝶 109種을 列舉함.
60. 朝鮮半島의 特殊性을 現す 數種의 蝶類に就て(On some species of butterflies which show the specialities of Korean Peninsula): 日本學術協會報告(Rep. Jap. Assoc. Advance. Sci.), vol. 16, p.73-81, 1941.—同協會第16回大會에서의 講演內容임 : 同一種인데도 日本諸島나 中國大陸에서는 볼 수 없는 程度로 큰 變異性을 갖은 韓半島産 오색나비, 은점표범나비, 푸른부전나비等 3種을 取扱하여 이 3種의 正確한 學名을 選定하고 各種에 若干의 適當한 型을 두고 各型間의 類緣關係도 論述하였음.
61. 興安嶺, 海拉爾及び滿洲里の蝶類(一新亞種의 記載을 含む(On the Butterflies collected in Khingan Mts., Khailar and Manchouli, with the description of a new subspecies): 滿洲生物學會會報(Trans. Biol. Soc Manchoukuo), vol.4, no.2, p.63-73, pl.1, 1941.—

- 興安嶺産51種, 海拉爾産 13種, 滿洲里産 11種, 計 57種을 報告하며 1新亞種 *Eumenis actaea khinganensis* SEOK을 記載함.
62. Ginandromorqs de Pieris napi LINNÉ of *dulcinea* BUTLER: Annot. Zool. Japon., vol.20, no.2, p.105, 1941.—朝鮮最初の 雌雄型을 報告함.
63. 冠帽山産蝶類採集記(On the Butterflies collected in the Mountain ridge of Kambō): Zephyrus, vol.9, no.2, p.103-111, 1941.—採集蝶 58種을 報告하였는데 그중에 사이지юн베니ヒカゲ(新稱)는 日本未 記録種이었음.
64. 朝鮮産モンキテフの變異研究(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Colias hyale* LINNÉ of Korea): 動物學雜誌(Zool. Mag.), vol.53, p.431-436, pl. 1, 1941.
65. 朝鮮ニ饒産スル五種ノ蝶ノ變異及ビ分布ノ研究(La studoj sur varietoj kaj distribuoj de la 5 specoj de papilioj abundaj en Koreujo): 朝鮮博物學會雜誌(Jour. Chos. Nat. Hist.), vol. 8, no.32, p.39-52, 1941; 朝鮮産きたてはノ變異研究追報(La studo sur varieto de *Polygonia caureum* LINNÉ de Koreujo, dua raporto): vol. 9, no. 35, p.94, 1942.—5種이란 것은 호랑나비(범나비), 흰뱀 눈나비, 흰줄표범나비, 작은은점선표범나비, 남방씨—알뵈 등이다.
66. 平北鴨綠江沿岸地帶産蝶類採集記(Listo de papilioj en N. Heiandō preter la rivero Oryokkō): 朝鮮博物學會雜誌(Jour. Chos. Nat. Hist.), vol. 9, no. 34, p.49-53, 1942.—6科 83種을 列擧함.
67. 滿洲國産蝶に關する注意すべき3著書に就て(On the 3 articles that need caution concerning the butterflies of Manchoukuo): 動物學 雜誌(Zool. Mag.), vol.54, no.5, p.177-182; no.8, p.326, 1942.—一次記3

著를 批評하였음:

- (1) 岸田久吉・中村倭; 熱河省産昆虫類[IV]蝶類
  - (2) " ; 蒙疆の蝶類
  - (3) S. Matsumura; The Butterflies from Jehol(Nekka), Manchoukuo, collected by Marquis Y. YAMASHINA.
68. アコクチブトカメムシとマツケムシ(*Dinorhynchus dybouskyi* JAKO-VLEV kaj *Dendrolimus spectabilis* BUTLER): 採集と飼育 (Collecting and Breeding), vol. 4, no.7, p.214, pl. 41, 1942.
  69. アカマツの畸型的な毬果群(Malbonforma fruktaro de *Pinus densiflora* SIEB. et ZUCC.): Do. no. 9, p.281.
  70. ヒメヒカゲの大きさと眼紋との相關關係(The Correlation between the size and the ocelli of *Coenonympha oedippus* FABRICIUS): 動物學雜誌(Zool. Mag.), vol.54, no.9, p.369-70, 1942.—開城産의 材料로 調査한 것인데 相關關係는 없음.
  71. 朝鮮産テウセンタカネヒカゲの變異研究(Studo pri la varieco de *Oeneis nanna* MÉNÉTRIÉS de Koreujo): Do. no.10, p.395-405.—本種의 眼狀紋에 있어서의 變異性은 實로 強大하여 朝鮮서 第一位 임.
  72. 故禹鍾仁君の採集による台灣蝶類目錄(A List of the Butterflies of Formosa Collected by the late Mr. Ch.I.U): 昆虫界(Ent. World), vol.10, no.105, p.30-42, 1942.—故禹君을 記念하기 爲한 論文으로 同君의 略歷을 添附하고, 目錄에는 8科98種을 列擧하였음.
  73. 永興地方ノ蝶類(Papilipj en Eikō Distrikto, Koreujo): 朝鮮博物學會雜誌(Jour. Chos. Nat. Hist.), vol. 9, no. 37, p.182-185, 1942.—王鎬君과의 共著로 6科87種을 列擧.

74. 平安南道ノ蝶類(Butterflies of S. Heiandō): Do. p.185-192.—李(海龍)喆楯君과의 共著로 8科160種을 들어서 論함.
75. 朝鮮産蝶類標本日録(水原農事試驗場所藏)(A List of the Specimens of Butterflies of the Agricultral Experiment Station in Suwon):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彙報(Ann, Agr. Exp.), vol.15, no.1, p.48-55, 1943.
76. 北朝鮮蝶類採集記(Notoj pri la kolektado de papilioj en la norda Koreujo): 朝鮮博物學會雜誌(Jour. Chos. Nat. Hist.), vol.10, no.38, p.16-28, 1943.—6科 128種을 列舉.
77. 南朝鮮蝶類採集記(Notoj pri la kolektado de papilioj en la suda Koreujo): Do. p.28-34.—6科 76種을 列舉.
78. 濟州島의 女多現象(“Island of Women” phenomenon in the Is. Quelpart.): 朝光(Chokwang), Syōwa 20, no. Apr. p.39-41, 1945.
79. 濟州島地名을 包含한 動植物名(A List of Animals and Plants, the Names of which are containing the Localities of the Is. Quelpart.): 國立科學博物館動物學部研究報告(Bull. Zool National Sci. Mus.), vol.1, no.1, p.1-4, 1946.
80. 京城大學附屬生藥研究所濟州島試驗場附近의 蝶相(The Fauna of Butterflies of the Environs of the Experimental Station of the Is. Quelpart, Seoul University.): Do. p.5-9.
81. 濟州島南端部の 自然 더우기 그곳의 蝶相에 對하여(On the Nature, especially the Butterflies of the Far Southern Part of the Is. Quelpart.): Do. p.10-16.
82. 朝鮮産ツバメシジミの變異研究(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Everesargiades PALLAS of Korea): Zephyrus, vol.9, p.283-5,

1947. —取扱된 個體數는 10,929.
83. 中等動物: 動物界教科書(The Text-Book of Zoology for Junior)—  
文教部教授要目準據, pp.100, pls. & figs. 54, 서울, 1947; 改正版,  
pp.106, pls. & figs. 66, 서울, 1947; 改正 4版, 1948.
84. 中等과학 생물 제4·5학년용(The Text-Book of Biology for  
Senior)—文教部教授要目準據, pp.212, pls. & figs. 110, 서울, 1947;  
改正版, 上下卷, pp.134+165, pls. & fig. 110, 서울, 1948.
85. 國際語에스페란토教科書 附 小辭典(Lernolibro de Esperanto kun  
Vortareto)—韓國에스페란트學會發行, pp.44+31, 서울,(1947; 再版,  
1948; 三版, 1949.
86. 朝鮮産蝶類總目錄(조선나비의 조선이름) (A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國立科學博物館動物學部研究報告(Bull. Zool. National Sci.  
Mus.), vol.2, no.1, 1947.—§1. 目錄, §2. 朝鮮名索引, §3. 學名命名者  
의 一覽表.
87. 馬·驢·騾·馱馱(Horse, Ass, Mule and Hinny): 現代科學(Modern  
Science), no. 6, p.53, 1947.
88. 朝鮮나비이름의 由來記(La devenoj de la nomoj de Koreaj  
Papilioj.)—四·六版61頁, 서울, 1947.
89. 濟州島의 蝶類(The Butterflies of the Is. Quelpart): 國立科學博物  
館動物學部研究報告(Bull. Zool. National Sci. Mus.), vol.2, no.2,  
1947.— §1.濟州島産蝶類目錄, §2.分布論, §3.諸屬島의蝶類, §4.附記,  
§5.主要文獻.
90. 濟州島方言(La Dialekto de la Insulo Kuelparto): 濟州島叢書第1,  
菊版 188頁, 서울, 1947.—第1篇 方言集, 第2篇 考察, 第3篇 隨筆.
91. 耽羅古史(Malnova Historio de la Insulo Kuelparto): 國學(Nacia

- Scienco), no.3, p.25-28&36, 1947.—新羅統一까지의 記錄.
92. 濟州島의 象皮病(The Elephantiasis in the Is. Quelpart): 朝鮮醫報 (The Korean Medical Journal), vol.2, no.1, p.38-39, 1948.
93. 國學과 生物學(Nacia Scienco kaj Biologio): 金貞煥編 現代文化讀本(Z. H. Kim; Moderna Kulturlibro), p.35-65, 1948.—1947년에 서울신문學藝欄에 投稿했던 科學隨筆中 5篇을 再編한 것.
94. 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The Life Measure of the Inhabitants of the Zezu Islands (Quelpart Island)): 濟州島叢書第2, 菊版190頁, 서울, 1949.—第1編 緒論, 第2編 各論, 第3編 總括.
95. 濟州島方言과 比島語(La Dialekto de la Ins. Kuelparto kaj Lingvo de la Ins. Filipinoj): 조선교육(Korea Eduko), vol.3, no.3, p.17-9, 1949.—比島語를 代表하는 Tagalog, Visaya 兩語를 다루었다.
96. 「男女數의 支配線」의 位置 附 濟州道統計에 대하여(The Controlling Line of the Number of Men and Women in Korea. & On the Statistics of the Is. Quelpart.): 大韓民國統計月報(Monthly Report of Statistics, Republic of Korea), no.5, p.1-3, 1949.—濟州島나 開城에 있어서는 이 線의 位置가 심히 낮지만 全國的으로는 40歲 以後이고, 이 月報에 報告된 濟州道統計는 믿기어렵다.
97. 濟州島關係文獻集(A List of the literatures concerning on the Is. Quelpart): 濟州島叢書第3, 菊版 252頁, 서울, 1949.—第1章 著者順, 第2章 內容順, 第3章 年代順, 第4章 書評, 第5章 總括.
98. 李別河·權重輝共編 School Dictionary English-Korean(Edited by LEE YANGHA & KWUN JUNGWHI), Seoul, 1949.—46版 872頁, 그中 生物術語 約450을 石宙明이 다루었음.
99. 大韓民國의 女多地域(Multi·female Districts in the Republic of

- Korea): 大韓民國統計月報(Monthly Report of Statistics, Republic of Korea), App. p.2-7, 1950.一女多地域은 大概가 海岸地方이다.
100. 濟州島方言과 馬來語(La Dialekto de la Ins. Kuelparto kaj la Lingvo de Malajo): 語文(O-Mun), vol.2, p.1-4, 1950.
101. 德積群島學術調查報告(Raportoj de la Scienca Ekspedicio sur la Arĥipelago Deok-Zeok): 新天地(Sin-Ceon-Zi), vol.5, no.6, p.233-53, 1950.一同雜誌特別附錄. 執筆者: 石宙明, 玉昇植, 李熙泰, 尹益炳, 趙重三, 李崇寧, 柳洪烈.

以上 1950. VII. 1. 現在 既刊物

題目數 續篇數 合計

總發表回數……101 + 27 = 128

ユ中共著回數… 9 + 3 = 12

ユ中單行本數…10 + 2 = 12

### 雜記篇(Miscellaneous Section)

1. 에스ぺ란트學習いて: La Espero, jar. 1, p.7-9, 1927. (謄寫版刷, 鹿兒島)
2. Unu Peco de Mia Travivitaĵo pri Esperanto: La Espero, jar. 1, no. 2, p.7, 1927. (同上)
3. Du Impresoj: La espero, jar. 2, no. 1, p.10-11, 1928. (同上)
4. 理解せよ 에스ぺ란트를: 想思樹, 創刊號, p.9-12, 1928. (同上)
5. Sentoj en Insulo Tane: 土(鹿兒島高農校友會雜誌), 2, p.177-80, 1928.



6. 國際語 에스페란토 : 平壤每日新聞, 10月 26-28日附, 1930.
7. Papilioj en Songdo, Koreujo : 松京昆蟲研究會會報, 第1號, p.114, 1932. (謄寫版刷, 開城)
8. 蝶類의 季節型(第1報) : 同上, p.65-78.
9. 蝶類의 第二次性的形質(第1報) : 同上, p.79-116.
10. 때아닌 季節型蝶類를 採集함 : 同上, p.124-5.
11. 에스페란토論 : 松友, 第7號, p.4-9, 1933.
12. 本年度第2學年生徒採集의 蝶類目錄 : 松友(松都高普交友會雜誌), 第8號, p.9-18, 1934.
13. 幸運なツバメシジミ : Zephyrus, vol. 6, p.216, tab. 2, 1936.
14. 南朝鮮動物採集記 : 松友, 第10號, p.24-34, 1937.
15. 在留東京松友に圍まれて : 同上, p.54-6.
16. Splitter と Lumper : 朝鮮博物學會會報, 第2號, p.7-8, 1937.
17. Catalogue of the Collection of Avifauna in the Wasson Museum of the Songdo High School, 1937. 一張在順君의 助力으로 된 것인데 L. H. Snyder 氏名義로 나온 單行本形式의 小冊子.
18. 濟州島의 思ひ出 : 地理學研究, 第14卷 5號, p.27-9, 1937.
19. 朝鮮産 ジャノメテフ의 變異研究 : 日本動物學會第13回大會新聞, 講演次第, p.4, 1937.
20. 慶州吐含山で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を採集す : 昆蟲界, 第5卷 43號, p.631-3, 1937.
21. ヒメシロテフ, 畸型蝶及び若干の術語等に關せる 質疑に對する 應答 : 蝶と甲蟲, 第2卷第2號, p.37-9, 1937.
22. 標本の同定と發生 : 朝鮮博物學會會報, 第4號, p.2, 1938.
23. 樺太の旅 : 地理歴史研究, 第15卷第2號, p.87-91, 1938.

24. 朝鮮にギフテフが本當に産するだらうか：昆蟲界, 第6卷48號, p.217-8, 1938. — 同誌前前號(46號)에 今村利男氏가 京城産ギフテフ를 報한데 對한 나의 意見을 發表한 것인데 나의 記事로 因하여 同氏は 其次號(49號) p.271에서 테우센히메기테프라고 訂正하였다.
25. 朝鮮産ジャノメテフ의 變異研究：動物學雜誌, 第50卷4號, p.188, 1938. — 1937年 8月 2-3日 北海道帝大에서 開催된 第13回日本動物學會大會에서 한 講演要旨인데 詳細한 것은 同誌, 第49卷11號(1937)에 發表되었음.
26. 拙著主要論文目錄及解説：昆蟲界, 第6卷51號, p.475-8, 1938. — 日本學術振興會授助金申請 때문에 編한 것으로 拙著22篇을 紹介함.
27. 釜山の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に就て：虫の世界, 第2卷第7-8號, p.5-6, 1938.
28. 和製 Bernard Shaw 先生由來：Zoologica Dematobica, no 1, p.15-6, 1938.
29. 린호의 2著：朝鮮博物學會會報, 第6號, p.2, 1939. — Syst. Nat. x.와 Fauna Svecica 2를 紹介함.
30. 六十萬種의 動物界의 奇現象：朝光, 6月號, p.191-7, 1939. — 1939年 陰1月 1日 午後 6時 25分-7時에 平壤放送局에서 「動物의 種類이야기」란 題目으로 放送한 內容인데 朝光編輯人이 마음대로 題目을 바꾸었다.
31. 朝鮮産蝶類研究史：朝光, 2月號, p.286-9, 1940. — 1939年 7月 15日 午後 7時부터 30分間 京城中央放送局에서 放送한 原稿인데 「朝鮮産蝶類研究史上 興味있는 2件」이란 題目을 放送順序에는 「朝鮮産蝶類研究와 興味」라고 바꾸는 등 모두 其方面人士가 마음대로 題目을 變改하였다. 內容은 李朝實錄光海君日記에 있는 白蝶의 記事와 南啓宇의 蝶圖를 紹介하였다.

32. 答え : La Revuo Orienta, 2月號, p.10-11, 1940.—記念事業에 對한 葉書 問答.
33. 答 : 朝光, 3月號, p.197, 1940.—餘白問答.
34. 意見 : 昆蟲界, 第8卷第72號, p.77, 1940.—前號에 發表된 原色圖版附의 春田俊郎氏의 「여름어린표범」에 關한 論文에 對하여 編輯者로부터 그 批判을 請하여 왔기로 보낸 回答을 印刷한 것. 그 論文의 記載는 實은 加藤正世氏가 한 것이라고.
35. 登山趣味 : 松友, 第12號, p.14-5, 1940.—隨筆.
36. 卒業生名簿 : 松友, 第12號, p.145-70, 1940. — 처음으로 된 索引名簿.
37. 朝鮮의 古蝶圖 南啓宇의 蝶圖에 就て : 動物學雜誌, 第52卷 第2號, p.50, 1940.—日本動物學會 第15回大會에서의 講演要旨.
38. 先生의 片影 : 守屋荒美雄傳, p.286-8, 1940.
39. 朝鮮나비이야기 : 朝光, 5月號, p.150-53, 1940.—1938年 9月 23日 午後 7時半-8時에 京城中央放送局에서 한 放送內容을 多少變改한 것.
40. 朝鮮産蝶類概論 : 朝鮮日報, 1940年 7月 21-22日, 各夕刊第1面, 1940.—前後 2회에 夏期特別論文 3-4로 실린 것인데 內容은 (1) 朝鮮産蝶類 研究의 意義, (2) 蝶의 動物學上位置及特性, (3) 蝶의 種類及朝鮮産種類 數, (4) 文獻, (5) 255種類의 分布狀態, (6) 普通種과 稀種, (7) 日本의 國蝶論과 朝鮮의 代表蝶 等이다.
41. 朝鮮半島의 特殊을 現す 數種의 蝶類에 就て : 日本學術協會 第16回大會, 日程及講演要旨, p.26, 1940.—25分間의 講演要旨로 詳細는 同協會報告 第16卷에 掲載.
42. 同窓會員名簿 : 松都中學校同窓會, 第1號(1940)—第2號(1941).
43. 一濠南啓宇의 蝶圖에 對해서 : 高麗時報, 第145號第3面, 昭和 16年 1月1日, 1941.

44. 平壤派石氏家系圖及平壤派石氏細譜圖, 1941. (騰寫版刷 2枚)
45. 北滿の旅の思ひ出: 松友, 第13號, p.19—22, 1941.—隨筆.
46. 雜錄: 同上, p.54—5.—內容은 (1) 在東京松中同窓生に臨む, (2) 同窓諸兄への御斷りと御願, (3) 公告.
47. 紹介の言葉: 同上, p.13.—尹丙燮氏編「所謂松高林檎スターク・デリシアスの由來」의 序.
48. 蒙古人の片想: 博文, 第4卷第1號, p.10—13,—隨筆.
49. 石宙明著主要業績目錄及解説, 서울, 1941.—拙著 69篇을 紹介.
50. 이웃四寸: 高麗時報, 第151號第5面, 昭和 16年 4月 1日, 1941.—隨感. 蝸又生은 蝸牛生の 誤植.
51. 寶塚昆蟲館に陳列せる朝鮮産蝶類の目錄: 寶塚文藝圖書館月報, 第6卷第5號, p.73—77, 1941.
52. 濟州島の昆蟲: 文化朝鮮, 第3卷第4號(青風號, 濟州島特輯), p.52—4, 1941.
53. 故重松達一郎先生: La Revue Orienta, jar. 22, no. 8, p.24—6, pl. 表紙裏, 1941.—氏의 小傳을 日어스兩文으로 記錄.
54. 胡蝶鱗粉再轉寫手技 附記: 四不像, 第12號, p.2—3, 1941.—細川正一博士作品의 所見.
55. 蛇を飼ふ: 四不像, 第14號, p.1—2, 1942.
56. 御知らせ: 朝鮮博物學會雜誌, 第9卷第35號, p.98, 1942.—蝶展記事.
57. 六十萬個の蝶の火葬: 植物及動物, 第10卷第10號, p.59, 1942.
58. 몬시로테フ: 科學時代, 創刊號, p.25, 1943.—談話를 記者가 速記한 短報.
59. 馬羅島エレゲー: 城大學報, 第80號, p.2, 1944.—馬羅島本郷神의 由來記.
60. 濟州島の蝶類: 科學時代, 19號, p.40—1, 1945.

61. 濟州島의 蝶類 : 朝光, 第11卷, 第1號, p.44-6, 1945.
62. 兒名考(平壤地方) : 郷土, 9月號, p.14, 1946. 一男兒名의 「늑손이」가 빠졌고, 女兒名의 「감뜰레」가 「감후레」로 誤植되었음.
63. 兎山堂由來記 : 同上, p.15-8. 一兎山堂은, 濟州島南部地方의 主神이다.
64. 太白山의 昆虫 : 民聲, 10號, p.22, 1946. 太白山, 五台山學術調査隊報告로 주로 나비에 關한 通俗篇.
65. 生活科學化 : 現代科學, 第3號, p.63, 1946.
66. 世界的인 天然記念物 光陵의 伐木은 大罪惡 : 自由新聞, 1947年 3월 11日紙 2面.
67. 科學과 協力 : 新天地, 1947年 3·4月 合併號, p.116-8. 一科學隨筆.
68. 에스페란토創案者 자멘호프博士州周忌 : 서울신문, 1947年 4月 15日紙, p.4, 學藝欄.
69. 병아리의 죽엄 : 서울신문, 1947年 5月 24日紙, p.4, 學藝欄 — 科學隨筆 (金永石).
70. 꿈과 科學者 : 一서울신문, 1947年 6월 17日紙, p.4, 學藝欄. 一科學隨筆.
71. 우리동물계 ①-② : 주간소학생, 제43호, p.2 : 제44호, p.2, 우리자랑欄, 1947.
72. 남나비선생 : 同上, 제45호, p.3, 우리자랑欄, 1947.
73. 봄의동물 : 同上, 제46호(5월치), p.9-10 & 17, 봄의과학 ⑥, 1947.
74. 칼찬선생님 : 同上, 6월치, pp.8, 14 & 22, 1947.
75. 朝鮮의 教育體制 : 自由新聞, 1947年 6月 30日紙 1面, 自由提言.
76. 拳鬪와 宗教 : 서울신문, 1947年 7月 26日紙4面 學藝欄. 一科學隨筆 (金永石)
77. 小白山脈의 蝶類採集記 : 서울신문, 1947年 8月 16日紙4面 學藝欄.
78. 山岳과 昆虫 ①-② : 서울신문, 1947年 8월 16日紙4面 : 8월 19日紙

- 4面, 學藝欄. —科學隨筆(金永石).
79. 鬱陵島の 沿革 : 서울신문, 1947年 9月 2日 4面, 學藝欄.
80. 鬱陵島の 自然 : 서울신문, 1947年 9月 9日 4面, 學藝欄.
81. 가을의 동물계(겨울준비에 바쁜 동물계) : 소학생, 9월치, p.12-3, 1947.
82. 소백산맥의 나비 : 同上, p.42-3.
83. 登山과 採集 : 서울신문, 1947年 9月 27日紙 4面. 學藝欄. —科學隨筆(金永石).
84. 郷土와 生物 : 서울신문, 1947年 10月 28日 : 11月 1日紙4面, 學藝欄.
85. 박물학자 “린네” : 새동무, 제10호, p.18-9, 1947.—위인이야기(어린이잡지).
86. 과학이야기 : 同上, 제11호, p.16-7, 1947.
87. 續朝鮮的教育體制 : 自由新聞, 1947年 12月 1日紙1面, 自由提言.
88. 제주도(濟州島)와 울릉도(鬱陵島) : 소학생, 10월치, 51호, p.18-9, 1947.
89. 科學 : 한보, 22(復刊第2號), p.22, 1947.
90. 鬱陵島와 개구리 : 金融組合, 12(改新擴大號), p.37, 1947.—朝鮮山岳會報告講演會에서의 筆者의 講演要旨의 一部.
91. 울릉도를 다녀와서 : 소학생, 11월치, p.35-8, 1947.
92. 崔鉉培氏著 『글자의 혁명』評 : 東亞日報, 1947年 8月 3日紙3面 : 23日紙 4面.—①-②가 掲載되고 ③은 掲載되지 않았음.
93. 生殖과 生活史 : 서울신문, 1947年 12月 20일 : 23日紙 4面, 學藝欄.
94. 工業과 學校 : 工業新聞, 1947年 11月 23日紙1面, 工業論壇.
95. 창간사 : 科學나라, 創刊號, p.2, 1947.
96. 생활사(生活史)라는 말 : 科學나라, 第1卷第2號, p.1-2, 1947.
97. 체온(體溫)과 이(蟲) : 科學나라, 第1卷第3-4號, p.4-5, 1947.

98. 生物學界의 進路 : 서울신문, 1948年 1月 6 : 13日紙4面, 學藝欄.
99. 朝鮮의 姿態 : 濟州新報, 1948年 2月 6日紙1面.
100. 方言과 昆蟲 : 서울신문, 1948年 2月 8日紙4面, 學術欄.
101. 우리의 國號와 年號와 글 : 新天地, 2月號, p.194-5, 隨筆欄, 1948.  
— 隨筆(金永石).
102. 鬱陵島의 人文 : 新天地, 2月號, p.200-1 隨筆欄, 1948.
103. 나무를 심그자 : 民聲, 4, p.34-5 & 38-9, 1948. 1947年 4月 植木  
週間에 社稷公園에서 講演한 內容
104. 버섯과 곰팡이는 四寸格 : 주간서울, 第6號, p.8 「教養과 趣味」欄,  
1948. — 筆者는 無名氏로 되어 있고 本來의 題目은 「菌과 細菌」.
105. 學術界에 있어서의 「에스페란트」의 地位 : 新天地, 6月號, p.94-6,  
隨筆欄, 1948. — 師範大學講堂에서한 자멘호프 博士 31周忌 記念  
講演內容.
106. 朝鮮農作物의 病蟲害開發, (農地開發營團月報), 第4號, p.2, 1948.
107. 곤충채집(昆蟲採集) : 어린이, 8月號(125號), p.34-6, 1948.
108. 鬱陵島의 하루밤—科學者의 探查記— : 現代科學, 8, p.24-9, 1948.
109. 새교을 이야기하는밤—座談會— : 現代科學, 8, p.44-51, 1948. —  
나의 發言은 지나치게 省略되었다는 것 보다 核心을 일어져 있다.
110. 安長官에 보내는 公開狀 : 주간서울, 第8號, p.7, 1948.
111. 사랑(愛)과 自殺 : 新天地, 8月號, p.182-3, 隨筆欄, 1948.
112. 어느날의 꿈속의 꿈 : 農地개발, 第6號, p.2, 1948. — 金永石의 詩.
113. 나의 長壽法 : 學風, 創刊號, p.39-40, 隨筆欄, 1948.
114. 鬱陵島의 개구리 : 科學時代, 第5號, p.31, 1948.
115. 새책평 : 도봉섭 · 심학진 공저 조선식물도설 유독식물편 : 서울신  
문, 1948年 10月 21日 : 문화란.

116. 濟州島廳論 : 제주신보, 1948年 10월 20日紙2面.
117. 동물학연구실 소개 : 과학나라, 2권1호, p.35, 1948.
118. 나의 指標 : 獨立新報, 1949年 1月 7日紙1面.
119. 겨울의 동물(1-2) : 진달래, 창간호, p.21-3 : 2월호, p.28-30, 1949.
120. 平和를 象徵하는 비둘기이야기 : 學生新聞, 4282年 1月 1日, 第80號 : 2月14日, 第81號, 4面 科學페이지, 1949.
121. 國産蝶類研究에 光明(「작은연주노랑나비」와 「백두산노랑나비」란 어떤 것?) : 서울신문, 4282年 2月 23日紙4面 文化欄. 1949.
122. 에스페란토論 : 新天地, 第4卷, 第2號, p.138-41, 1949.
123. 智識과 趣味와 敎養 : 同上, p.143-4. — 隨筆(金永石).
124. 곤충 · 言語 · 民族 : 學生新聞, 第83-85號, p.4, 科學페이지, 1949.
125. 言語政策에 對한 所感(이기인역은 「새사리갈 말말광」을 評함) : 주간서울, 3月第3週, 第30週, 第30號, p.6, 1949.
126. 森林과 文化人의 覺悟 : 聯合新聞, 4282年 4月3日3面. 1949.
127. 趙福成著 「昆蟲記」 : 서울신문, 1949年 4月 11日紙2面, 새책평.
128.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1年間の 濟州島 : 學風, 第2卷, 第1號, p.100-1, 1949.
129.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둘째해의 濟州島 : 同上第2號, p.112-3.
130.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셋째해의 濟州島 : 同上, 第3號, p.116-7.
131. 敎師와 學者 : 새교육, 제5호, 隨想欄, p.85-7, 1949.
132. 所謂文化人의 惡趣味 : 太陽新聞, 4282年 5月 27日紙2面, 文化欄, 1949.
133. 科學과 에스페란토 : 新天地, 第4卷, 第6號, p.104-5, 隨筆欄, 1949.  
— 차멘호프 博士 32周忌記念講演要旨.
134. 大學生과 語學공부 : 國學學報, 第4號, p.3, 1949.
135. 동물 사로잡기 : 과학나라, 3권3호, p.16-20, 1949. — 1946年 9月



25日 午後 5時 30分-45分 어린이時間 放送內容, 於京城中央放送局.

136. 世界各國人口 : 조선교육, 3권4호, 6월호, p.115-6, 1949.
137. 山岳趣味 : 聯合新聞, 1949年 7月 19日紙4面, 文化欄, 隨筆.
138. 에스페란토論(上下) : 國都新聞, 1949年 7月 19-20日紙2面, 文化欄.
139. 山林과 山岳會 : 山林, 第2號, p.7, 1949.
140. 日本을 正視하자(上下) : 聯合新聞, 1949年8月5-6日紙4面, 文化欄.
141. 戰後日本の 에스페란토運動 : 聯合新聞, 1949年 8月 31日紙4面, 文化欄.
142. 多島海踏查記(上下) : 國都新聞, 1949年 9月 3-4日紙2面, 文化欄.  
— 朝鮮山岳會派遣第6回學術調查隊報告.
143. 時感三題 : 國都新聞, 1949年 9月 7日紙2面, 文化欄. — 요새 話題에 오른 所謂神龜, 肝디스토마, 과량새에 대한 이야기.
144. 所謂『神龜』의 正體 : 平和日報, 1949年 9月 10日紙2面, 文化欄.
145. 多島海의 綜合報告 : 聯合新聞, 1949年 9月 14日紙4面, 文化欄. — 金鼎泰, 李敏載, 李永魯, 李熙泰, 趙重三等諸氏와의 綜合報告로 全 面을 차지함.
146. 青海龜의 解說(康津의 소위 神龜의 正體) : 國都新聞, 1949年 9月 16日紙2面, 文化欄.
147. 에스페란토新聞(上中下) : 聯合新聞, 1949年 9月 23-25日紙4面, 文化欄.
148. 新聞과 科學 : 서울신문, 1949年 9月 28日紙, 朝刊, 文化欄.
149. 病과 藥價 : 現代公論, 爽秋號, p.15, 4282年(1949).
150. 權威 : 現代科學, no. 10, p.17, 4282年(1949).
151. 楸子海峽 : 國都新聞, 1949年 11月 1日紙, 文化欄.

152. 英語와 에스페란토 : 聯合新聞, 1949年 11月 5日紙, 文化欄.
153. 濟州名産 「不老茶」禮讚 : 不老茶製造本舖 서울出張所發行宣傳紙, 1949.
154. 우리나라의 대표나비 : 침성대, 第2號, p.3, 4282年(1949).
155. 大學·中學·小學 — 教育界에의 一提唱 — : 聯合新聞, 1949年 11月 20日紙, 文化欄.
156. 第34回에스페란티스토萬國大會 : 同上, 1949年 11月 27日紙 文化欄.
157. 科學性的 貧困 : 週刊聯合, 第2號, p.11, 隨筆, 1949.
158. 博物學者の 傳記 린네 : 科學時代, no. 7, p.29-31, 1949. — 1946年 10月 24日, 서울 中央放送局, 어린이 時間, 放送內容 : 새동무, 第10號, p.18-9(1947) 所載의 卒篇은 縮小版.
159. 론돈새 : 과학나라, 3권5호, p.2, 1949. — 갈매기, 참새와 비둘기의 이야기.
160. 世界平和와 言語政策 : 聯合新聞, 1949年 7月 16日紙4面.
161. 學究의 辯 : 太陽新聞, 1949年 12月 30日紙, 送年隨筆.
162. 나비採集 20年回顧錄(1-2) : 新天地, 1949年 11月號, p.214-20 : 1950年 1月號, p.239-46.
163. 全北諸島嶼의 學術探查를 마치고 : 서울신보, 1950年 1월 2日紙, 全北島嶼學術探查報告.
164. 漢子制限論 : 聯合新聞, 1950年 1月 15日紙, 文化欄.
165. 廣告와 職名 : 聯合新聞, 1950年 2月 21日紙4面, 文化欄. — 隨想
166. 可居島脫出記 : 新天地, 2月號, p.143-8, 隨筆欄, 1950
167. 天國과 地獄 : 週刊서울, 79號, p.13, 隨筆欄, 1950.
168. 無題錄 : 週刊서울, 80號, p.13, 隨筆欄, 1950.
169. 범이야기 : 과학나라, 4권1호, p.4-9, 1950. — 1947年 11月 7日 가

정과학시간 라디오방송내용, 서울.

170. 新聞記事로본 解放後 닛째해의 濟州島 : 濟州新報, 附錄第1號(4283年 4月 5日, 서울), p.4, 1950.
171. 生産과 建國 : 서울신문, 1950年 4월 23日紙3面, 文化人獨白欄.
172. 봄과 나비 : 週刊서울, 84號, p.11, 1950.
173. 濟州始祖 高·良·夫 三氏考 : 週刊서울, 87號, p.13, 1950.
174. 나비分布圖 : 月刊아메리카, 5月號, p.22-3, 1950 — 긴꼬리제비나비, 꼬마표범나비, 극남노랑나비, 북방기생나비의 4種을 다루었음.
175. 萬年筆과 피아노(隨筆) : 週刊서울, 90號, p.13, 1950.
176. 變遷하는 自殺의 實態 : 太陽新聞 : 漢城日報 : 聯合新聞, 4283年 6月 14日附 社會面, 1950. — 生物學者の 談話.
177. 生物學과 英韓辭典(隨筆) : 新天地, 6月號, p.126-8, 1950.
178. 天然記念物 保存에 對하여 : 同上, p.177-9 & 188. — 文化指標欄 其三.
179. 나비이야기 :
  - (1)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나비 : 어린이신문, 제173호, p.2, 1950.
  - (2) 우리나라의 나비종류 : 同上, 第174號, p.2.
  - (3)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비 : 同上, 第175號, p.2.
  - (4) 나비가 사람에게 이로운점 : 同上, 第176號, p.2.
  - (5) 나비의 하루 : 未刊
180. 나비잡이 餘談 : 漫畫新聞, 1950年 6月 12日紙1面, 박첨지欄.

## ▣ 저자 소개



### 石宙明 (1908~1950)

곤충학자. 평안남도 평양 출생. 1926년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29년 일본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였다. 1930년 모교인 송도중학교 생물교사로 부임하여 10여년간 근무하면서 나비연구에만 전념하였다. 1943년 경성제국대학 부속 제주도생약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는 제주도의 곤충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제주도방언집』(1947), 『제주도관계문헌집』(1949), 『제주도의 생명조사서』(1949) 등을 출판하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수원농사시험장 병리곤충부장에 취임하였다. 1946년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부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연구생활을 계속하였는데 그간에 제작된 귀중한 표본과 연구업적은 범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유고로는 『한국산접류연구』, 『한국산접류분포도』 이외에 『제주도의 인문과 자연』이라는 수필집과 『제주도자료집』을 남겼다.

## 濟州島資料集

1971년 9월 10일 초판 발행

발행처 : 보진재(寶晉齋)

저 자 : 石宙明

2008년 12월 15일 재판 인쇄

2008년 12월 30일 재판 발행

발행처 : 서귀포문화원

발행인 : 김 병 수

인쇄처 : 경 신 인 쇄 사